

11-1371000-000393-01

조직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 방안연구

2012. 4. 19

 **문화체육관광부**

제 출 문

이 보고서를 『조직적 관점에서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
합니다.

2012. 4 .19.

연 구 진

책임연구원 한동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김세은 [강남대학교 예체능학부 교수]

연구보조원 정현정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박사과정생]

보 조 원 양승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생]

목 차

i

표 목차

<표 II-1> 개인 기부 활동 참여율	27
<표 II-2> 개인 기부의 주요 기부처 (중복 응답)	28
<표 II-3> 개인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액	29
<표 II-4> 개인 기부의 기부처별 기부액	29
<표 II-5> 개인 기부의 수혜 희망처 (중복 응답)	30
<표 II-6> 개인 기부 결정시 고려요인	31
<표 II-7> 개인 기부자의 기관 신뢰도	32
<표 II-8> 개인 기부자의 정기성	33
<표 II-9> 개인 기부의 내·외적 동기	33
<표 II-10> 기업의 분야별 기부 비율추이	34
<표 II-11> 기업의 분야별 기부 비율추이 (중복응답)	35
<표 II-12>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 추이	36
<표 II-13> 부문별 집행액 구성비 추이	36
<표 II-14> 사업 분야별 참여율 추이	37
<표 II-15> 기업 기부 방식	38
<표 II-16> 금액기준 기부처별 기부비율	39
<표 II-17> 기업 기부의 평균 기부 금액	40
<표 II-18> 기업 기부의 평균 기부 금액	41
<표 II-19>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 추이	41
<표 II-20> 기업의 기부 형태별 기부 참여율 추이	42
<표 II-21>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규모 (*기업자체지원실적+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실적)	43
<표 II-22> 직접조사 기업의 자체지원 현황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부금 제외)	44
<표 II-23>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추이	44
<표 II-24> 2010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유형별 금액	45
<표 II-25>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방식	45

<표 II-26> 문화예술 지원 상위 5개 재단	46
<표 II-27> 문화예술 지원 상위 5대 기업	46
<표 II-28> 2010년도 산업군별 지원금액의 비율	47
<표 II-29>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	48
<표 II-30>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의 마케팅 전략 세부내용	49
<표 II-31>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문화경영활동이 중요 해지는 이유(외적요인)	49
<표 II-32>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문화경영활동이 중요 해지는 이유(내적요인)	50
<표 II-33> 문화예술 지원 동기	50
<표 II-34>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협력 채널	51
<표 III-1> 2012 예산운용계획 세부내역	57
<표 III-2>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원	71
<표 III-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내역	78
<표 III-4>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계획내역	79
<표 III-5> 예술경영지원센터 수입내역	83
<표 III-6>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출내역	84
<표 III-7>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요사업별 지출내역	84
<표 IV-1> 미국의 주정부 예술기구(SAA)의 법적 유형	90
<표 IV-2> 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조직	92
<표 IV-3> 지원유형에 따른 예술기금, 2009	104
<표 IV-4> 4개지역구 예술위원회와 구성	110
<표 IV-5> 문화예술산업과 비영리 기금 수입비교	115
<표 V-1> 분과위원 평균임기	128
<표 V-2>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액 변화추이(2004~2008)	130
<표 V-3> 중앙·지회 연도별 모금액 변화 추이 (1999~2009)	131
<표 V-4> 일반모금 vs. 지정모금 총모금액 변화추이(2000~2009)	132
<표 V-5> 현금모금 vs. 현물모금 총모금액 변화 추이 (2000~2009)	133

<표 V-6> 연도별 기업 및 개인 총모금액 변화 추이(2000~2009)	134
<표 V-7> 캠페인모금 vs. 연중모금 총모금액 변화 추이(2000~2009)	135
<표 V-8> 희망캠페인 언론사 모금액 추이(2000~2009)	136
<표 V-9> 개인모금액 중 정부관련 단체들의 기부액 추이(1999~2009)	137
<표 V-10> 전체 모금액 대비 개인기부금액의 변화추이(1999~2009)	137
<표 V-11> 기업 기부금 총액 변화 추이(1999~2009)	138
<표 V-12> 모금사업비 대비 모금액의 비율(1999~2009)	139
<표 V-13> 모금기관 이미지평가	139
<표 V-14> 복지대상별 구성비 (2007~2009)	140
<표 V-15> 사업내용의 구성비율 (2006~2009)	141
<표 V-16>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동원	142
<표 V-17> 배분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증진	142
<표 V-18>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배분사업	143
<표 V-19> 공동모금회 사업수행기관 교육실적 (2007~2009)	144
<표 V-20> 사업수행기관 현황(2007~2009)	145
<표 V-21> 배분사업의 과정투명성	146
<표 V-22> 배분사업의 결과투명성	146
<표 V-23> 2010 공익과 대안 사업 세부내역	151
<표 V-24> 2010 빈곤과차별 사업 세부내역	152
<표 V-25> 2010 미래세대 장학사업 세부내역	153
<표 V-26> 2010 나눔문화 사업 세부내역	154
<표 V-27> 2000~ 2010 연도별 수입·지출현황	155
<표 V-28> 2010 수입현황	155
<표 V-29> 2010 지출현황	156
<표 V-30> 2010 영역별 사업비 현황	157

그림 목차

[그림1]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8
[그림2] 단기적 재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9
[그림3] 장기적 재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9
[그림4]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12
[그림5] 재편성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12
[그림6]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14
[그림7] 문화예술모금회(가칭) 조직도	15
[그림8] 현재 아름다운재단 조직도	17
[그림Ⅱ-1] 개인 연간 평균 기부 금액	30
[그림Ⅱ-2] 개인 기부 사용 희망 분야	31
[그림Ⅱ-3] 개인 기부자의 구성기관에 대한 신뢰도	32
[그림Ⅲ-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72
[그림Ⅲ-2]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80
[그림 IV-1] 문화예술 관련분야 기금배분, 2009	96
[그림 IV-2] 문화예술 관련분야 기금배분, 2009	97
[그림 IV-3] 2012 예술재원 지원유형과 현황	98
[그림 IV-4] 비영리 수익재원 구성	98
[그림 IV-5] 미국의 비영리 문화예술재원 현황	99
[그림 IV-6] 2009년 지원분야 백분율	100
[그림 IV-7] 문화예술 관련분야 기금배분, 2009	101
[그림 IV-8] 2009년 예술기금모금유형	102
[그림 IV-9] 2008-2009년 주요 영역의 기금지원 변화	103
[그림 IV-10] East and South East 조직구성	110
[그림 IV-11] Midland and South West 조직구성	111
[그림 IV-12] North 조직구성	111
[그림 IV-13] London 조직구성	112
[그림 IV-14] 임원부 조직구성	113

[그림 IV-15] 단체규모에 따른 개인 기부기금 백분율, 2008/09	117
[그림 IV-16] 분야별 개인기부 기여도	117
[그림 IV-17] 문화예술분야 개인투자기여도	118
[그림 V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구조	126
[그림 V -2] 아름다운재단의 지향	148
[그림 V -3] 아름다운재단 조직구조	149
[그림 VI-1] 공동모금회	162
[그림 VI-2] 공동모금회 Corporate Symbol	162
[그림 VI-3] 공동모금회 color	163
[그림 VI-4] 공동모금회 Logo Type	164
[그림 VI-5] 일본 공동모금회 1	164
[그림 VI-6] 일본 공동모금회 2	165
[그림 VI-7] 일본 공동모금회 3	165
[그림 VI-8]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1	165
[그림 VI-9]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2	166
[그림 VI-10]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3	166
[그림 VI-11]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4	166
[그림 VI-12] 한국재해구호협회 브랜드	167
[그림 VI-13] 한국재해구호협회 color	168
[그림 VI-14] 한국재해구호협회 Logo Type	169
[그림 VI-15] 한국재해구호협회 시그니처 조합	169
[그림 VI-16] NHN 해피빈	170
[그림 VI-17] CJ 도너스캠프	170
[그림 VI-18] SK 행복도시락	171
[그림 VI-19] 다음세대재단	172
[그림 VI-20] 유스보이스	172
[그림 VI-21] 아이티캐너스	173
[그림 VI-22] 올리볼리	174
[그림 VII-1]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180

[그림VII-2] 단기적 재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180
[그림VII-3] 장기적 재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181
[그림VII-4]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184
[그림VII-5] 재편성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184
[그림VII-6]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186
[그림VII-7] 문화예술모금회(가칭) 조직도	186
[그림VII-8] 현재 아름다운재단 조직도	189

연구요약

연구 요약

1. 연구의 배경

1)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

□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며, 개인 기부는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영역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는 총 기부금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한편, 상당수의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종사자들이나 단체의 창작활동 여건 개선 없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한국 사회의 빈곤계층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빈곤에 더하여 문화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접근성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 분야의 기금 축소

□ 공연장, 극장 이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왔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0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04년 1월 폐지됨에 따라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재원손실이 발생하여 기금 규모가 매년 감소 중임.

- 문예진흥기금의 축소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또한 축소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저하가 우려되며,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임.

3)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문화의 문제 (cultural problem)이며, 정부의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그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의 관점이 탈산업사회의 주요한 담론으로 제기되고 있음.
- 민간분야에서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아울러 문화예술분야의 기부 활성화는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의미함.

4) 문화예술 분야 모금 및 지원조직 기능 확대 및 신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의 필요

- 현재 문화예술분야의 모금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나눔본부 및 지자체별 문화재단, 민간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조직들의 활발한 모금활동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모금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여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모금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1)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실태 분석

- ☐ 개인과 기업의 기부행위를 분석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의 규모와 방법 등을 추정하고 분석함.
- ☐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모금 및 지원조직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2)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실태 및 지원조직의 활동 분석을 통해 민간부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 ☐ 기존의 지원조직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 한국메세나협의회 등)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종의 공동모금 조직 (Federated Funder, Aggregated Funder)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3. 조직적 관점에서 문화예술 분야 기부활성화 방안

- 1)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부 활성화 방안은 아래의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기존 조직 내의 모금 기능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성 방안 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조직인 예술나눔부 활용 방안

(장기적 비전)

○ 예술경영지원센터 활용 방안

☐ 새로운 공동모금 조직 설립을 통한 재원 조성 방안 제안

○ 특수법인의 설립 방안

○ 일반 공익법인의 설립 방안

2) 세부 전략 방안

☐ 기존 조직 내(內)의 모금 기능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성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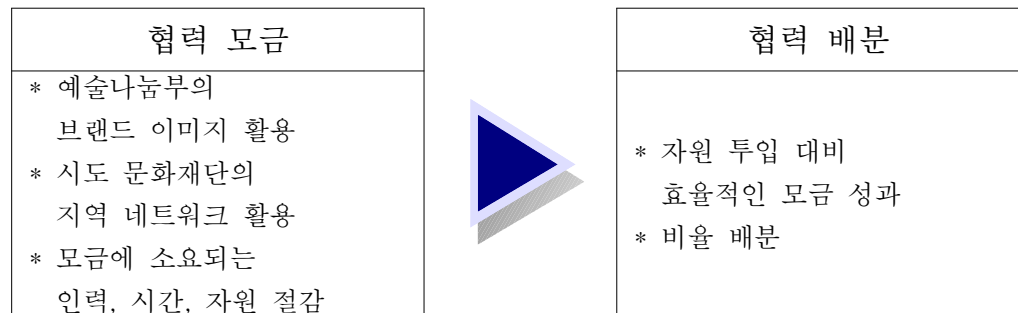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의 예술나눔부의 모금 및 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조직 구조를 재편성하는 방안

- 이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능의 대부분을 민간 부문의 예술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의 기능은 현재의 직능단체 및 기관에 적극적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의 현재 역량으로는 전국 단위의 모금활동 및 배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예술나눔부의 조직적 역량의 확충을 위한 조직 재편성은 필수적인 요소임.

·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할 경우, 전국적 재원 조성 및 배분을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문화재단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 현재 문화사업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의 당해 사업기획 및 평가를 담당할 인력과 모금과 배분을 담당할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사업기획 및 평가 담당 각 2명 이상, 모금분과 5명 이상, 배분분과 5명 이상, 지자체와의 협력 및 liason역할 2명 이상 등 총 16명 이상의 인력이 이 기능에 신규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모금과 배분을 담당할 권역별 지회(가칭)가 필요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 시도의 문화재단과의 파트너 협력 체결로 협력모금 및 협력 배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이용한 전국적인 ‘win-win’ 모금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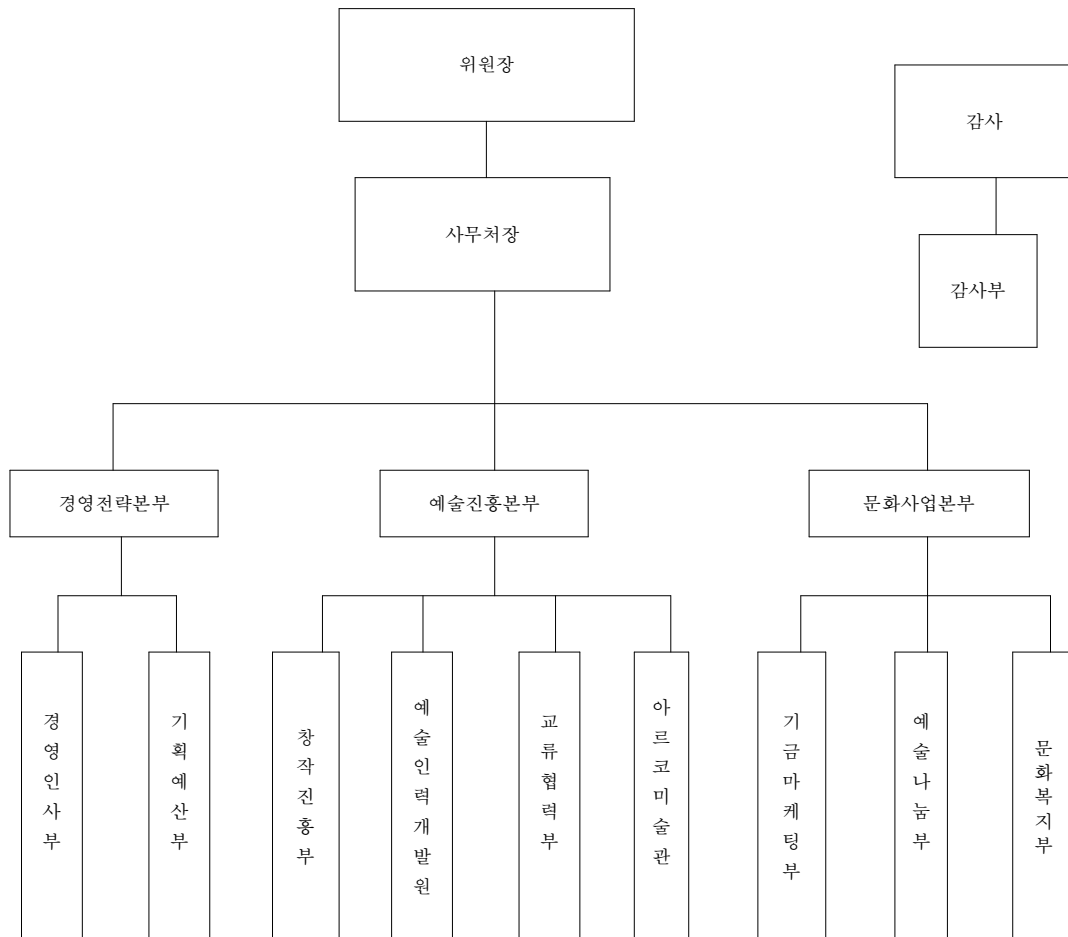


- 장기 전략으로는 파트너로서의 각 지역조직이 독립법인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모금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따라서 본부와의 파트너로서의 자격은 각시·도 문화 재단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일차적으로 문화재단에 기회를 주되, 이를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MOU 체결로 지역파트너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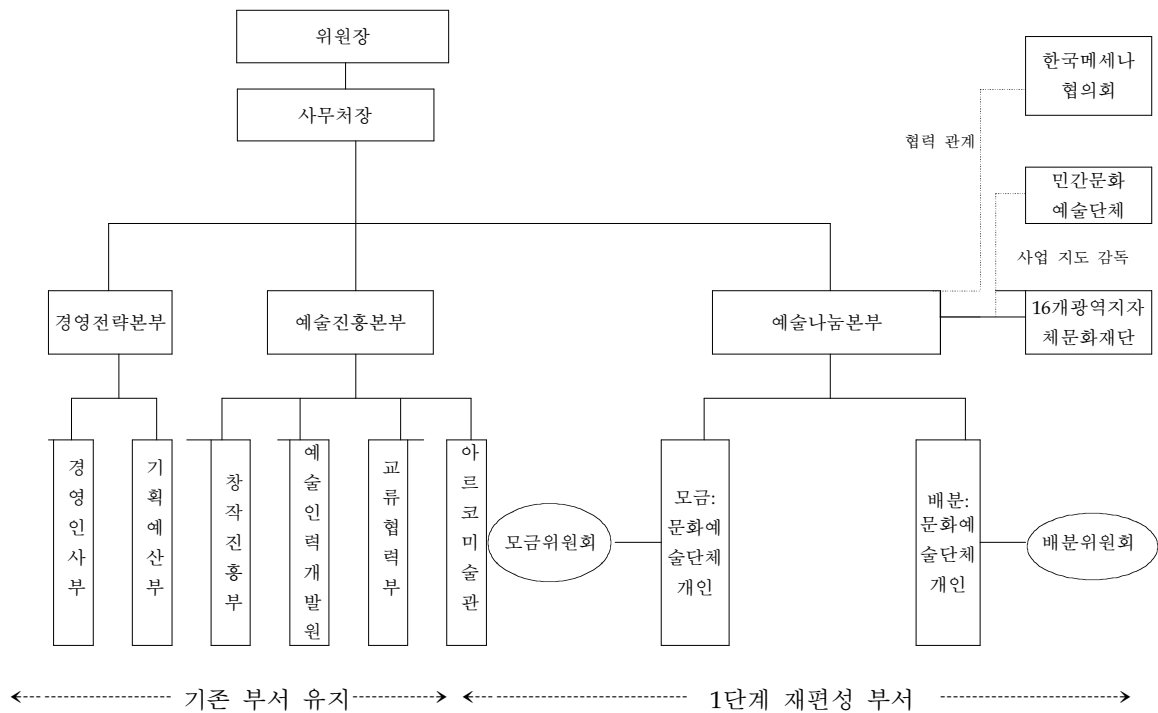
· 덧붙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방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본부로서의 기능 수행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 조직 구성 시 단계적 전략이 요구됨.

- 조직적 재편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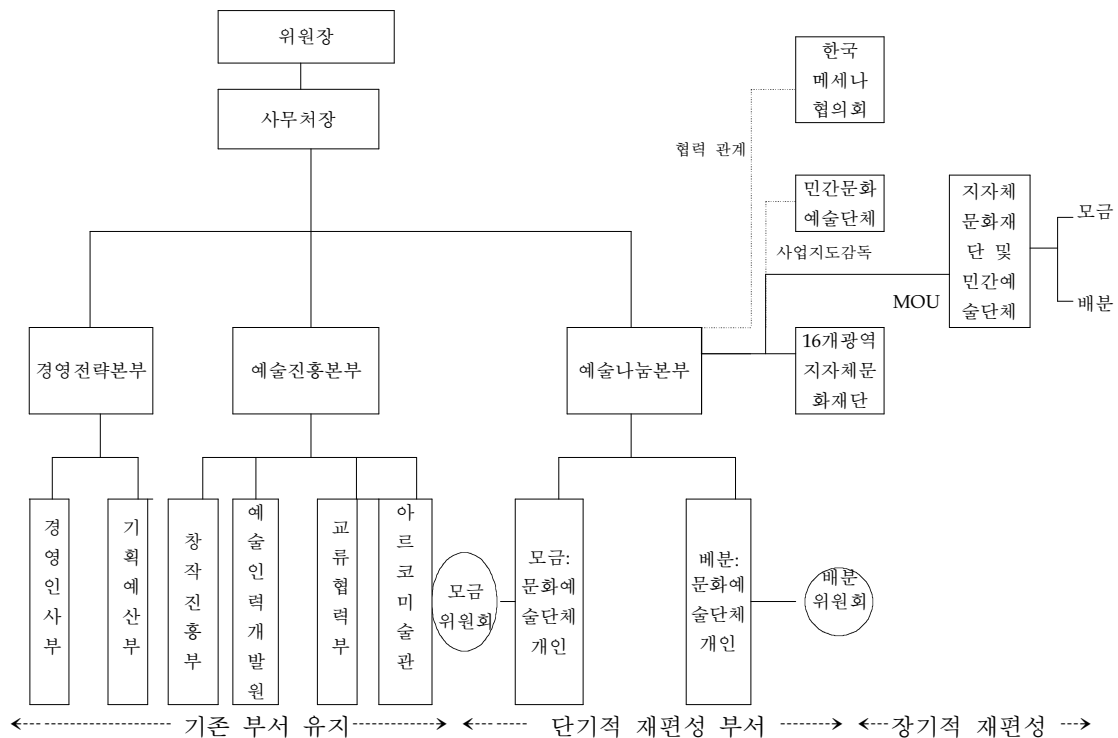
[그림1]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그림2] 단기적 재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그림3] 장기적 재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편성 추진전략
 -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실질적 참여 강화
 -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 및 배분 활동에 있어 민간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참여가 필수적임
 - 모금 위원회 : 예술나눔본부 모금 기능에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원현황 파악, 모금전략 수립, 기부자 관리, 홍보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
 - 배분 위원회 : 모금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배분 portfolio 구성, 제안서 심사 및 배분결정권을 부여함.

- 민간 문화예술 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 수립
 - 기부 문화 활성화의 핵심은 모금 및 배분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과 투명성에 있음
 - 민간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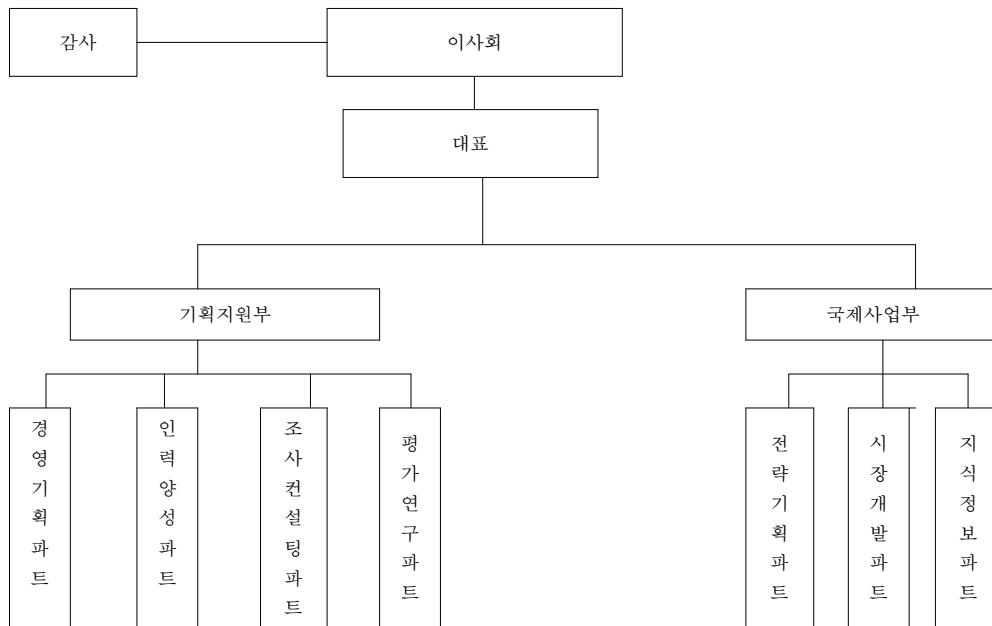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라는 조직의 성격이 이 기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변경 필요
 - 정관 제4조 (사업)에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민간 부문 재원 조성 및 배분” 관한 내용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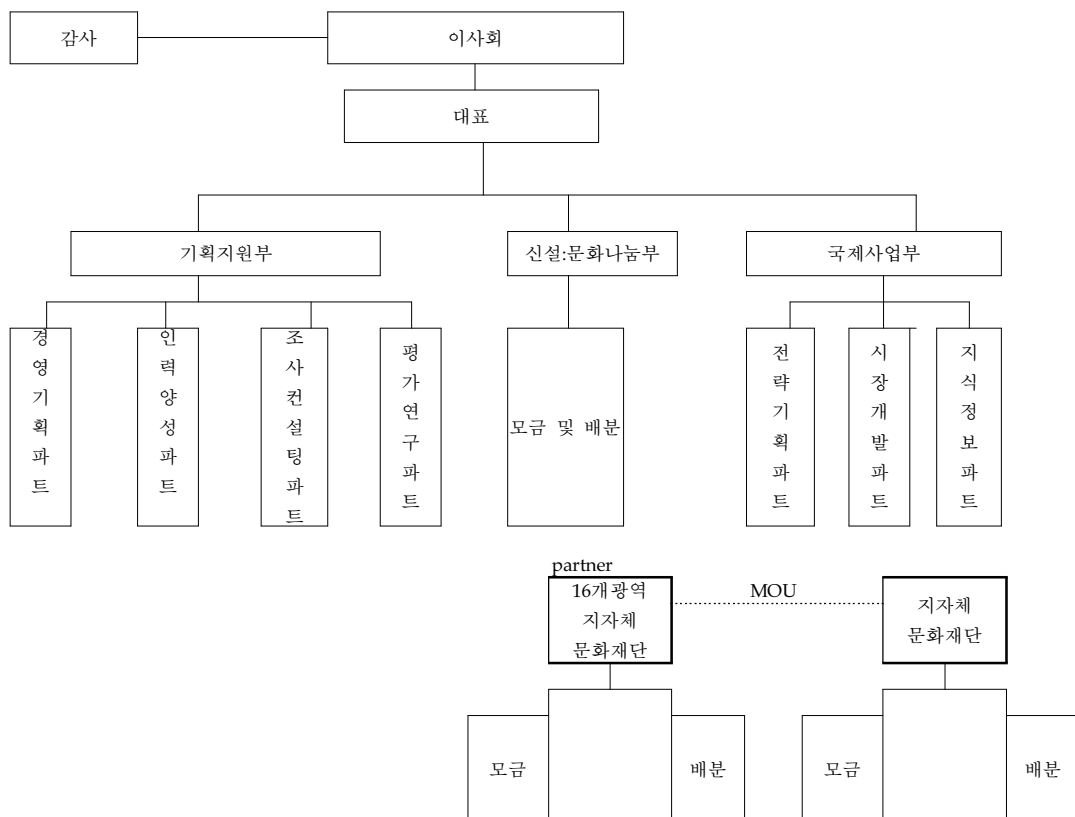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활용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예술기관 및 단체들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종사자를 지원한다’임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직임.
- 또한 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비하여 물리적 위치면에서 본부로서의 통제, 조정, 집중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유리함. 별도의 추가적 비용 부담 없이 현 조직을 재편성하는 작업만으로도 모금 조직이 가능한 방안으로, 위에서 제시한 장·단기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으로 효율적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이 기능을 부여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의 사업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단계적 전략이 동일하게 요구됨.
-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금 및 배분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지역조직이나 정관 변경 등의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와 동일함.
- 그러나,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며, 단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서, 공익적인 목적의 모금과 배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성격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조직적 재편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그림4]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그림5] 재편성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 새로운 공동모금 조직 설립을 통한 재원 조성 방안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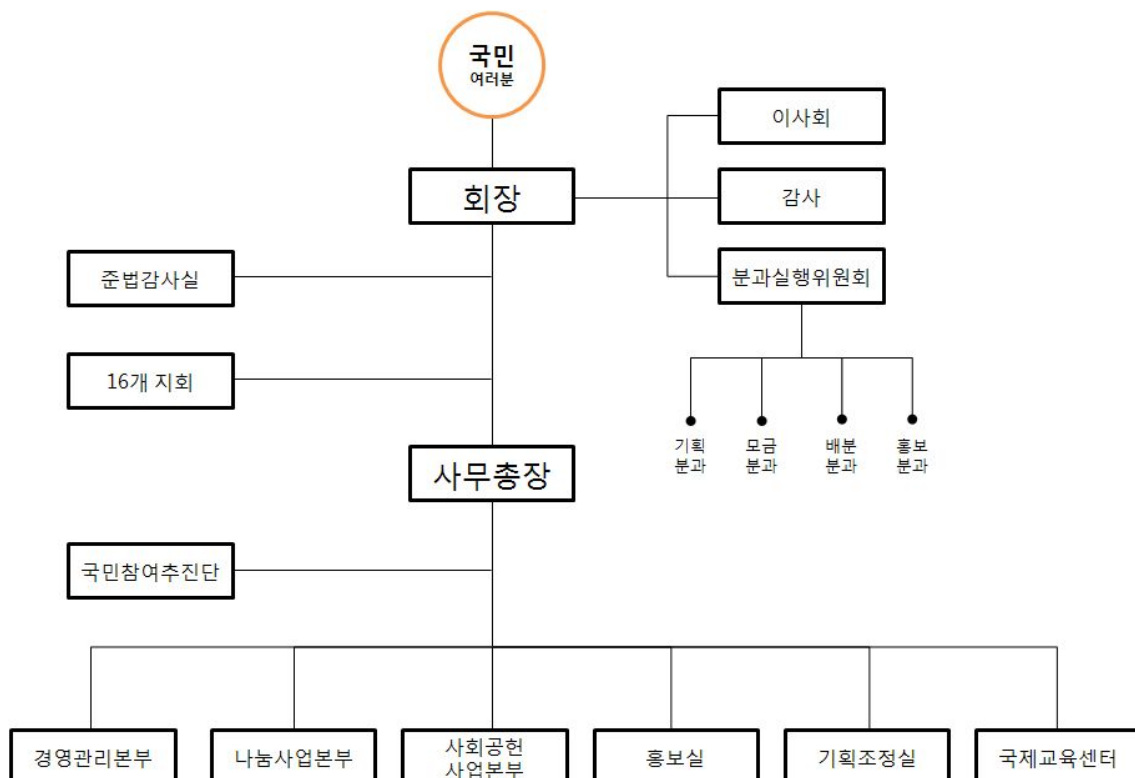
○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

- 특수법인이란 국가정책상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의 총칭으로, 좁은 의미로는 재정경제면이나 경영관리 및 운용상의 이유에 따라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 형태의 법인을 의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이 경우, 설립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므로 안정되고 투명성 있는 모금 전문 조직으로서의 강점이 있으나,
- 전문적인 최고경영진과 임원의 선임 및 임명,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결산보고 등이 정부 내 주무부서의 특별관리 아래 실행되므로, 또 하나의 문화예술 관련위원회를 조직하는 현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 주무부서의 특별관리 아래 실행되므로, 정부의 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에 비중을 두게 되어, 순수 민간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 설립의미와 상반된 방향으로 운영 될 가능성 높음.
- 또한 모금 조직 설립만큼 중요한 부분이 예술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통제가 이루어 질 것임. 따라서 법인은 미션·윤리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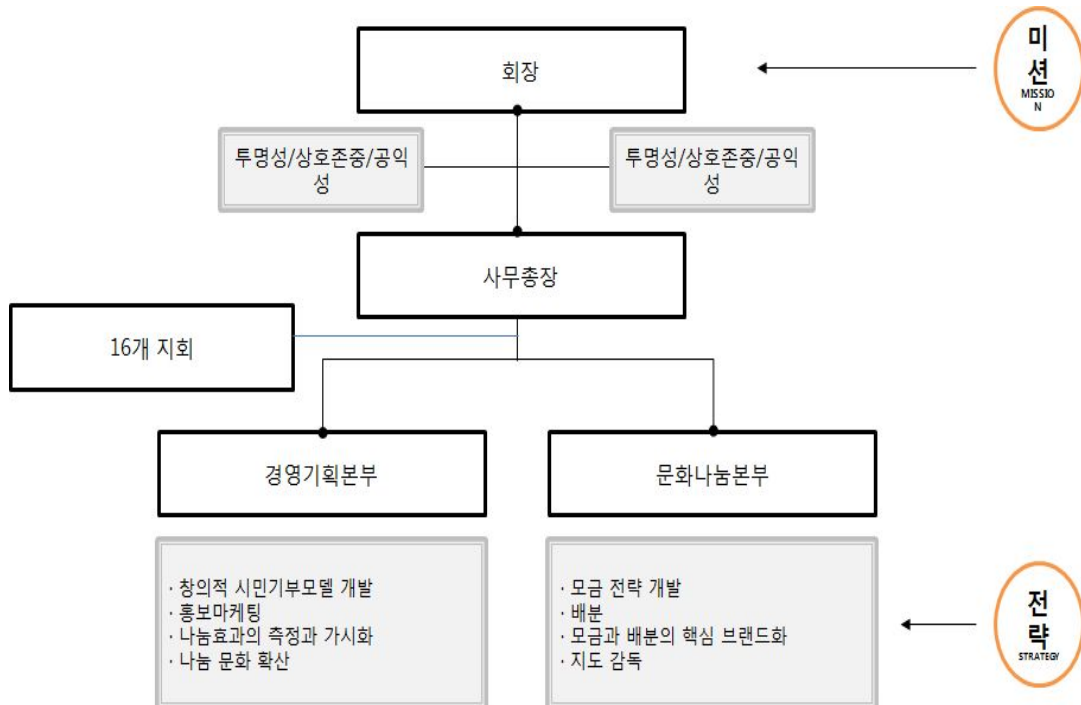
운영하여 예술인의 역량(투명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여야 함.

-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모금회(가칭)를 설립 할 경우 초기 투자 자산 규모와 전국 규모의 조직력을 구성하기에 전문적인 역량과 장단기적 전략이 요구됨.
- 조직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모금회(가칭)로 구성할 수 있음.
 -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사회 및 사무처 (6본부, 10개파트, 4개실행위원회, 인력55명), 16개광역지회
 - 신규 구성 문화예술모금회(가칭): 이사회 및 사무처(2본부 4부)

[그림6]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그림기] 문화예술모금회(가칭) 조직도



○ 일반 공익법인의 형태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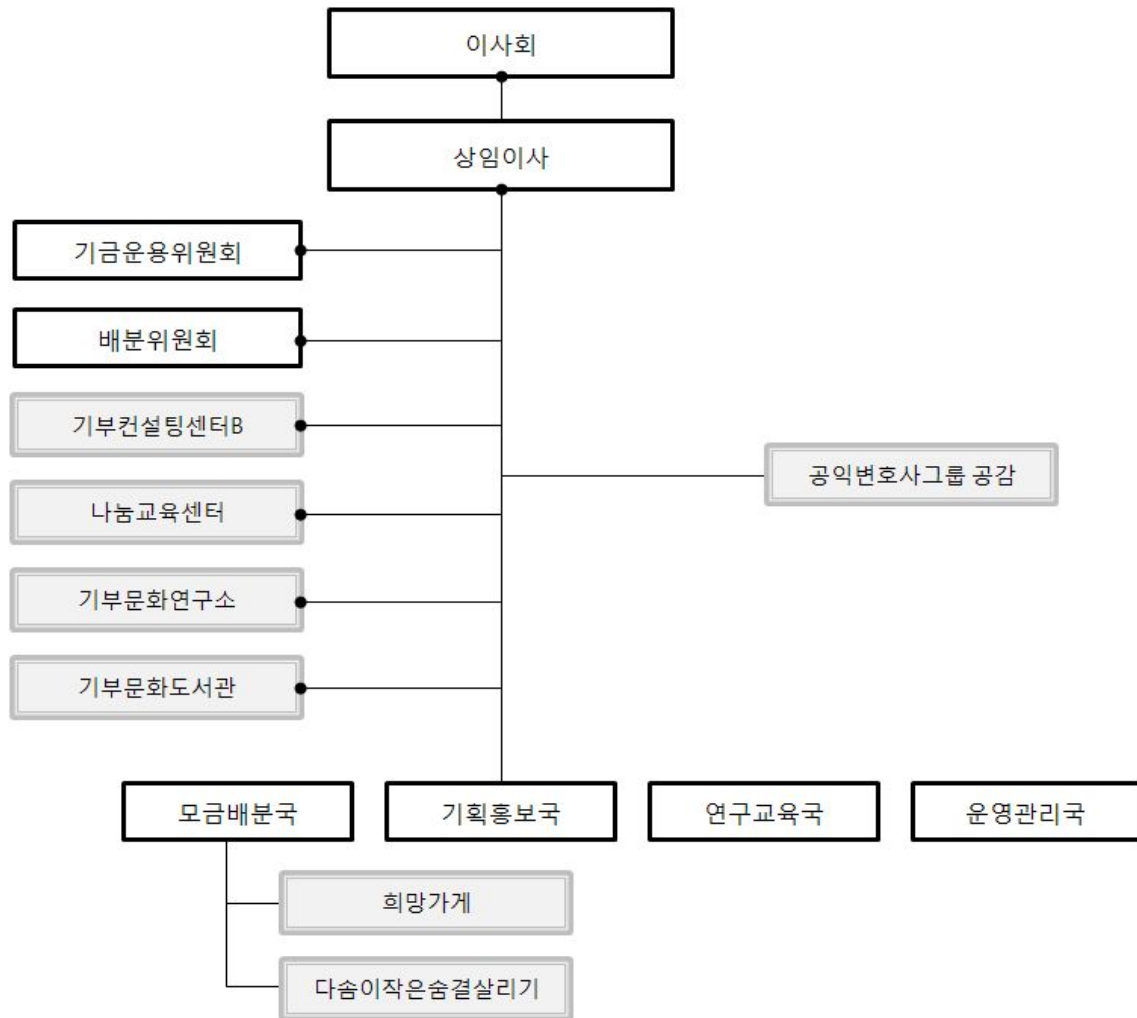
- 공익법인은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아름다운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 함.
- 현대사회에서 독립적인 활동 단위로 조직 틀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따라서 일반 공익법인 형태의 설립은 지속적인 활동 단위로서의 조직 체제를 갖추는 것이며, 순수 민간단체라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개인들로부터의 지원은 예술조직의 재원 조성 수입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법에 의거하여 해당 예술조직을 비영리조직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어 세금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단, 공익법인으로 조직 구성 시, 기부 모금액 중 운영기금 사용 비율(모금액 비중 10%)이 정해져 있어 조직 운영에 있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 될 여지 있으나, 아름다운재단과 같이 사업기금과 운영기금을 구분하여 재원 조성 시, 유연한 조직운명을 도모할 수 있어 운영상의 불안정한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미국의 예술 조직의 사례와 같이, 재원 조성 전담직원을 두어 다양한 성격의 비영리조직들과 경쟁하여 외부 지원주체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를 적극 활용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그자신이 지원자인 동시에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여 새로운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파트너로서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순수문화예술 민간모금 단체로서의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 조직 편성은 위에서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모금회(가칭)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앞의 특수법인 형태에서의 조직과 같음.

· 현재 아름다운재단 : 이사회 및 사무처

(4국, 6팀, 2개 실행위원회, 인력46명)

[그림8] 현재 아름다운재단 조직도



별도 법인의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문화예술기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판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이 결정적임.

※ 근본적인 검토사항

1. 문화예술분야에서 민간재원 조성의 명분과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명료하게 할 것.
 -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부분에 떠넘기는 것이 되어선 안 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해야 함.
 - 조세방식이 아닌 기금운용을 통한 정부사업 집행은 위험소지가 있음.
2. 문화예술분야의 단체 및 개인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민간부분의 재원 조성은 사업 필요성과 아울러 수혜단체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 핵심 요소임.
3. 정부 내 다른 부처의 계획과의 조율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정부 내 거의 모든 부처가 민간부분 재원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 및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최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분 재원 조성을 위한 정책 조정 작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혹은 관리감독하에 있는) 단체들 및 지자체 문화재단들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비하는 작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I .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I.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

- ☐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는 극히 미미한 실정임.
- ☐ 개인기부는 물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영역에서도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는 총 기부금액의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 ☐ 한편, 상당수의 문화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의 종사자들이나 단체의 창작활동 여건 개선 없이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움.
- ☐ 한국 사회의 빈곤계층 등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빈곤에 더하여 문화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한국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 따라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여,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화예술 분야의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예술 접근성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문화예술 분야의 기금 축소

- ☐ 공연장, 극장 이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왔던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제도가 '0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04년 1월 폐지됨에 따라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재원손실이 발생하여 기금 규모가 매년 감소 중임.
- ☐ 문예진흥기금의 축소에 따라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원 또한 축소되어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저하가 우려됨.
- ☐ 문화예술분야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창작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임.

3.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 현대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결국 문화의 문제 (cultural problem)이며, 정부의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 ☐ 한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이 그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이른바 "문화자본 (cultural capital)"의 관점이 탈산업사회의 주요한 담론으로 제기되고 있음.
- ☐ 민간분야에서의 자발적 참여와 기부를 통해 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특히 문화예술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
- ☐ 문화예술분야의 기부 활성화는 문화예술의 향유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하는 것을 의미함.

4. 문화예술 분야 모금 및 지원조직 기능 확대 및 신설에 대한 타당성 연구의 필요

- ☐ 현재 문화예술분야의 모금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나눔본부 및 지자체별 문화재단, 민간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조직들의 활발한 모금활동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모금을 통해 자원을 마련하여 문화예술단체와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모금기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2절 연구의 목적

1. 한국 사회의 문화예술 분야 기부 실태 분석

- ☐ 개인과 기업의 기부행위를 분석하여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부금의 규모와 방법 등을 추정하고 분석함.
- ☐ 현재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모금 및 지원조직들의 활동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

2.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 ☐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실태 및 지원조직의 활동 분석을 통해 민간 부문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함.

- 기존의 지원조직들(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나눔본부, 한국메세나협회의 등)의 기능을 확대, 보강하는 것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종의 공동모금 조직 (Federated Funder, Aggregated Funder)이 필요한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II . 한국 문화예술분야 민간기부현황과 실태

제1절 개인의 문화예술 기부

제2절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

II. 한국 문화예술분야 민간기부현황과 실태

제1절 개인의 문화예술 기부

1. 문화예술 분야 기부금 분석

□ 개인의 문화예술 기부

○ 아름다운 재단의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의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개인 기부 문화 추이를 분석해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의 현주소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음.

- 기부활동에의 참여 여부 추이를 보면, 2005년에 68.6%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감소함을 볼 수 있음. 이는 2008년 경제위기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나,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기부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표 II-1> 개인 기부 활동 참여율

(단위:%)

구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참여	57.0	48.0	64.3	68.6	55.0	55.7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자료 정리

- 기부금의 주요 기부 처로는 자선단체에/민간재단/복지시설에의 기부가 가장 높은 추이를 나타내며, 정치, 교육, 시민단체의 경우 5%이하, 문화예술에의 기부는 0.2%로 자선단체에로의 기부 쏠림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2000년의 자선단체에 기부가 30.2%에서 2009년에 2배 이상 증가함에 반해, 문화예술에 대한 기부는 감소함.

<표 II-2> 개인 기부의 주요 기부처 (중복 응답)

(단위:%)

분 야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자선/모금단체/민간재단/복지시설	32.2	58.5	50.2	57.5	71.2	67.0
종교기관	55.7	-	11.3	13.5	16.5	24.8
불우이웃/지인/친척	-	-	66.7	83.4	9.5	9.7
지역사회/민간협력/교류단체	4.4	4.0	3.4	2.9	6.8	5.7
시민단체	3.2	1.8	0.7	-	-	3.2
교육기관	1.8	1.7	1.7	1.5	-	3.2
정당 및 개별정치인	-	-	0.3	1.5	-	3.3
의료기관	-	-	0.3	0.6	-	0.7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	-	0.3	0.3	-	0.2
이익단체/경제인단체	-	-	0.2	0.4	-	-
환경/동물보호	-	-	-	0.9	-	-
해외구호	-	-	-	-	9.3	15.3
언론기관	-	38.0	-	-	-	-

* 출처: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 연도별 기부처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재분류하였음.

- 주요 기부처별 기부액으로, <표 II-4>과 <그림 II-3>과 같이 자선적 형태 기부처의 기부액은 십만원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수준을 보이고 있음. 반면 문화예술분야의 기부액은, 2009년의 경우 일만원으로 최저 수준임. 교육기관에 비해 1/24 수준, 2003년 43,000원 보다 1/4 감소함.
- 또한 <표 II-3>의 개인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액이 2000년 99,000원에서 2009년 182,000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함과 비교해 볼 때, 문화예술 분야는 1/18 수준임.

<표 II-3> 개인 기부자 1인당 평균 기부액

(단위:원)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99,000	108,000	90,401	102,550	199,000	182,000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자료 정리

<표 II-4> 개인 기부의 기부처별 기부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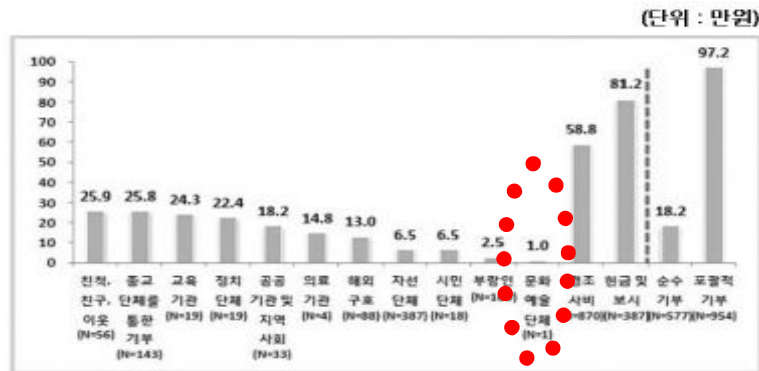
(단위:원)

기부처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경조사비				524,000	658,000	588,000
개인적기부(모르는사람)	93,000	232,000	18,000	19,000		
개인적기부(친구등지인)			471,000	67,000		
개인적기부(직계제외친척)				84,000	481,000	259,000
복지시설/단체	159,000	193,000	136,000	147,000		
자선/모금단체/민간재단	78,000	39,000	76,000	23,000	84,000	65,000
종교기관 통한 기부	385,000		173,000	286,000	324,000	258,000
재해 및 불우이웃돕기		14,000	221,000			
시민단체	83,000	138,000	64,000			65,000
민간협력/교류단체	72,000					
지역사회	49,000	287,000	102,000		61,000	182,000
이익단체/경제인단체			580,000	30,000		
정당 및 개별정치인			440,000	92,000	248,000	224,000
교육기관	40,000	130,000	140,000	400,000	127,000	243,000
의료기관			10,000	56,000		148,000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43,000	30,000	55,000	10,000
환경/동물보호				122,000	124,000	
해외구호					139,000	130,000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자료 정리

* 기부처는 연도별 상이하여 유사한 분야로 묶어 보기에 편리함을 도모하였음.

[그림 II-1] 개인 연간 평균 기부 금액



* 출처: 아름다운재단(2010).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0'

- 기부의 사용 희망 분야에는 자선 및 사회복지가 지속적으로 주도적이며, 문화 및 예술 분야는 사회복지 시설과 비교하여 1/20 수준임.

<표 II-5> 개인 기부의 수혜 희망처 (중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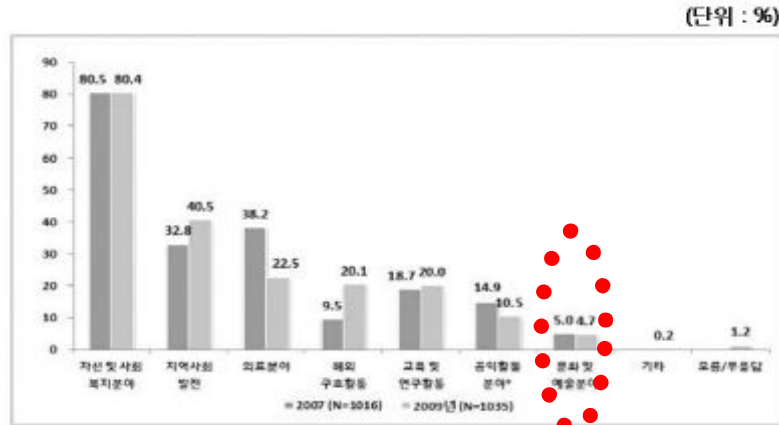
(단위:%)

기부 사용 희망 분야	2000	2001	2003	2005	2007	2009
소년소녀가장지원	64.3	64.2	60.2		사회복지 시설 80.5	사회복지 시설 80.4
결식아동지원	60.7	60.0	56.0	55.5		
시설아동지원	47.2	39.6	43.6			
장애인복지	42.3	44.4	52.3	43.3		
노인복지	42.0	43.1	54.8	43.6		
빈민구제	17.1	18.6	14.8	45.8		
청소년				13.0		
재난구호				40.8		
의료 활동 지원	7.3	4.2	3.6	11.6	38.2	22.5
여성 단체			2.9	11.4		
북한 동포			1.8	0.6		
이주 노동자			1.4	0.9		
시민사회 및 인권			1.0			
지역 발전			1.7	13.0	32.8	40.5
환경 보호	5.9	9.5	2.4	4.4	14.9	10.5
선교/포교 활동지원	5.5	3.3		3.1		
교육환경개선/학술지원		1.0 4.7	6.3	18.7	20.0	
문화예술발전지원			0.3	2.6	5.0	4.7
해외 구호			0.8	1.9	9.5	
정당, 이익단체 지원			0.1	0.6		
교통사고 유가족				0.1		
기타	6.4	5.9				0.2

* 출처 :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 연도별 기부처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재분류하였음.

[그림 II-2] 개인 기부 사용 희망 분야



* 출처: 아름다운재단(2010).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0'

- 그러나 개인 기부의 결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고려요인으로는 <표 II-6>와 같이 '누가 최종 기부대상인지', 그리고 '매개하는 기관이 신뢰성을 지닐 수 있는지', '사회적 개선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기관의 신뢰도는 <표 II-7>과 <그림 II-5>와 같이 문화예술분야의 신뢰도가 중간 정도의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정부기관보다는 높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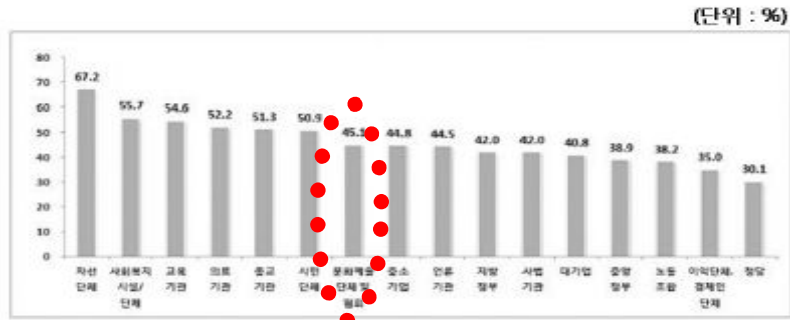
<표 II-6> 개인 기부 결정시 고려요인

(단위:점수, %)

고려요인	2000년 (4점 척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자선/기부처 신뢰성	2.78	33.40	71.6	57.8	83.7	78.9
사용 목적	2.63	56.00				
기부방법의 간편성	2.48	9.10	16.9	12.5	78.6	
가족/동료 기부 여부	1.95					
세금공제 혜택	1.46					
기관의 지원 대상			81.3	73.2	88.7	92.6
선택의 용이성				26.8	87.2	
사회의 인지도						
기관의 명성					75.8	52.5
사회적 개선 효과			26.2	28.7	75.7	64.5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자료 정리

[그림 II-3] 개인 기부자의 구성기관에 대한 신뢰도



* 출처: 아름다운재단(2010).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10'

<표 II-7> 개인 기부자의 기관 신뢰도

(단위:점수, %)

기관 신뢰도	2000년 (4점 척도)	2001년 (4점 척도)	2003년 (4점 척도)	2005년 (4점 척도)	2007년	2009년
국제 자선기관	2.76	2.97				
자선모금단체/민간	2.67	2.87	2.95	3.02	70.00	67.20
사회복지시설	2.81	2.76	2.77	2.75	59.05.00	55.70
초등학교		2.76	2.72	2.74	60.10	54.6
중, 고등학교	2.4	2.73				
대학교	2.31	2.6				
종교기관	2.85	2.69	2.70	2.76	52.10	51.30
시민단체	2.58	2.67	2.54	2.65	57.90	50.90
의료기관	2.4	2.51	2.50	2.62	56.40	52.20
문화예술단체 및 협회	2.34	2.52	2.39	2.49	52.30	45.10
중소기업	2.14	2.18	2.22	2.35		44.80
언론기관	2.48	2.34	2.40	2.47		44.50
사법기관	2.01	2.07	2.21	2.22	46.60	42.00
대기업	1.94	1.99	2.05	2.25		40.80
지방정부	1.99	1.96	2.15	2.23	43.6	42.0
노동조합	2.33	2.26	2.19	2.18		38.20
중앙정부	1.94	1.85	1.96	2.12		38.9
경제단체	2.1	1.85	1.89	1.94		35.00
정당/정치인	1.75	1.57	1.56	1.79		30.1
이익단체	2.04	1.77				
지역사회			2.43			

* 출처 :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자료 정리

* 중복 응답 변수이며, 연도별 기부처 분야가 일치하지 않아 유사한 분야로 묶어 보기에 편리함을 도모하였음.

- 마지막으로 개인 기부자의 정기적 기부율은 20% 이상의 수준 유지로 안정화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고, <표 II-9>의 개인 기부 내·외적 동기 중 ‘개인의 자긍심과 만족감’부분과 ‘기부할 능력’에 대한 동기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

<표 II-8> 개인 기부자의 정기성

(단위:%)

2000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16.3	18.2	24.7	20.4	16.6	24.2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자료 정리

<표 II-9> 개인 기부의 내·외적 동기

(단위:%)

내·외적 동기	2000년 (4점 척도)	2001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동정심	2.99	61.9	84.9	60.20	20.8	72.9
종교적 신념	2.38	26.3	16.5	16.80	10.7	36.8
도덕적 의무와 책임감	2.29	28.0	55.5	40.10	26.8	54.8
사회 환원	2.20	18.4				
기부할 능력	2.15	6.0	10.9		8.9	45.3
사회 개선	2.09	30.4				
조직에서의 공동참여	2.01	10.1	10.7	22.60	17.4	
국가재정능력의 한계	1.91	8.2				
기부 요청	1.74		10.8	39.30	46.0	
세금 및 비용감소 목적	1.32	1.0	0.9	2.30	2.5	13.6
자긍심과 만족감			6.1	36.80	15.9	65.4
가족의 전통과 문화				41.90	24.7	48.5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1년-2010년 자료 정리

* 중복 응답 변수이며, 연도별 내용이 일치하지 않음

제2절 기업의 문화예술 기부 추이

1. 기업의 분야별 기부 참여율

-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 국제기부심포지엄’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 기부의 분야별 참여 추이를 분석해 보면, 문화진흥분야의 취약한 기부 현실을 볼 수 있음.
- 2002년부터 기부에 대한 기업의 지출이 증가하며, 특히 사회복지분야와 교육/장학분야에 대한 지출이 비중 있게 증가함. 반면, 문화진흥분야는 2006년 9.9%에서 2010년 5.3%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 또한 기업의 기부분야 중 사회복지와 교육/장학분야는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에 반해, 문화진흥분야는 평균 5%로 자선적 기부 형태의 1/10 수준임. 여기에 재난구호분야나 지역사회 분야를 사회복지분야로 포함하면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남은 20%를 문화예술을 포함한 사회복지 이외의 분야가 기부 받고 있는 현실임.

<표 II-10> 기업의 분야별 기부 비율추이

(단위:%)

분 야	2002	2004	2006	2008	2010
사회복지	30.84	37.6	39.3	46.5	37.6
교육장학	14.47	18.5	19.5	19.9	17.3
지역사회	6.84		0		15.5
재난구호	10.17	8.2	6.97	3.8	5.7
문화진흥	3.5	7.8	9.09	5.7	5.3
시민단체	6.99	6.4	7.25	5.9	4.1
보건의료	1.11	2	3.03	3.3	2.5
해외원조	0.95				2.5
학술연구	4.93	4	2.31	3.7	2.2
스포츠지원	2.86	4.4	4.17	1.4	2.0
환경보호	3.34	5.1	2.88	3.4	1.8
기타	14	5.8	5.5	6.4	3.4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3-2011

□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4년부터 2010까지의 기부의 분야별 참여 추이를 분석하면, 문화진흥 분야의 열악한 기부 현실을 볼 수 있음.

○ 기업의 분야별 기부 구성 비율 중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대한 기업의 기부 규모는 사회복지, 교육학술연구 분야에 이어 세 번째 순위이기는 하나, 가장 높은 사회복지 분야의 1/4 수준으로, 한국 사회의 경제 환경 급변이 기업의 기부처를 자선적 영역으로 제한하고, 문화예술 영역의 관심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줌.

○ 또한, 기부 증감의 폭이 불안정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2000년 기부율 6.1%에서 2002년 14.5%로 2배 이상 상승되었다가, 2005년은 7.4%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또 2007년 14.9%에서 다음해인 2008년에는 1/3 수준인 4.3%로 축소되는 ‘M’자형의 불규칙한 현상을 보여줌.

<표 II-11> 기업의 분야별 기부 비율추이 (중복응답)

(단위:%)

분야명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회복지	5.3	15.7	41.0	37.2	19.6	29.9	43.2	53.9	38.9
교육, 학교, 학술연구	75.8	40.1	42.6	45.1	34.8	36.4	20.6	25.5	21.3
문화예술 및 체육	6.1	14.5	9.1	7.4	13.8	14.9	4.3	8.7	10.9
의료보건	1.1	0.7	2.2	2.1	12.1	9.1	1.5	5.9	0.4
농촌 지원활동					9.0	0.6	1.7	0.0	1.3
환경보전	0.1	1.0	0.7	1.6	2.7	0.9	0.5	2.5	1.6
응급 및 재난구호	2.2	5.4	1.3	1.5	2.3	1.3	3.2	0.1	0.5
국제구호활동	0.4		0.6	2.3	0.3	0.7	12.7	0.5	8.2
기타	32.4	14.6	2.4	2.8	5.3	6.2		2.9	17.0

* 출처: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3-2010

- 또한 기업의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¹⁾ 추이를 보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는 두 번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를 포함한 자선적 영역의 1/5 수준임.

<표 II-12> 분야별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비율 추이

(단위:%)

분야명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회복지	25.1	20.6	40.3	38.4	35.3	25.3	45.2	46.6	51.1
의료보건	0	0.7	4.2	5.8	0.3	0.3	0.4	0.4	12.3
교육, 학교, 학술연구	26.9	17.2	6.8	7.2	9.9	10.1	10.5	9.4	4.8
문화예술 및 체육	40.9	22.2	11.3	9.8	8.3	9.7	12.8	4.5	13.3
환경보전	1	0.4	5.6	7.9	1.8	3.1	1.2	0.6	1.7
응급 및 재난구호	0.1	0.3	0.8	0.2	0.2	0.3	0.1	1.0	0.9
국제구호활동	1.7	0.1	0.1	0.1	4.4	4.6	5.7	2.6	5.0
농촌지원활동		38.5			3.9	3.0	2.3	3.5	4.5
기타	0.6		31	30.5	35.8	43.6	21.7	31.4	6.4

* 출처: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3-2010

□ 기업재단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기업재단의 분야별 사업비 집행 분야 중 의료보건 분야가 전체의 90%를 차지함. 이는 기업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운영비를 의료보건 항목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나, 문화예술 및 체육분야에 대한 집행 비중인 2.7%와 비교할 때 차이가 큼.

<표 II-13> 부문별 집행액 구성비 추이

(단위:%)

분 야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의료보건	66.3	63.1	71.2	72.9	81.6	88	88.7	90.2	90.0	89.8
문화예술 및 체육	9.3	12.7	15.0	11.8	5.5	4.2	3.8	2.1	2.3	2.7
사회복지	8.2	11.2	6.2	7.1	3.3	3.9	3.7	3.4	3.2	2.7
교육, 학교, 학술연구	12.6	10.0	6.7	7.4	3.5	2.8	3.2	3.4	3.7	4.3
응급 및 재난구호	0.0	0.3	0.1	0	0	0.2	0.1	0	0	0
환경보전	0.3	0.1	0.3	0.2	0.1	0.1	0.1	0.1	0.6	0.3
국제구호 및 교류활동	1.3	1.1	0.2	0.1	0.1	0	0.1	0	0	0.1
기타	2.0	1.4	0.5	0.5	0.2	0.8	0.4	0.8	0.2	0.2

* 출처: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3-2010

1) 직접운영 프로그램 지출총액 중 각 해당항목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 또한 응답 재단들의 분야별 참여율은 교육/학교, 학술연구, 사회복지, 문화예술 및 체육 순이나, 그 규모에 있어서는 교육·학교·학술연구의 1/3 수준임.

<표 II-14> 사업 분야별 참여율 추이

(단위:백만원,%)

구분	참여율	2001 (74개)	2002 (75개)	2003 (74개)	2004 (76개)	2005 (80개)	2006 (61개)	2007 (63개)	2008 (65개)	2009 (64개)	2010 (64개)
사회복지	재단수	20	19	20	24	21	27	29	23	31	32
	%	27.0	25.3	27.0	30.0	27.6	44.3	46.0	35.9	48.4	50.0
의료보건	재단수	5	5	4	7	6	8	8	8	10	9
	%	6.8	6.7	5.4	8.8	7.9	13.1	12.7	12.5	15.6	14.1
교육, 학교, 학술연구	재단수	71	71	69	62	60	48	47	49	50	48
	%	95.9	94.7	93.2	77.5	78.9	78.7	74.6	76.6	78.1	75.0
문화예술 및 체육	재단수	18	18	19	18	16	15	15	15	17	19
	%	24.3	24.0	25.7	22.5	21.1	24.6	23.8	23.4	26.6	29.7
환경보전	재단수	2	2	2	1	1	2	3	2	2	2
	%	2.7	2.7	2.7	1.3	1.3	3.3	4.8	3.1	3.1	3.1
응급구호	재단수	4	7	5	3	2	4	6	3	2	2
	%	5.4	9.3	6.8	3.8	2.6	6.6	9.5	4.7	3.1	3.1
국제구호 및 교류활동	재단수	6	8	7	4	2	7	3	4	4	4
	%	8.1	10.7	9.5	5.0	2.6	11.5	4.8	6.3	6.3	6.3
기타	재단수	21	23	22	17	18	11	21	19	17	14
	%	28.4	30.7	29.7	21.3	23.7	18.0	33.3	29.7	26.6	21.9

* 출처: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3-2010

2. 기부 방식

-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 국제기부심포지엄'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 기부방식의 추이를 보면, 직접 기획의 방식을 많이 선택하고, 공익재단이나 모금조직에의 기부가 다음으로 나타남.

- 즉, 직접기획이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의 직원이 직접적으로 기부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으로 적극적인 기부에 참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기업논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상을 고르고, 직접적 참여로 인한 비영리 조직과 파트너십을 발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양상은 이로 인해 시민사회의 성장 섹터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을 못하게 한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또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기부방식은 2006년 이전과 이후는 전무함을 볼 수 있음. 이러한 기부방식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지원체제의 부재와 열악한 문화예술 관련 환경을 볼 수 있음. 이러한 환경은 모금 기구의 필요성과 사회적 관심을 일으킬 수 있는 여지로 작용될 것임.

<표 II-15> 기업 기부 방식

(단위:%)

기부방식	2004년 (중복응답)	2006년	2008년	2010년
직접기획	68.4	33.75	43.3	49.2
자사의 기업재단	18.4	9.31	11.8	8.8
공익재단/모금조직	47.5	7.46	23.6	30.3
국가지자체	41.8	7.55	11.3	10.3
기타	8.2	6.6	9.9	1.6
모금후원기관	42.4	14.31		
사회복지공동모금	47.5	9.45		
문화예술단체		5.95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3-2011 정리

□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4년부터 2010까지의 기부처별 기부비율 추이 분석에서도 유사한 기부 방식을 볼 수 있음.

○ 기부처별 기부비율을 보면, 자사출연재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주요 모금 단체에의 기부비율’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시민단체 등 타 분야의 기부처는 기부비율의 증감현상이 불규칙함과 달리 주요 모금단체에의 비율은 2002년 이후 일정한 비율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표 II-16> 금액기준 기부처별 기부비율

(단위:%)

기 부 처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자사출연재단	47.7	57.1	57.9	37.6	43.4	28.8	22.0	37.6
주요모금단체	16.7	21.7	20.4	12.7	12.8	9.0	8.5	17.3
국가지방자치단체	15.9	6.2	3.9	5.4	7.2	10.8	5.3	4.7
시민단체등 NGO	3.1	6.4	7.7	12.3	14.2	23.7	28.0	13.8
기 타	16.6	8.6	10.1	31.9	22.3	27.6	36.1	26.5

* 출처: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3-2010

3. 평균 기부액 추이

□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 국제기부심포지엄’ 2003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업 기부의 평균 기부 금액 추이를 보면, 기부액 규모가 사회경제적 상황에 민감하게 영향 받았으며, 이는 특히 다른 분야와 달리 문화예술 분야에 불리하게 작용 됨.

○ 2010도의 기업당 평균 기부금액은 18억 8300만원으로, 2006년의 52억4100만원과 비교할 때 평균34억 원이 감소함. 그러나 규모별 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2010년도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참가율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감소하였으나 기부금액에 있어서는 대기업은 대폭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기업들은 대폭 감소함. 또한 기업의 매출액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2년에 비해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표 II-17> 기업 기부의 평균 기부 금액

(단위:백만원, %)

구 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평균기부액	3,940	3,535	5,241	3,714	1,883
매출액 중 기부금비율	1.94	0.1	0.12	0.11	0.10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3-2011 정리

□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4년부터 2010까지의 기업 기부의 기부 금액 추이 분석에서는, 아름다운 재단의 기빙코리아 기업 기부 금액 추이 분석과 다른 양상으로 보이나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음.

○ 2009년 응답 기업의 총 기부금액은 1조3,310억으로 최고의 기부액을 나타내고,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응답기업 1사당 평균 63억6,8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됨. 이와 함께 2010년 총기부액은 1조 2,515억으로, 응답기업 1사당 평균 66억 9,3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조사됨. 즉, 2002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던 기부금의 비중이 2009년부터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경제위기로 인한 어려워진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선적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이는 기빙코리아의 기업 평균 기부금액 추이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데, 경제위기로 기업의 기부금은 증가했지만 그 영역에 있어서는 자선적 영역에의 집중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기부영역의 선호순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보임.

<표 II-18> 기업 기부의 평균 기부 금액

(단위:백만원, %)

구 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기부 총액	-	858,494	686,379	741,086	1,022,430	1,047,832	938,009	1,331,010	1,251,545
평균 기부액	-	4,250	3,631	3,615	5,112	5,038	4,990	6,368	6,693
매출액 대비 사회공헌비용	0.4	0.2	0.2	0.2	0.3	0.2	0.1	0.2	0.2

* 출처: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3-2010

4. 사회공헌 방식

□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 국제기부심포지엄' 2003년부터 2011년
까지의 사회공헌 방식으로는 현금 기부가 많음.

○ 기업의 현금기부에 대한 사회공헌방식은 해마다 소폭 감소 추이를
볼 수 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19> 기업의 사회공헌 방식 추이

(단위: %, 중복응답)

사회공헌방식	2004	2006	2008	2010
현금	93.9	86.7	90.2	88.7
자원봉사	67.5	64.4	70.6	77.0
현물	67.3	57.2	52.9	64.6
서비스제공	22.1	16.1	17.6	17.6
가격할인	5.5	4.4	1.3	7.9
주식	0.6	2.2	1.3	2.4
재능기부				3.1
기타				1.7

* 출처: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3-2011 정리

□ 전경련의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4년부터 2010까지의 기업 기부의 기부 형태별 금액 추이 분석에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나 유사한 분석 결과를 볼 수 있음.

○ 기업의 기부 형태별 기부 참여율 추이를 살펴보면 순수 기부금에 응답 기업 모두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현물기부 형태는 2000년보다 두 배 이상의 증가된 참여율을 보이고 있고, 시설개방의 형태 역시 2002년 2%에서 2010년 32.1%라는 성장은 기부 형태의 확장된 기부문화를 보여줌. 즉, 기존의 단순히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획일적인 기부가 아닌, 기업의 자산을 함께 공유하고 기업의 문화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의 현물과 시설개방 형태는 현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와 나눔이라는 문화가 추가된 기부형태로 문화예술 분야에 더없이 필요한 부분임.

<표 II-20> 기업의 기부 형태별 기부 참여율 추이

(단위: %, 중복응답)

기부형태	2000년	2002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순수 기부금	94.3	98.5	86.1	95.2	98	93.6	100	98.1	100
현물기부	35.2	33.7	33.2	40.4	59.2	47.3	56.4	63.5	61.4
시설개방	3.1	2.0	3.4	10.1	11.7	21.7	27.7	24.9	32.1
임직원 참가	8.8	10.4	40.9	49	78.1	77.8	86.7	99.4	100

* 출처: 전경련,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2003-2010

제3절 한국메세나협회의 문화예술 지원 추이

□ 한국메세나협회는 설립 취지가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타 기관(아름다운재단, 전경련)보다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 2010년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전경련의 기업 기부와 비교하면, 지원 기업의 수치나 지원금액은 1/10 수준임.

<표 II-21>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규모(*기업 자체지원실적+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실적)

(단위: 개, 백만원, 건)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기업수	297	297	227	298	363	403	469	420	606
지원금액	71,993	151,743	171,022	180,050	184,018	187,630	165,995	157,690	173,501
지원건수	987	4,395	2,711	2,816	3,182	2,402	2,389	2,706	1,940

* 출처: 한국메세나협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한국 메세나협회의 직접조사 기업의 자체 지원 현황 역시 경제상황의 여건에 따른 변화가 작용하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해마다 증가하여 건당 평균 금액이 전년도에 비교하여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음.

<표 II-22> 직접조사 기업의 자체지원 현황(*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부금 제외)

(단위: 개, 건,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원기업수	89	150	70	107	109	100	102	98	104
지원금액	66,819	150,600	168,339	174,971	179,477	182,495	160,024	153,894	166,507
지원건수	736	4,223	2,534	2,554	2,851	2,047	1,963	2,329	1,319
기업당 평균 지원 금액		1,004	2,405	1,635	1,646	1,824	1,569	1,570	1,601
건당 평균 금액		36	66	68.5	62.9	89.1	82.7	66.1	126.2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미술/전시 분야의 지원 금액 규모가 가장 높게 집계되고, 다음으로 인프라와 문화예술교육순으로 나타남. 국악이나 무용, 연극 등은 미술전시의 1/40 수준으로 그 격차가 심함.

<표 II-23>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국악	-	-	-	2,386	1,595	1,872	1,832	921	1,645
서양음악	-	-	-	30,163	29,172	22,512	22,439	18,441	22,022
무용	-	-	-	4,875	2,182	1,568	2,633	4,515	2,524
연극	-	-	-	5,011	5,644	1,671	2,113	2,858	3,669
뮤지컬	-	-	-	-	-	3,962	3,958	3,587	4,611
미술전시	1,900	7,425	96,549	80,269	61,503	11,594	30,499	37,167	40,654
문학	1,602	1,402	2,276	3,116	4,444	9,469	1,360	3,252	3,884
인프라	34,500	54,888	25,181	36,863	45,316	76,609	35,146	32,778	39,895
전통예술	294	1,464	448	2,974	3,728	2,980	1,522	1,135	3,036
영상미디어	1,685	5,545	428	3,730	4,104	4,731	1,113	3,404	3,663
문화예술교육	627	1,084	3,693	5,943	11,633	19,735	37,587	32,654	31,634
기타	13,279	3,221	5,755	4,730	14,697	30,905	25,784	16,979	13,264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유형별 금액 추이를 보면, 기업의 자체 기획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한 예술지원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은 20%부분은 협찬이나 조건부 기부유형으로 나타남. 또한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방식으로는 <표 II-25>와 같이 응답기업의 30.3%가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전과 다른 양상은 기술 지원이나 장소 지원의 방식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음.

<표 II-24> 2010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유형별 금액

(단위: 백만원, %)

지원 유형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체(행사)기획	118,584 (78.1)	140,413 (82.1)	141,854 (78.8)	136,783 (74.3)	134,324 (72.5)	102,618 (75.7)	100,95 (80.6)	122,148 (82.1)
후원 및 협찬, 파트너십	26,350 (17.4)	24,584 (14.4)	29,986 (16.7)	36,098 (19.5)	42,307 (22.9)	24,903 (18.4)	19,531 (15.6)	18,267 (12.3)
조건부기부	4,334 (2.9)	5,279 (3.1)	8,220 (4.5)	11,137 (6.2)	8,516 (4.6)	8,078 (5.9)	4,796 (3.8)	8,328 (5.6)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아래와 같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방식의 다원화는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해 금전적 지원 외에 기업의 다양한 역량을 예술단체와 나누고자 하는 기업의 적극적인 접근에 따른 결과로 해석 됨.

<표 II-25>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방식

(단위: %)

지원 방식	2003년 (지원 기업수)	2004년 (지원 기업수)	2005년 (중복 응답)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자금	292	227	96.6	58.9	72.7	63	59.6	30.3
인력	1	2	10.1	15.1	11.3	14	13.6	22.1
장소		1	6.1	13.9	7.7	11	13.2	20.9
기술		1	9.8	5.1	4.4	7	8.9	16.8
현물	24	21	5.7	7.0	3.9	5	4.7	9.9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또한 기업들이 출연한 문화재단의 2010년 지원액은 601억3천1백만원²⁾으로 총 지원액의 34.7%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삼성문화재단이 삼성미술관 리움, 호암미술관, 삼성어린이박물관의 운영 등으로 1위를 차지함. 또한 문화재단을 제외한 개별 기업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홈플러스가 105개의 문화스쿨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풀뿌리 문화예술 교육에 기여하며 2년째 1위를 유지함. 그러나 홈플러스나 현대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한 유통 업종은 문화센터 운영 등 고객접점에서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여 비중을 늘린 것으로 분석 됨. 또한 CJ문화재단의 ‘아지트’ 사업 운영이나 ‘크리에티브 마인즈’ 사업은 젊은 예술인을 양성하는 자체 개발 사업임.

<표 II-26> 문화예술 지원 상위 5개 재단

순 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삼성문화재단
2	LG연암문화	LG연암문화	LG연암문화	LG연암문화	LG연암문화	LG연암문화	LG연암문화	LG연암문화
3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가천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금호아시아나
4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가천문화재단	CJ문화재단	CJ문화재단	CJ문화재단	CJ문화재단
5	파라다이스	가천문화재단	금호아시아나	대산문화재단	가천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가천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표 II-27> 문화예술 지원 상위 5대 기업

순 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	제일모직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홈플러스	홈플러스
2	SK텔레콤	대한생명보험	포스코	홈플러스	홈플러스	홈플러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3	삼성전자	SK텔레콤	한화	현대자동차그룹	SK텔레콤	포스코	포스코	포스코
4	포스코	포스코	SK텔레콤	SK텔레콤	한화	SK텔레콤	삼성화재해상	한화
5	현대백화점	삼성전자	길의료원	포스코	포스코	한화	SK텔레콤	KT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2)한국메세나협의회 ‘2010년 연차보고서’

- 산업군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재단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그 뒤를 이어 유통, 조선중공업 순으로 문화예술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역시 유통 분야의 지원 금액이 월등히 상승함을 볼 수 있으며, 위에서 분석한대로 홈플러스나 현대백화점 등을 중심으로 한 유통 업종이 고객접점에서 문화예술을 적극 활용하여 비중을 늘린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II-28> 2010년도 산업군별 지원금액의 비율

(단위: %)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재단	64.15	52.63	39.23	38.6	28.3	34.0	34.7
조선중공업	11.9	13.47	11.44	15.8	15.3	17.6	15.6
금융보험	8.66	9.53	9.2	9.9	10.6	13.0	14.4
정보통신	3.89	3.50	6.21	6.3	5.4	6.8	4.7
전기전자	2.24	3.14	1.34	2.7	2.7	2.22	1.0
자동차	0.78	1.66	4.36	2.8	3.3	2.8	2.1
화학제약	2.05	3.21	6.05	1.1	2.8	0.4	0.9
공공	1.91	2.57	2.9	1.4	0.3	1.5	1.3
유통	2.13	2.04	8.06	9.8	16.1	17.5	19.9
식음료	1.19	1.71	2.59	3.1	3.8	0.4	0.4
건설	0.71	1.25	2.01	2.7	1.7	0.7	0.9
미디어	0.26	0.09	1.67	0.0	0.0	0.1	0.0
숙박레저	0.31	1.15	0.82	0.5	8.2	0.5	0.7
운수	0.09	0.45	0.05	0.2	0.1	0.1	0.1
문구가구출판	0.22	0.33	0.05	0.0	0.1	0.0	0.0
생활용품기기	0.14	0.02	0.0	0.1	0.0	0.0	0.7
의류잡화	0.04	0.49	0.33	0.6	0.0	0.9	0.7
제지시멘트	0.01	0.02	0.01	0.0	0.0	0.6	0.0
서비스기타	0.15	5.42	3.68	4.3	1.1	0.9	1.7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으로는 사회공헌전략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전년도에 비해 6.0% 감소했고, 마케팅전략은 5.8% 증가함. 지원 목적이 기존의 사회공헌전략 일변도에서 벗어나 마케팅과 경영전략 전반으로 확대된 것은 기업의 문화예술 활용이 전사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결과로 해석됨. 또한 마케팅전략 차원의 활동 내용으로 예술가/문화 예술 행사 협찬 및 후원이 가장 많음.

<표 II-29>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

(단위: %)

지원 유형	2006	2007	2008	2009	2010
사회공헌전략	59.9	73.0	80.9	62.3	56.3
마케팅전략	38.3	25.0	16.6	33.8	39.6
경영전략	1.8	2.1	2.5	3.9	4.1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마케팅 전략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은 협찬 후원으로 공연 자체에 후원을 하거나, 티켓에 후원하는 '사랑티켓' 등이 있음. 다음 유형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하기 유형이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음. 예로 포스코의 경우 '포스코' = '철'이라는 딱딱하고 차가운 브랜드 이미지를 반대의 온정적이고 신뢰받는 이미지로 구축하기 위해,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지하철역, 공원 등)나, 공익단체에 음악회나 미술 관련 행사를 주최·제공하여, 부드럽고 믿음직한 이미지로 변화하고자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음.

<표 II-30>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목적의 마케팅 전략 세부내용

(단위: %)

지원 유형	2008 (복수응답)	2009	2010
제품디자인에 활용	-	0.5	0.4
기업마케팅에 예술가 직접 참여	-	0.9	0.4
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	73.4	31.8	20.3
예술가, 문화예술 행사에 협찬 후원	87.5	57.5	59.3
고객에게 문화예술 혜택	84.8	2.3	15.4
기타	-	7.0	4.2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문화경영활동이 중요해지는 이유에 대해 '경영 트렌드로서의 문화경영' 및 '문화경영에 대한 고객 관심 증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하고 있고, 한편 '기업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 의지' 및 '문화경영에 대한 종업원의 관심 증대' 등의 내적 요인도 문화경영이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응답함.

<표 II-31>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문화경영활동이 중요해지는 이유(외적요인)

(단위: %)

지원 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경영트렌드로서의 문화경영	14.6	11.9	19.7
문화경영활동에 대한 관심증대	24.4	17.9	19.7
문화경영활동을 통한 경쟁력 제고	19.5	19.4	17.0
높아지는 사회여론과 시민의 기대	18.3	25.4	12.6
경쟁사의 문화경영 활동	-	1.5	2.2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표 II-32> 문화예술을 지원하고 활용하는 문화경영활동이 중요해지는 이유(내적요인)

(단위: %)

지원 유형	2008년	2009년	2010년
기업 최고 경영진의 적극적 의지	14.6	13.4	14.8
문화경영에 대한 종업원 관심증대	-	6.0	6.3
창업자의 기업철학	7.3	3.0	5.4
주주(투자자)의 관심 증대	1.2	1.5	-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동기로는 지역사회 공헌과 기업이미지 제고가 강하게 작용함을 볼 수 있음. 반면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지원 동기는 2005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함.

<표 II-33> 문화예술 지원 동기

(단위: %)

지원 동기	2005년 (중복응답)	2006년	2007년	2008년
지역사회 공헌	36.5	25.4	32.6	36
기업이미지 제고	24.7	34.9	24.7	35
문화예술계 발전	31.8	20.7	29.2	17
기업 문화 고양	7.1	8.7	3.4	6
타기업 대비 차별성/우위확보	0	2.3	1.1	5
실질적 마케팅/홍보 효과	7.1	7.0	6.7	1
직원 창의력/만족도 제고		0.5		
문화예술관련 활동의 사업화도모	2.4	0.5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협력 채널로는 문화예술단체가 1/3을 차지하고 있고, 계열사나 출연 재단의 순으로 나타남. 전문기획사를 협력 채널로 이용하는 비중은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협력 채널이 없는 기업은 감소 추이에 있음.

<표 II-34>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협력 채널

(단위: %)

협력 채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문화예술단체	33.8	28.6	28.4	32
없다	31.2	20.9	23.9	22
계열사 및 출연재단	16.9	26.4	17.0	20
전문기획사	-	6.5	8.0	10
전문기관	-	11.0	13.6	7
기타	-	5.5	8.0	7
정부기관	3.8	1.1	1.1	2
비영리 공익법인	14.3	-	-	-

* 출처: 한국메세나협의회, '연차보고서', 2002-2010

III. 문화예술분야 주요조직

사업내용 및 자원실태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제2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3절 예술경영지원센터

Ⅲ. 문화예술분야 주요조직 사업내용 및 재원실태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1. 역할

-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의 창달, 전통 문화의 보존·전승·발전과 문화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체육진흥을 통하여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관련 정책과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업무를 담당함.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단체

☐ 국립문화예술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소속하의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속 기관장이 소관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
- 국립국악원, 국립국어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해외문화홍보원등의 기관을 두고 있음.

□ 특수법인 형식의 문화예술기관

-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기관을 운영하는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조직임.
- 개별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 언론중재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의 전당,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의 기관을 두고 있음.

□ 민법상 법인형식의 정부 재정지원 문화예술기관

- 정부재정지원 하에 운영되는 민법상 법인 형식의 문화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에 따라 설치됨.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의거함.
-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예술자료원, 국제방송교류재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명동·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소마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한국공연예술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등의 기관을 두고 있음.

3. 2012년 재정

□ 편성총액 : 3조 7,194억원 ('11년 예산 대비 2,637억원 증, +7.6%)

○ 예산 2조 933억원 : '11년 대비 1,329억원 증 (+6.8%)

○ 기금 1조 6,261억원 : '11년 대비 1,307억원 증 (+8.7%)

□ 부문별 편성 규모

○ 문화예술부문 : ('11) 14,552억원 → 16,225억원 (1,673억원 증)

○ 관광부문 : ('11) 9,257억원 → 9,829억원 (572억원 증)

○ 체육부문 : ('11) 8,403억원 → 8,634억원 (231억원 증)

○ 문화관광 일반부문 : ('11) 2,345억원 → 2,506억원 (161억원 증)

□ 2012년도 예산운용계획 세부내역

<표Ⅲ-1> 2012 예산운용계획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분 야	부 문	프 로 그 램	회 계	단 위 사 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문화및관광 분야(총지출)						1,960,364	2,093,313	132,949	6.8
					일반회계	1,262,192	1,391,389	129,197	10.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626,296	602,876	△23,420	△3.7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76	99,048	27,172	37.8
문화예술 부문(총지출)						1,230,629	1,377,068	146,439	11.9
					일반회계	1,000,114	1,130,576	130,462	13.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58,639	147,444	△11,195	△7.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76	99,048	27,172	37.8
<중무실>						22,597	52,359	29,762	131.7
					일반회계	22,597	52,359	29,762	131.7
종교문화지원						22,597	52,359	29,762	131.7
					일반회계	22,597	52,359	29,762	131.7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10,055	11,567	1,512	15.0
					종교화합과 교류지원	1,450	5,450	500	-
					종교문화활동지원	8,605	6,117	△2,488	△28.9
					종교문화기반구축	12,542	40,792	28,250	225.2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0,442	23,042	12,600	120.7
					종교문화시설건립	2,100	17,750	15,650	745.2
<콘텐츠정책관>						211,906	239,736	27,830	13.1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일반회계	194,821	233,755	38,934	20.0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085	5,981	△11,104	△65.0
					콘텐츠산업 육성	211,906	239,736	27,830	13.1
					일반회계	194,821	233,755	38,934	20.0
					문화콘텐츠진흥	75,200	103,206	28,006	37.2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1,441	1,158	△283	△19.7
					한류진흥	1,758	7,061	5,303	301.6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19,001	29,369	10,368	54.6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5,000	4,500	△500	△10.0
					CT대학원설치 지원	2,400	3,120	720	30.0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9,500	7,500	△2,000	△21.1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5,650	500	△5,150	△91.2
					3D콘텐츠 산업육성	16,000	12,500	△3,500	△21.9
					콘텐츠창의인재동반사업	-	4,500	4,500	순증
					스마트콘텐츠산업육성	-	11,000	11,000	순증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1,750	7,549	5,799	331.4
					디지털 콘텐츠 산업육성(정보화)	12,700	14,450	1,750	13.8
					영상산업진흥	850	849	△1	△0.1
					영상산업 육성	850	849	△1	△0.1
					게임산업육성	16,802	21,752	4,950	29.5
					게임산업육성	16,802	21,752	4,950	29.5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53,480	65,031	11,551	21.6
					CT기반조성(R&D)	3,000	4,261	1,261	42.0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4,480	4,770	290	6.5
					첨단 융복합 콘텐츠 기술개발(R&D)	46,000	56,000	10,000	21.7
					문화콘텐츠 산업 인프라 지원	20,400	9,259	△11,141	△54.6
					부산영상센터 건립	15,400	-	△15,400	△100.0
					e스포츠 complex 구축	5,000	6,000	1,000	20.0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건립	-	3,259	3,259	순증
					문화산업기관지원	28,089	33,658	5,569	19.8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12,398	17,590	5,192	41.9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7,482	7,082	△400	△5.3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3,298	3,606	308	9.3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4,911	5,380	469	9.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085	5,981	△11,104	△65.0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6,785	5,681	△11,104	△66.2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6,785	5,681	△11,104	△66.2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300	300	-	-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제주)	300	300	-	-
					<저작권정책관>	37,253	40,101	2,848	7.6
					일반회계	37,253	40,101	2,848	7.6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	37,253	40,101	2,848	7.6
					일반회계	37,253	40,101	2,848	7.6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13,518	13,475	△43	△0.3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8,124	8,900	776	9.6
					저작권 교육 및 홍보	5,299	4,485	△814	△15.4
					문화분야 통상협상 역량 강화	95	90	△5	△5.7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9,652	11,870	2,218	23.0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	9,252	11,470	2,218	24.0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WIPO신탁기금 지원(ODA)	400	400	-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8,433	7,586	△ 847	△ 10.0
					저작권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2,103	1,999	△ 104	△ 4.9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 자원화	2,930	2,605	△ 325	△ 11.1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정보화)	2,045	1,564	△ 481	△ 23.5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1,355	1,418	63	4.6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5,650	7,170	1,520	26.9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2,650	2,170	△ 480	△ 18.1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3,000	5,000	2,000	66.7
					<미디어정책국>	113,635	118,882	5,247	4.6
					일반회계	113,635	118,882	5,247	4.6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113,635	118,882	5,247	4.6
					일반회계	113,635	118,882	5,247	4.6
					미디어산업육성	34,901	37,746	2,845	8.2
					잡지산업 기반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452	937	485	107.3
					국가기간통신사 지원	33,884	35,409	1,525	4.5
					미디어시장 조사	565	400	△ 165	△ 29.2
					국가기간통신사 미디어융합 인프라구축지원	-	1,000	1,000	순증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57,510	60,700	3,190	5.5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6,120	5,449	△ 671	△ 11.0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4,733	4,849	116	2.5
					국제방송문화교류지원	900	449	△ 451	△ 50.1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1,425	1,100	△ 325	△ 22.8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	800	800	-	-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2,000	1,500	△ 500	△ 25.0
					디지털방송 콘텐츠 지원센터 건립	38,892	41,163	2,271	5.8
					HD 드라마 타운 조성	1,000	3,900	2,900	290.0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	-	150	150	순증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1,640	1,340	△ 300	△ 18.3
					출판산업육성	21,224	20,436	△ 788	△ 3.7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11,819	11,113	△ 706	△ 6.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3,959	4,001	42	1.1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5,246	5,322	76	1.4
					전자출판용 한글공용서체 개발지원	200	-	△ 200	△ 100.0
					<문화정책관>	241,449	265,558	24,109	10.0
					일반회계	99,895	124,095	24,200	24.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1,554	141,463	△ 91	△ 0.1
					창의적문화정책구현	241,449	265,558	24,109	10.0
					일반회계	99,895	124,095	24,200	24.2
					문화정책지원	18,655	21,081	2,426	13.0
					박물관 진흥지원	1,520	2,392	872	57.4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2,535	13,319	784	6.3
					함께누리 지원	3,500	4,000	500	14.3
					문화정책개발	1,100	1,370	270	24.5
					국어문화진흥	10,863	15,432	4,569	42.1
					한글의 가치 확산	4,275	5,434	1,159	27.1
					한글박물관 건립	5,000	9,100	4,100	82.0
					국어진흥기반 조성	1,465	784	△ 681	△ 46.5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123	114	△9	△7.0
				지역·민족문화진흥		15,811	17,955	2,144	13.6
					지역문화 진흥	2,240	2,607	367	16.4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3,610	1,772	△1,838	△50.9
					민족문화 계승기반 구축	2,320	1,894	△426	△18.4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1,530	3,476	1,946	127.2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426	1,340	△86	△6.0
					전통문화자원 발굴 활용	2,200	3,414	1,214	55.2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2,485	3,453	968	39.0
				문화예술교육지원		54,566	69,627	15,061	27.6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2,446	3,957	1,511	61.8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2,120	1,970	△150	△7.1
					토요문화체육학교 운영	-	7,000	7,000	순증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50,000	56,700	6,700	13.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41,554	141,463	△91	△0.1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39,795	138,165	△1,630	△1.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39,795	138,165	△1,630	△1.2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405	405	-	-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405	405	-	-
					문화시설확충및운영(제주)	1,329	2,869	1,540	115.9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제주)	1,329	2,869	1,540	115.9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25	24	△1	△4.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25	24	△1	△4.0
				<예술정책관>		105,067	111,763	6,696	6.4
				일반회계		105,067	111,763	6,696	6.4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105,067	111,763	6,696	6.4
				일반회계		105,067	111,763	6,696	6.4
					문화예술단체지원	58,221	51,536	△6,685	△11.5
					예술의전당 지원	5,444	5,172	△272	△5.0
					국립오페라단 운영	7,890	6,919	△971	△12.3
					국립발레단 운영	7,286	6,922	△364	△5.0
					국립합창단 운영	3,265	3,102	△163	△5.0
					서울예술단 운영	3,019	3,019	-	-
					공예디자인진흥원 지원	1,489	2,415	926	62.2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	2,273	2,159	△114	△5.0
					명동·정동극장 지원	7,078	7,074	△4	△0.1
					한국공연예술센터 운영	4,303	4,303	-	-
					국립현대무용단 운영	2,358	2,376	18	0.8
					예술의전당 복구	5,000	-	△5,000	△100.0
					국립극단운영	5,232	5,232	-	-
					국립예술자료원 운영	2,240	2,128	△112	△5.0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관리	1,344	715	△629	△46.8
				공연예술활성화		12,688	16,205	3,517	27.7
					공연예술 활성화(보조)	5,145	5,280	135	2.6
					공연예술산업 육성	1,200	2,122	922	76.8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400	200	△200	△50.0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3,375	3,035	△340	△10.1
					창작뮤지컬 육성지원	-	3,000	3,000	순증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2,568	2,568	-	-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기초예술역량강화	3,157	4,541	1,384	43.8
					예술창작활동 지원	2,590	2,331	△259	△10.0
					2012년 제78회 서울세계펜대회 지원	-	700	700	순증
					예술인창작안전망구축	-	1,000	1,000	순증
					미술관 운영지원	567	510	△57	△10.1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8,562	12,157	3,595	42.0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1,720	1,397	△323	△18.8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1,913	2,390	477	24.9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4,929	5,370	441	8.9
					안성 세계민속축전 지원	-	3,000	3,000	순증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	17,439	16,312	△1,127	△6.5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1,249	649	△600	△48.1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450	-	△450	△100.0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5,500	2,400	△3,100	△56.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300	250	△50	△16.7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7,540	1,064	△6,476	△85.9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	-	2,500	2,500	순증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2,400	9,449	7,049	293.7
					문화예술공간조성	5,000	11,012	6,012	120.2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1,000	6,212	5,212	521.2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4,000	4,800	800	20.0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29,574	21,771	△7,803	△26.4
					일반회계	29,574	21,771	△7,803	△2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29,574	21,771	△7,803	△26.4
					일반회계	29,574	21,771	△7,803	△2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29,574	21,771	△7,803	△26.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25,600	10,100	△15,500	△60.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3,974	1,318	△2,656	△66.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및자료수집	(2,554)	5,638	5,638	순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시설관리유지 및 보강	-	1,215	1,215	순증
					근현대사연구활성화	-	2,500	2,500	순증
					대한민국역사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정보화)	-	1,000	1,000	순증
					<국가브랜드위원회>	8,762	6,749	△2,013	△23.0
					일반회계	8,762	6,749	△2,013	△23.0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762	6,749	△2,013	△23.0
					일반회계	8,762	6,749	△2,013	△23.0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8,762	6,749	△2,013	△23.0
					국가브랜드위원회 운영	5,712	5,269	△443	△7.8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3,050	1,480	△1,570	△51.5
					<홍보지원국>	17,443	17,290	△153	△0.9
					일반회계	17,443	17,290	△153	△0.9
					국정홍보기획	17,443	17,290	△153	△0.9
					일반회계	17,443	17,290	△153	△0.9
					정책홍보지원	2,430	2,255	△175	△7.2
					홍보기획 지원	865	695	△170	△19.7
					취재보도활동 지원	830	825	△5	△0.6
					홍보협력 및 분석 지원	735	735	-	-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13,000	13,329	329	2.5
					뉴미디어 홍보	1,546	1,553	7	0.5
					국가주요정책 홍보	10,603	10,608	5	0.0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851	848	△3	△0.4
					디지털 콘텐츠 활용 홍보	-	320	320	순증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2,013	1,706	△307	△15.3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정보화)	2,013	1,706	△307	△15.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71,876	99,048	27,172	3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76	99,048	27,172	3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1,876	99,048	27,172	37.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71,876	99,048	27,172	37.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40,000	67,600	27,600	69.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40,000	67,600	27,600	69.0
					문화중심도시조성	25,072	26,262	1,190	4.7
					문화중심도시조성	5,080	11,305	6,225	122.5
					문화중심도시조성(지자체)	13,212	7,812	△5,400	△40.9
					전당콘텐츠 및 프로그램개발	6,780	7,045	265	3.9
					아시아문화포털 구축(정보화)	-	100	100	순증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2,604	2,186	△418	△16.1
					문화중심도시추진단 및 조성위원회 운영	2,604	2,186	△418	△16.1
					문화산업활성화	4,200	3,000	△1,200	△28.6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 출자	1,000	3,000	2,000	200.0
					광주 첨단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200	-	△200	△100.0
					CGI 제작환경 구축	3,000	-	△3,000	△100.0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11,608	13,958	2,350	20.2
					일반회계	11,608	13,958	2,350	20.2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11,608	13,958	2,350	20.2
					일반회계	11,608	13,958	2,350	20.2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10,658	12,962	2,304	21.6
					도서관정책 개발	1,132	1,090	△42	△3.7
					선진도서관 및 미래지향 서비스 환경개선	7,229	7,493	264	3.6
					해외작은도서관 조성(ODA)	500	861	361	72.2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	1,797	2,297	500	27.8
					병영 독서활성화 지원	-	1,221	1,221	순증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950	996	46	4.8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R&D)	950	996	46	4.8
					<예술원사무국>	2,199	2,648	449	20.4
					일반회계	2,199	2,648	449	20.4
					예술원지원	2,199	2,648	449	20.4
					일반회계	2,199	2,648	449	20.4
					예술원운영	2,199	2,648	449	20.4
					예술원운영	2,199	2,648	449	20.4
					<한국예술종합학교>	19,614	22,910	3,296	16.8
					일반회계	19,614	22,910	3,296	16.8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19,614	22,910	3,296	16.8
					일반회계	19,614	22,910	3,296	16.8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운영	16,136	19,324	3,188	19.8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교육기자재구입 및 관리	2,814	2,673	△141	△5.0
					교육환경개선	2,476	2,476	-	-
					학습장시설 유지관리	4,635	3,830	△805	△17.4
					교육지원 및 운영	5,195	9,149	3,954	76.1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357	537	180	50.4
					예술학교수입대체경비	659	659	-	-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561	597	36	6.4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561	597	36	6.4
					국제예술교류 및 특화사업 운영	2,917	2,989	72	2.5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522	516	△6	△1.2
					예술영재교육	1,709	1,787	78	4.5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686	686	-	-
					<국립중앙박물관>	59,658	60,640	982	1.6
					일반회계	59,658	60,640	982	1.6
					국립박물관운영	59,658	60,640	982	1.6
					일반회계	59,658	60,640	982	1.6
					국립박물관운영	36,539	38,668	2,129	5.8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0,535	21,795	1,260	6.1
					국립경주박물관 운영	1,953	1,953	-	-
					국립광주박물관 운영	1,561	1,761	200	12.8
					국립전주박물관 운영	1,387	1,387	-	-
					국립부여박물관 운영	1,693	1,908	215	12.7
					국립대구박물관 운영	1,500	1,500	△0	△0.0
					국립청주박물관 운영	1,269	1,269	-	-
					국립김해박물관 운영	1,274	1,574	300	23.5
					국립제주박물관 운영	1,422	1,422	-	-
					국립춘천박물관 운영	1,433	1,433	-	-
					국립진주박물관 운영	1,236	1,236	-	-
					국립공주박물관 운영	1,276	1,430	154	12.1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030	2,330	300	14.8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030	2,330	300	14.8
					국립박물관 시설건립 및 보강	20,774	19,083	△1,691	△8.1
					국립나주박물관건립	8,000	10,800	2,800	35.0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4,581	-	△4,581	△100.0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	8,193	8,283	90	1.1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315	559	244	77.5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315	559	244	77.5
					<국립국어원>	10,018	10,628	610	6.1
					일반회계	10,018	10,628	610	6.1
					국립국어원운영	10,018	10,628	610	6.1
					일반회계	10,018	10,628	610	6.1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	9,338	9,996	658	7.1
					국어진흥 연구 및 개발	793	1,493	700	88.3
					국어교육진흥 및 여건조성	1,616	1,517	△99	△6.1
					국어원 시설개선 및 관리	965	1,014	49	5.1
					한국어 교원양성 및 교육자료 개발	1,393	1,422	29	2.1
					국어문화유산 자료구축	571	751	180	31.5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	4,000	3,800	△200	△5.0
					국립국어원 정보화	680	632	△48	△7.1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언어정보자원 통합관리(정보화)	680	632	△48	△7.1
					<국립중앙도서관>	35,290	35,484	194	0.6
					일반회계	35,290	35,484	194	0.6
					국립중앙도서관운영	35,290	35,484	194	0.6
					일반회계	35,290	35,484	194	0.6
					도서관 자료확충 및 관리	11,010	11,264	254	2.3
					도서관 자료확충	5,415	5,706	291	5.4
					도서관 자료관리	2,433	2,397	△36	△1.5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3,162	3,162	△0	△0.0
					도서관운영 활성화	10,045	10,635	590	5.9
					도서관 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1,950	1,962	12	0.6
					도서관 정책지원	1,327	1,387	60	4.5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3,820	4,120	300	7.9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2,776	2,876	100	3.6
					도서관수입대체경비	172	290	118	68.6
					도서관정보화	14,235	13,585	△650	△4.6
					도서관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6,049	6,497	448	7.4
					디지털정보자원 확충(정보화)	6,600	6,088	△512	△7.8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정보화)	1,586	1,000	△586	△36.9
					<해외문화홍보원>	41,593	52,262	10,669	25.7
					일반회계	41,593	52,262	10,669	25.7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41,593	52,262	10,669	25.7
					일반회계	41,593	52,262	10,669	25.7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39,739	50,524	10,785	27.1
					국가이미지 홍보	5,421	5,027	△394	△7.3
					해외홍보콘텐츠제작	2,997	5,288	2,291	76.5
					미디어홍보	4,812	5,400	588	12.2
					해외문화원 운영	23,209	27,829	4,620	19.9
					계기별수교기념행사	1,800	5,980	4,180	232.2
					유네스코 협력(ODA)	500	-	△500	△100.0
					문화동반자사업(ODA)	1,000	1,000	-	-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정보화)	1,854	1,738	△116	△6.3
					Korea.net 운영(정보화)	1,854	1,738	△116	△6.3
					<국립중앙극장>	22,830	20,545	△2,285	△10.0
					일반회계	22,830	20,545	△2,285	△10.0
					국립중앙극장운영	22,830	20,545	△2,285	△10.0
					일반회계	22,830	20,545	△2,285	△10.0
					공연활동활성화	15,004	15,519	515	3.4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8,962	9,329	367	4.1
					공연활동 지원	4,810	4,881	71	1.5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767	765	△2	△0.3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376	450	74	19.7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89	94	5	5.6
					공연환경개선	7,826	5,026	△2,800	△35.8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3,424	3,477	53	1.5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641	699	58	9.0
					국립극장 시설 현대화	3,387	-	△3,387	△100.0
					국립극장 무대시설 디지털 전환	-	500	500	순증
					국립극장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74	350	△24	△6.4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국립현대미술관>	87,213	96,728	9,515	10.9
					일반회계	87,213	96,728	9,515	10.9
					국립현대미술관운영	87,213	96,728	9,515	10.9
					일반회계	87,213	96,728	9,515	10.9
					미술관운영활성화	16,137	17,065	928	5.8
					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3,267	3,148	△119	△3.6
					미술창작지원	1,340	1,258	△82	△6.2
					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1,555	1,555	-	-
					미술은행 운영	1,919	2,719	800	41.7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3,886	3,886	-	-
					덕수궁미술관 운영	1,519	1,518	△1	△0.1
					미술관 진흥 및 교류	300	632	332	110.6
					미술관 시설개선 및 관리	2,054	2,054	-	-
					미술관수입대체경비	297	297	-	-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	276	209	△67	△24.3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정보화)	276	209	△67	△24.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70,800	77,154	6,354	9.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70,000	75,084	5,084	7.3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프로그래밍	800	2,070	1,270	158.8
					미술품수장보존센터건립	-	2,300	2,300	순증
					미술품수장보존센터건립	-	2,300	2,300	순증
					<국립국악원>	42,883	47,850	4,967	11.6
					일반회계	42,883	47,850	4,967	11.6
					국립국악원운영	42,883	47,850	4,967	11.6
					일반회계	42,883	47,850	4,967	11.6
					국립국악원운영활성화	15,377	16,010	633	4.1
					국악원전속단체운영	10,420	11,274	854	8.2
					국악원 공연활동	2,165	2,083	△82	△3.8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	813	787	△26	△3.2
					국악진흥	1,733	1,620	△113	△6.5
					국악원수입대체경비	246	246	-	-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구축	1,237	761	△476	△38.5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정보화)	878	437	△441	△50.2
					e-국악아카데미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정보화)	359	324	△35	△9.7
					지방국악원 운영	10,293	10,290	△3	△0.0
					민속국악원 운영	4,088	4,286	198	4.9
					남도국악원 운영	2,783	2,483	△300	△10.8
					부산국악원 운영	3,422	3,521	99	2.9
					국악원시설 개보수	15,976	20,789	4,813	30.1
					국악원 시설관리 및 보강	6,407	5,971	△436	△6.8
					민속국악원 시설관리	1,421	1,447	26	1.8
					남도국악원 시설관리	2,587	3,078	491	19.0
					부산국악원 시설관리	2,215	2,215	-	-
					연희전용극장 건립	3,346	8,078	4,732	141.4
					<국립민속박물관>	14,762	15,500	738	5.0
					일반회계	14,762	15,500	738	5.0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4,762	15,500	738	5.0
					일반회계	14,762	15,500	738	5.0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14,762	15,500	738	5.0
					한국민속문화전시 및 운영	1,820	2,139	319	17.5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511	594	83	16.3
					민속박물관 사회문화교육활성화	963	1,103	140	14.5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 기반구축	664	664	-	-
					민속유물구입 및 관리	3,685	3,749	64	1.7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1,231	1,230	△1	△0.1
					어린이박물관 운영	1,584	1,583	△1	△0.1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2,618	2,929	311	11.9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관리방지시스템 개발운영	1,245	1,000	△245	△19.7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정보화)	441	509	68	15.4
					<한국정책방송원>	17,980	18,809	829	4.6
					일반회계	17,980	18,809	829	4.6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7,980	18,809	829	4.6
					일반회계	17,980	18,809	829	4.6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7,980	18,809	829	4.6
					KTV방송 운영	12,500	13,296	796	6.4
					KTV방송장비 관리	5,300	5,335	35	0.7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0	178	△2	△1.1
					국립국악중고운영	1,876	2,305	429	22.9
					일반회계	1,876	2,305	429	22.9
					국악교육지원	1,876	2,305	429	22.9
					국악교육지원	1,876	2,305	429	22.9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3,543	3,542	△1	△0.0
					일반회계	3,543	3,542	△1	△0.0
					전통예술중고 지원	3,543	3,542	△1	△0.0
					전통예술중고 운영	3,543	3,542	△1	△0.0
					관광 부문(총지출)	383,835	374,080	△9,755	△2.5
					일반회계	11,831	6,849	△4,982	△42.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72,004	367,231	△4,773	△1.3
					<관광산업국(관광레저기획관 포함)>	379,802	370,165	△9,637	△2.5
					일반회계	7,798	2,934	△4,864	△62.4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72,004	367,231	△4,773	△1.3
					관광진흥기반확충	372,879	368,052	△4,827	△1.3
					일반회계	875	821	△54	△6.2
					관광정책개발지원	875	821	△54	△6.2
					관광자원 개발지원 및 평가	875	821	△54	△6.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372,004	367,231	△4,773	△1.3
					관광자원개발	255,633	222,544	△33,089	△12.9
					관광자원개발	255,633	222,544	△33,089	△12.9
					관광기반구축	64,400	92,700	28,300	43.9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3,000	-	△3,000	△100.0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60,000	91,700	31,700	52.8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1,400	1,000	△400	△28.6
					광역관광자원개발	46,171	46,287	116	0.3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11,150	8,170	△2,980	△26.7
					지리산권 관광개발	9,293	9,642	349	3.8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17,480	19,800	2,320	13.3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	8,248	8,675	427	5.2
					기초 관광자원개발(제주)	5,800	5,700	△100	△1.7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5,800	5,700	△100	△1.7
					외래관광객유치	1,753	1,613	△140	△8.0
					일반회계	1,753	1,613	△140	△8.0
					국제관광교류	1,753	1,613	△140	△8.0
					관광외교역량강화	799	664	△135	△16.9
					국제관광협력	252	247	△5	△2.0
					개도국관광발전 지원(ODA)	702	702	-	-
					관광레저도시육성	5,170	500	△4,670	△90.3
					일반회계	5,170	500	△4,670	△90.3
					관광레저도시개발 지원	5,170	500	△4,670	△90.3
					관광레저도시지정 및 개발조사·분석	398	300	△98	△24.6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222	200	△22	△9.9
					관광레저 기반 구축	4,550	-	△4,550	△10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033	3,915	△118	△2.9
					일반회계	4,033	3,915	△118	△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4,033	3,915	△118	△2.9
					일반회계	4,033	3,915	△118	△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4,033	3,915	△118	△2.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4,033	3,915	△118	△2.9
					체육 부문(총지출)	155,646	151,400	△4,246	△2.7
					일반회계	59,993	63,199	3,206	5.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5,653	88,201	△7,452	△7.8
					<체육국>	155,646	151,400	△4,246	△2.7
					일반회계	59,993	63,199	3,206	5.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5,653	88,201	△7,452	△7.8
					생활체육육성	96,547	89,248	△7,299	△7.6
					일반회계	894	1,047	153	17.1
					생활체육활성화	894	1,047	153	17.1
					생활체육활성화	894	1,047	153	17.1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95,653	88,201	△7,452	△7.8
					체육진흥시설지원	94,353	87,561	△6,792	△7.2
					체육진흥시설지원	94,353	87,561	△6,792	△7.2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1,300	640	△660	△50.8
					체육진흥시설지원(제주)	1,300	640	△660	△50.8
					전문체육육성	43,128	40,845	△2,283	△5.3
					일반회계	43,128	40,845	△2,283	△5.3
					국가대표선수지원	43,128	40,845	△2,283	△5.3
					국가대표선수양성	29,360	33,360	4,000	13.6
					선수촌시설보강	1,725	1,585	△140	△8.1
					전국체전시설 건립	12,043	5,900	△6,143	△51.0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10,570	13,560	2,990	28.3
					일반회계	10,570	13,560	2,990	28.3
					스포츠산업육성	3,444	3,759	315	9.1
					스포츠산업 육성	3,444	3,759	315	9.1
					국제체육 역량 강화	7,126	9,802	2,676	37.6
					국제체육 교류협력	2,304	3,655	1,351	58.6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국제대회 참가	4,240	5,416	1,176	27.7
					스포츠반도핑 선진화	582	731	149	25.6
					장애인체육육성	5,401	7,747	2,346	43.4
					일반회계	5,401	7,747	2,346	43.4
					장애인체육 진흥	5,401	7,747	2,346	43.4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지원	1,000	1,100	100	10.0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4,401	6,647	2,246	51.0
					문화및관광일반 부문(총지출)	190,254	190,765	510	0.3
					일반회계	190,254	190,765	510	0.3
					문화·관광행정지원	190,254	190,765	510	0.3
					일반회계	190,254	190,765	510	0.3
					본부인건비	50,609	50,607	△3	△0.0
					본부인건비	50,609	50,607	△3	△0.0
					소속기관인건비	97,046	94,121	△2,925	△3.0
					예술원사무국 인건비	843	694	△149	△17.6
					한국예술종합학교 인건비	14,298	13,112	△1,186	△8.3
					국립박물관 인건비	27,286	26,811	△475	△1.7
					국립국어원 인건비	2,493	2,437	△57	△2.3
					국립중앙도서관 인건비	14,137	14,067	△70	△0.5
					해외문화홍보원 인건비	3,593	3,589	△5	△0.1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5,115	4,816	△299	△5.8
					국립현대미술관 인건비	4,911	4,899	△12	△0.3
					국립국악원 인건비	6,888	7,180	293	4.2
					국립민속박물관 인건비	4,490	4,384	△106	△2.4
					한국정책방송원 인건비	6,244	5,920	△324	△5.2
					국립국악중고 인건비	4,149	3,780	△369	△8.9
					전통예술중고 인건비	2,599	2,432	△167	△6.4
					총액인건비대상 본부기본경비	3,302	3,427	125	3.8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대상)	2,669	2,793	124	4.6
					종무실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8	28	-	-
					콘텐츠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	65	△6	△8.2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58	56	△2	△2.8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2	32	-	-
					문화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4	60	17	38.5
					예술정책관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2	67	△6	△7.9
					홍보지원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18	108	△10	△8.5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운영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40	45	4	10.9
					관광산업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9	39	△1	△1.5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59	66	6	10.8
					체육국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72	69	△3	△3.9
					본부기본경비	4,311	4,718	406	9.4
					기관운영 기본경비	2,288	2,736	448	19.6
					종무실 기본경비	124	124	△1	△0.5
					콘텐츠정책관 기본경비	294	284	△10	△3.3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저작권정책관 기본경비	102	99	△3	△2.7
					미디어정책국 기본경비	300	292	△8	△2.8
					문화정책관 기본경비	116	125	9	7.6
					예술정책관 기본경비	198	203	5	2.5
					홍보지원국 기본경비	286	265	△21	△7.4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기본경비	75	83	9	11.9
					관광산업국 기본경비	220	216	△3	△1.4
					관광레저기획관 기본경비	161	146	△15	△9.5
					체육국 기본경비	148	144	△3	△2.3
					총액인건비대상 소속기관기본경비	6,193	6,397	204	3.3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0	41	1	3.0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313	316	3	1.1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75	806	31	4.0
					국립국어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144	145	1	0.4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420	458	38	8.9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984	1,004	19	2.0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1,184	1,216	32	2.7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78	842	64	8.2
					국립국악원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210	210	△0	△0.1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189	218	29	15.4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794	780	△15	△1.8
					국악중고 기본경비(총액인건비 대상)	361	361	0	0.1
					소속기관기본경비	17,736	17,309	△427	△2.4
					예술원사무국 기본경비	85	94	8	9.8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본경비	2,613	2,609	△3	△0.1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3,958	3,957	△0	△0.0
					국립국어원 기본경비	260	226	△34	△13.0
					국립중앙도서관 기본경비	4,889	4,764	△124	△2.5
					해외문화홍보원 기본경비	1,898	1,894	△5	△0.2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211	211	-	-
					국립현대미술관 기본경비	1,409	1,320	△89	△6.3
					국립국악원 기본경비	912	737	△175	△19.2
					국립민속박물관 기본경비	451	473	22	4.8
					한국정책방송원 기본경비	317	291	△26	△8.2
					국악중고 기본경비	732	733	0	0.1
					청사관리	2,430	2,226	△204	△8.4
					청사유지관리	2,430	2,226	△204	△8.4
					종합정책연구	1,176	2,223	1,047	89.0
					정책기획 및 성과관리	876	873	△3	△0.3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300	350	50	16.7
					정책기반 통계 생산 및 관리	(556)	1,000	1,000	순증
					문화정보화체계구축	7,451	9,738	2,287	30.7

(단위 : 백만원)

분야	부분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	세부사업	'11예산 (A)	'12예산 (B)	증감 (B-A)	%
					문화정보센터 운영(정보화)	3,617	3,256	△361	△10.0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정보화)	1,459	3,008	1,549	106.2
					문화정보자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정보화)	2,375	3,474	1,099	46.3
내부거래						97,906	150,546	52,640	53.8
					일반회계	97,906	150,546	52,640	53.8
					회계간거래(전출금)	47,287	99,048	51,761	109.5
					일반회계	47,287	99,048	51,761	109.5
					회계간전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47,287	99,048	51,761	109.5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전출금	47,287	99,048	51,761	109.5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49,000	50,000	1,000	2.0
					일반회계	49,000	50,000	1,000	2.0
					일반회계 전출(지역신문발전기금)	4,000	-	△4,000	△100.0
					지역신문발전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기금)	4,000	-	△4,000	△100.0
					일반회계 전출(언론진흥기금)	5,000	10,000	5,000	100.0
					언론진흥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기금)	5,000	10,000	5,000	100.0
					일반회계 전출(영화발전기금)	40,000	40,000	-	-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영화기금)	40,000	40,000	-	-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619	1,498	△121	△7.5
					일반회계	1,619	1,498	△121	△7.5
					공무원연금부담금(일반회계)	1,619	1,498	△121	△7.5
					국악원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일반회계에서 기금)	1,619	1,498	△121	△7.5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제2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설립목적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2. 조직현황

☐ 시설현황

- 본관(구로) : 3,418.77m²(건평 1,290.33m²/지상 3층)
- 대학로 예술가의집(구 본관) : 1,634.71m²(건평 620.50m²/지상 3층)
- 미술관(대학로) : 2,969.58m²(건평 754.38m²/지하 1층, 지상 3층)
- 예술인력개발원(고양시) : 4,876.43m²(창조관, 실험무대, 지상 4층)
- 뉴서울골프장(경기도 광주시) : 2,775,380m²(36홀)

☐ 조직도 및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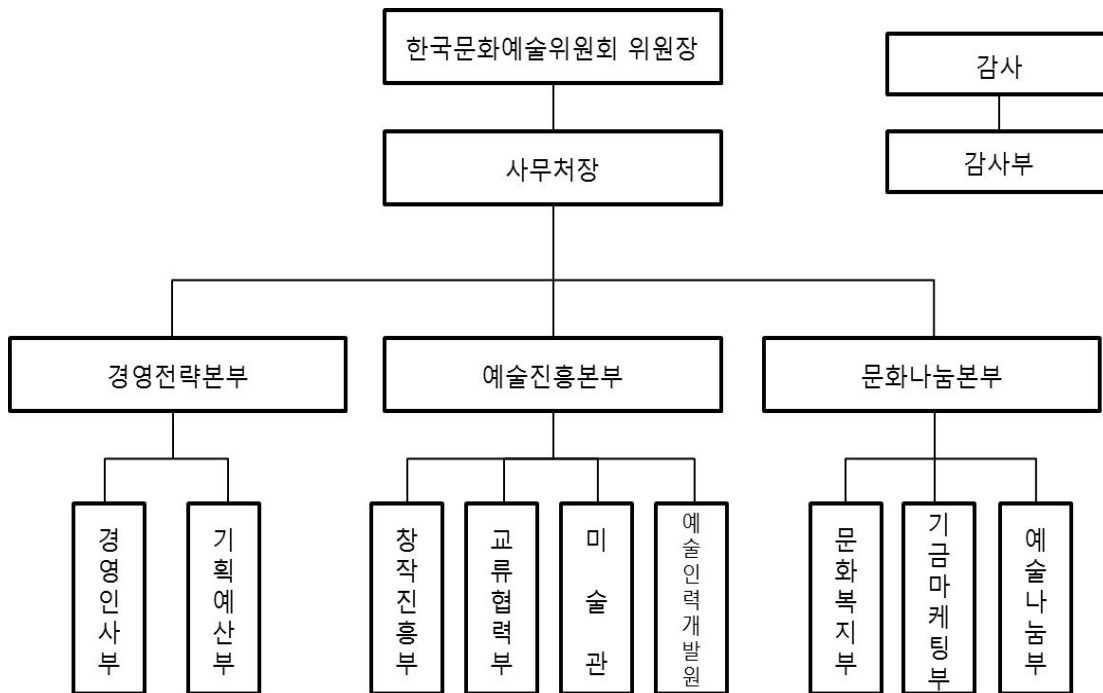
<표Ⅲ-2>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원

(단위: 명)

구 분	임 원	사무처장	일반직	계
정원(T/O)	2	1	88	91
현원(P/O)	2	1	87	90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2011)

[그림Ⅲ-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감사등의 임원을 두고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무처장과 사무처 3본부 10부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1명으로 이루어져있음.
- 위원회는 최고의결기구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어있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중 위원회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
- 감사는 위원회의 회계와 재산상황, 운영과 업무들에 대한 직무를 수행 함.
- 사무처는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경영전략본부, 예술진흥본부, 문화나눔본부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부서별 업무

○ 경영전략본부 : 경영인사부와 기획예산부를 두고 있음.

- 경영인사부

· 임원.위원 위촉 및 선임 관리,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직원 인사.복무 관리, 임.직원 보수 및 후생복지 관리, 직원 교육훈련 및 연수계획 수립.시행, 노무관리 및 노동조합 관련 업무, 위원회 지방이전 관련 업무 추진, 공공기관 선진화 및 경영효율화 관련 업무 총괄, 경영실적평가 지표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획예산부

· 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총괄 및 지원, 비상임이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관련 업무,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기본사업계획과 예산 운영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및 기관 재무 예산전략 수립, 문예진흥기금운용계획 편성 및 집행의 통제등의 업무를 수행함.

○ 예술진흥본부 : 창작진흥부, 교류협력부, 미술관, 예술인력개발원을 두고있음.

- 창작진흥부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문화일반의 창작, 연구, 보급 활동지원과 책임심의.평가 및 컨설팅 업무 추진, 문화예술국제교류, 남북 및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 활동 지원관련 심의 및 컨설팅 업무등을 수행함.

- 교류협력부

- 국제 문화예술 기관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업무, 국제 문화예술 교류 활동 정보 수집 및 컨설팅, 네트워크 제공, 문화예술국제교류, 남북 및 재외동포 문화예술교류 활동 지원(심의업무 관리 포함) 및 평가, 컨설팅 업무,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창작, 연구, 보급 활동 지원, 심의, 평가 및 컨설팅 업무등을 수행함.

- 미술관

- 미술관 및 미술공간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미술관 및 부대시설의 대여 및 관리 운영, 미술관 기획전시 및 자체 기획사업 운영소장 미술품 관리, 전시장,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 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함.

- 예술인력개발원

- 예술인력개발원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예술인력개발원 시설 및 기자재의 대여, 관리 및 운영, 예술가의 집 운영 및 관리 총괄등의 업무를 수행함.

○ 문화나눔본부

- 문화복지부

- 복권기금사업의 중장기전략계획 수립 및 추진 관리, 복권기금사업 추진 총괄, 복권기금사업의 집행 및 평가 관리, 청소년관련 사업 관리 총괄, 예술인 복지 사업 개발 및 추진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금마케팅부

- 기금(적립금)운용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적립금 관리, 자금 조달 및 운용, 기금운용평가 업무, 한국문화진흥(주)관리 운영, 문화예술 브랜드 관리 및 문화예술 이미지 제고 사업 추, 예술지원정책,

주요사업 홍보 및 CI 종합 관리, 문화예술 출판사업(웹진 포함) 총괄, 고객만족경영 및 윤리경영, 경영공시 업무 총괄등의 업무를 수행함.

- 예술나눔부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함.

- 문화예술 재원 개발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개발 운영, 각종 기부금 유치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부금 사업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조직의 사업

□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내용

- 문화예술의 창작, 매개, 향수와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연수 사업이나 활동
-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법 제4조에 의한 지방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재단법인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한 사항
-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의 교류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인의 창작환경개선 및 후생복지증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
- 문화예술 재원의 확충 및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이나 활동
-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 및 시설의 설치·운영

□ 5대 주요사업

○ 예술가 창조 역량 강화

- 예술창작활동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구축 및 기초예술의 창작 표현활동에 대한 예술가와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창작표현 활동 지원, 신진예술가의 육성과 새로운 예술의 발굴, 예술 국제 교류 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등의 사업을 추진함.

○ 문화예술공간 운영강화

- 기초예술의 창작과 발표에 필요하 거점공간 확보 및 체계적인 운영지원을 통한 예술현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
- 미술관운영과 예술인력개발원을 운영함.

○ 생활 속 예술 활성화

- 사회 취약계층의 예술 향유기회확대를 통한 문화 양극화 해소 및 문화충돌해소를 위한 사업.
- 저소득층 가구와 청소년의 공연·전시관람등의 지원확대를 하기 위한 문화바우처, 소외계층문화순회등의 공연나눔,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전시 프로그램지원, 장애인의 창작활동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사업등을 추진함.

○ 지역 문화예술 진흥

- 지역 문화예술활동화와 각종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중앙과 지방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지자체 공연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함.

○ 예술의 사회적 가치 제고

- 민간 예술기부 확대와 공공미술사업 운영등 예술의 사회적인식제고 및 예술지원 정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 문화예술사회공헌지원을 위해 기부금 사업 및 기업과 예술과의 만남사업확대, 예술나눔기부활성화, 문화예술 홍보 및 간행물발간등의 사업과 공공미술사업 운영을 추진함.

4. 조직의 예산운영

□ 조직의 수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표Ⅲ-3>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계 획 (A)	2012계 획(안) (B)	증 감 (B-A) %	
수 입	○ 자체수입	47,617	80,243	32,626	68.5
	- 이자수입	9,907	9,960	53	0.5
	- 부담금	30	25	△5	△16.7
	- 민간출연금	5,701	6,701	1,000	17.5
	- 경륜·경정수익금	24,264	26,150	1,886	7.8
	- 건물매각대	-	30,800	30,800	순증
	- 용자원금회수	-	-	-	-
	- 기타자체수입	7,715	6,607	△1,108	△14.4
	○ 정부내부수입	54,050	58,758	4,708	8.7
	- 복권기금전입금	48,000	57,200	9,200	19.2
	- 공자금기금예탁이자수입	6,050	1,558	△4,492	△74.2
	○ 여유자금회수	157,838	127,690	△30,148	△19.1
운 용 규 모		259,505	266,691	7,186	2.8
지 출	○ 사업비	100,520	109,669	9,149	9.1
	- 경상사업비	100,520	109,669	9,149	9.1
	○ 기금운영비	11,178	25,587	14,409	128.9
	- 인건비	6,543	6,843	300	4.6
	- 기타운영비	4,635	18,744	14,109	304.4
	○ 정부내부지출	20,117	-	△20,117	순감
	- 복권기금반환금	117	-	△117	순감
	-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20,000	-	△20,000	순감
	○ 여유자금운용	127,690	131,435	3,745	2.9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2011)

□ 2012년도 지출계획

<표Ⅲ-4>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출계획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계 획 (A)	2012계 획(안) (B)	증감	
			(B-A)	%
총 계	259,505	266,691	7,186	2.8
경상사업비 소계	100,520	109,669	9,149	9.1
○ 예술가창조역량강화	21,649	19,995	△1,654	△7.6
- 예술창작및발표공간지원	15,030	14,050	△980	△6.5
-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1,080	972	△108	△10.0
- 국제예술교류지원	5,539	4,973	△566	△10.2
○ 문화예술공간운영	2,365	1,822	△543	△23.0
- 미술관운영	1,284	849	△435	△33.9
- 예술인력개발원운영	1,081	973	△108	△10.0
○ 생활속예술활성화	48,000	57,200	9,200	19.2
- 소외계층문화역량강화	48,000	57,200	9,200	19.2
○ 지역문화예술진흥	20,250	20,250	0	0.0
- 지역문화예술지원	20,250	20,250	0	0.0
○ 예술사회적가치제고	8,256	10,402	2,146	26.0
- 문화예술이미지제고	8,256	9,402	1,146	13.9
- 공공미술사업운영	-	1,000	1,000	순증
기금운영비 소계	11,178	25,587	14,409	128.9
○ 인건비	6,543	6,843	300	4.6
○ 기타운영비	4,635	18,744	14,109	304.4
기금간거래 소계	20,117	-	△20,117	순감
○ 복권기금반환금	117	-	△117	순감
○ 공공자금관리에탁	20,000	-	△20,000	순감
여유자금운용 소계	127,690	131,435	3,745	2.9
○ 통화금융기관예치금	127,690	131,435	3,745	2.9

*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2011)

제3절 예술경영지원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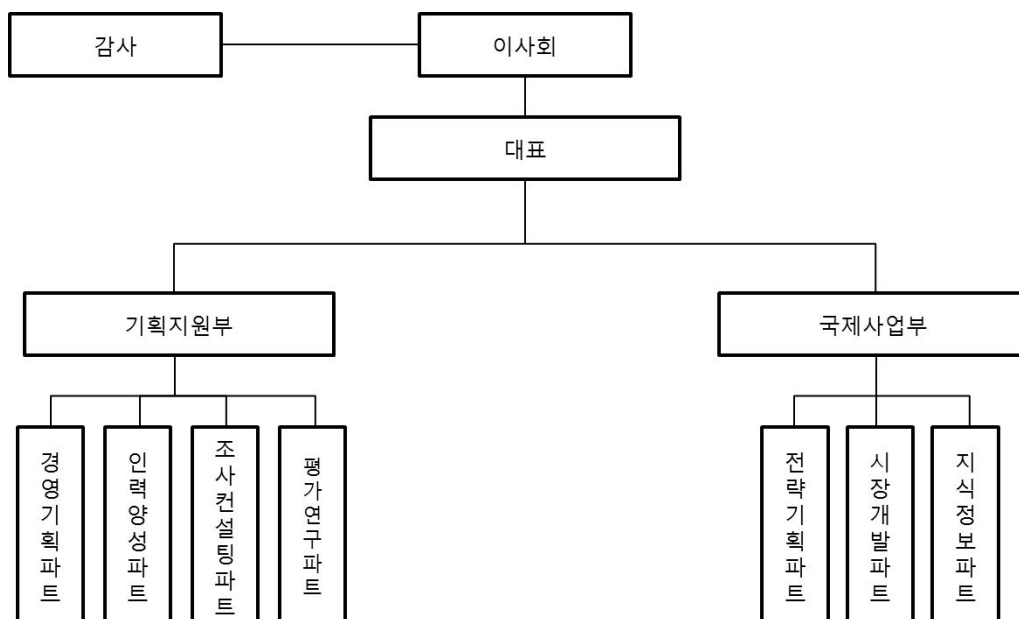
1. 설립목적

- 200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유통의 활성화와 예술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예술현장의 자생력 제고에 기여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2. 조직현황

□ 조직도

[그림Ⅲ-2]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 기구 및 정원

- 센터에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 각1인을 포함한 이사 15명 이내와 감사2명 이내를 두도록 규정되어있으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부서 7파트를 두고 있음.

- 이사장, 대표,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함,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대표는 센터를 대표하여 센터의 업무를 총괄함.
- 감사는 센터의 업무와 재정상황 및 결산에 대한 감사등의 업무를 수행함.

□ 부서별 업무

○ 기획지원부

- 경영기획파트

- 전략기획, 기획조정, 이사회운영, 직원채용·교육·복리등 인사관리, 예산관리 및 재무회계와 계약, 총무 및 센터 업무 지원, 대외협력 업무.

- 인력양성파트

- 문화예술기획· 경영 전문인력 양성, 예술경영 아카데미,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평가 및 교육지원

- 조사·컨설팅파트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 운영, 예술경영 컨설팅 운영,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지원, 공연예술분야 통계조사, 미술시장 실태조사

- 평가·연구파트

- 공연·전통예술사업 평가, 시각예술분야사업 평가, 정부시상지원 공연 예술경연대회 평가, 예술경연대회 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

○ 국제사업부

- 전략기획파트

- 서울아트마켓 기획·운영, 주요공연예술 마켓 참가지원, 공연예술 글로벌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 시장개발파트

- 공연예술작품 전략적 해외진출지원, 전통예술 해외아트마켓 및 해외 진출지원

- 지식·정보파트 업무소개

- 웹진 weekly@예술경영, 더아프로 기획·운영,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기획·운영, 국영문 뉴스레터 기획·발송, 문화예술기관·단체 데이터베이스 기획·운영, 공공기관 웹접근성, 표준화 관련업무, 예술경영 지식정보 교류전략 수립

3. 조직의 사업

□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내용

- 예술 유통구조의 체계화 및 활성화 지원
- 예술기관 운영 및 경영 관련 컨설팅
- 예술기관 경영인력 양성 및 지원
- 예술분야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예술시장정보의 구축관리 활용
- 기타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조직의 예산운영

□ 수입

<표Ⅲ-5> 예술경영지원센터 수입내역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정부출연금	0	0	0	0	0	0
정부출자금	0	0	0	0	0	0
정부보조금	1,837	3,568	4,495	5,184	7,010	5,648
부담금 및 이전수입	0	0	0	0	0	0
위탁 및 독점수입	0	0	0	0	0	0
순수자체수입	135	94	158	238	314	586
차입금	0	0	0	0	0	0
전기이월	0	686	880	431	1,020	1,588
배당	0	0	0	0	0	0
기타	1	1	1	1	72	0
수입합계	1,973	4,349	5,534	5,854	8,416	7,822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지출

<표Ⅲ-6>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비	300	332	220	240	370	333
인건비	38	442	674	721	658	679
경상운영비	163	85	172	248	226	221
차기이월	686	880	431	1,020	1,588	0
차입상황금	0	0	0	0	0	0
배당	0	0	0	0	0	0
기타	10	50	20	0	0	0
지출합계	1,973	4,349	5,534	5,854	8,416	7,822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주요사업별 지출내역

<표Ⅲ-7> 예술경영지원센터 주요사업별 지출내역

(단위: 백만원)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문예술법인 단체운영지원	300	332	220	240	370	33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지원	1,414	1,781	2,246	2,868	4,111	3,346
조사연구사업	20	386	262	419	300	290
평가사업	43	119	285	281	655	659
인력양성사업	110	972	1,483	1,500	1,600	900
위탁용역사업	85	73	158	114	254	554
문화바우처 평가 및 교육	-	-	-	-	35	150

* 출처: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IV. 외국의 문화예술 분야 지원정책 구조

제1절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구조

제2절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구조

제3절 외국 사례연구의 시사점

제1절 미국의 문화예술 지원구조

1. 미국의 문화예술기금 조직구성과 지원체계

□ 연방문화예술재원기구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 NEA는 비록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부처에 속하지는 않으며, 의회로부터 직접 예산을 배정받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등 미연방의 문화예술정책을 대표하는 독립기관으로서 미국 정부 예술지원의 중심축임.
- 문화전반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지원보다는 좁은 의미의 예술 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에 주로 초점을 둠.
- 현재는 연방정부에 40여 개에 달하는 문화예술관련 소규모 독립기관들이 있고 주요행정부처에 각종 문화예술관련 부서에서 200여 개가 넘는 예술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음.
 - 사실상 세금면제와 같은 정부의 간접적 지원 외에 예술단체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NEA가 1965년 설립되기 전까지는 없었음.
- NEA는 각 지역의 예술지원기관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을 수행 함.
 - 미국의 각 주와 준주 그리고 연방구에 별도의 예술지원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예술위원회로 불리는 이들 지역 예술지원기관에 전체 40%에 달하는 NEA의 예산이 인구 및 예술산업 규모 등에 따라 배분되고 있음.
 - 2007년을 기준으로 NEA는 \$124,561,844(약 1,400억원), 주예술위원회들은 모두 합쳐 약 \$363,000,000(약 4,000억원), 그리고 이하 지역 예술지원기관들은 \$817,000,000(약 9,000억 원)을 미국 내 크고 작은 문화예술활동에 지원했음.

- 예술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의 규모는 주 및 이하 지역정부의 지원 규모가 연방정부의 보다 훨씬 많음.
- NEA 예산의 삭감 및 증액은 여타 주 및 지역 예술진흥기관의 예산책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년 의회로부터 승인으로 진행
 - 창설 이후 NEA의 예산은 1980년대 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1992년에는 \$175,954,680(약 1950억원)를 승인 받아 그 정점에 이르나 1989년 NEA가 지원한 메이플소프(Robert Mapplethorpe)와 시라노(Andres Serrano)의 사진전이 외설과 종교모독 시비에 휘말리게 되면서 과연 국가가 예술을 지원하고 이에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시민사회와 정치계에서 전개되었음.
- 각 주마다 주정부 예술지원기구를 설립·운영하고 있음.
 - 조직의 성격은 위원회, 재단, 혹은 지방정부의 문화국 모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됨.
 - 가장 많은 형태는 독립적인 기구(Independent agency)인 위원회나 재단으로 전체 주정부예술기구 중 50%가 이 모델을 따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주정부 산하의 문화국 형태로 약 19%가 이를 채택함.
 - NEA의 지원을 받고,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지역 담당 예술기관은 56개의 주정부(State and U.S. jurisdictions)소속의 주정부 예술기구(State ArtsAgency, SAA)와, 비영리기관 형태의 6개의 지역예술재단(Regional arts organization, RAO)으로 구분됨.
 - NEA는 파트너십 동의계약(Partnership Agreements)을 통해서 주 예술국과 지역예술기관에 법에 의해서 기금의 40%를 직접 지원함.

- NEA와 SAA와 RAOs는 아래와 같은 동일한 목표를 설정하고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역할을 분담.
 - 예술적 우수성을 지원(Access to Artistic Excellence)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하며, 모든 이에게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함.
 - 예술 교육(Learning in the Arts)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예술 교육을 개발하고 지원함.
 - 모든 미국인에게 예술을 제공하고, 예술교육에서의 리더십, 그리고 예술적 우수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유지함.

□ 주 정부 예술기구 (STATE ARTS AGENCY)

- 미국의 50개 주와 6개의 U.S. 관할지역 (American Samoa, District of Columbia, Guam, Northern Marianas, Puerto Rico, and the U.S. Virgin Islands)은 모두 주 단위 예술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 유타와 뉴욕주 예술위원회 등의 몇 개의 주 예술국들은 초기에 설립되었고, 대부분의 주 예술기관들은 1965년 NEA의 출범 이후 설립됨.
- 주정부의 예술기구들도 원칙적으로는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
 - 예술담당조직이 주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전체 주정부 예술기구(SAA)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정부 소속기관으로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술전담 부서로서가 아니라 경제개발부서나 교육부서 등과 같이 다른 명칭의 부서 안에 업무가 묶여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함.
 - SAA의 약 75%가 독립적인 권한 아래 운영되지만, 버몬트주 예술위원회 (Vermont Arts Council)처럼 민간 비영리기관으로서 공공예술기금에 관한 주정부 지정 금융기관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³⁾

3) 홍기원 (2006) <문화정책의 유형화를 통한 비교연구>, P150

- 연방예술기구인 NEA는 법에 의해서 기금의 40%를 주와 지역(State and Regions)에 할당하도록 되어있으며, 주 예술기구들은 이 기금을 매칭 펀드로 차입·조성함.
- 이는 지역의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하고, 전국가적으로 연방정부의 예술기금의 공급과 영향력을 팽창시키는데 사용하며, 주 예술기구의 예산은 주 의회로 부터 1년 또는 2년 예산액에서 충당됨.
- 또한 이 외에도 NEA 지원 및 정부 지원을 받으며 몇몇 주의 예술국들은 보조금, 기부금, 수익 사업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성하기도 함.
- 각 주의 예술기구들은 주지사나 주 의회에 의해서 임명된 시민 대표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되고, 주예술국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관장하며, 사업 계획, 기금 심사 등에 광범위하게 참여함.

<표 IV-1> 미국의 주정부 예술기구(SAA)의 법적 유형

담당기구	비율	기관수
독립기관(비영리조직)	50.0	28
문화부서	19.0	11
경제개발부서	10.7	6
주정부 소속기관 (Department of State)	7.1	4
교육부서	5.3	3
주지사 직속기관 (Governor's office)	3.6	2
기타	3.6	2
합계	100.0	56

출처: Mulcahy(2002), "The state arts agency;an overview of cultural federalism in the U.S"

□ NASAA(The National Assembly of State Arts Agencies)

○ 주 정부 예술지원기구의 연합체인 NASAA는 국가의 주 단위와 관할 단위의 예술지원 기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써 이들은 연합·대표로 활동 함.

-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7년 발족한 <지역문화지원협의체>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 지역 예술재단 (Regional arts foundation)

○ NEA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예술재단(Regional arts foundation)은 비영리기관(non-profit arts organization)으로써 6개의 지역예술재단이 있음.

- 대서양 중부 지역(Mid-Atlantic)
- 남동지역(Southeast)
- 북동지역(Northeast)
- 중부지역(Mid-America)
- 중서부 지역(Midwest)
- 서부지역(West)

○ 지역예술재단은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예술의 재정적, 기관적, 정책적 구축 확보를 위해 담당 지역의 주(state) 예술국들과 협력하여 활동함.

□ 지역예술조직 (RAOs : The US Regional Arts Organizations)

www.usregionalarts.org

- The US Regional Arts Organizations(RAOs)는 앞서 열거한 여섯 개의 지역 예술 재단들이 지역의 예술발전을 고무하고, 예술프로그램을 지원함.
- RAOs는 지역예술재단들과 주 예술국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지역 예술가와 예술기관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며,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예술 활동들을 개발하고 운영 함.

<표 IV-2> 미국의 지역 문화예술 지원조직

주 예술기구 (State Arts Agency) 및 지역예술재단 (Regional arts foundation)			
지역예술재단 Regional arts foundation	주 예술기구 (State Arts Agency)		
	지역	주 예술기구	웹사이트
The Mid Atlantic Arts Foundation www.midatlanticarts.org	델라웨어	델라웨어 예술부 (Delaware Division of the Arts)	www.artsdel.org
	컬럼비아 특별지구 (DC)	컬럼비아 특별지구 인문예술위원회 (DC Commiss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www.dcartarts.dc.gov
	메릴랜드	메릴랜드 예술위원회 (Maryland State Arts Council)	www.msac.org
	뉴저지	뉴저지 예술위원회 New Jersey State Council on the Arts	www.njartscouncil.org
	뉴욕	뉴욕 예술위원회 New York State Council on the Arts	www.nysca.org
	펜실베이니아	펜실베이니아 예술위원회 Pennsylvania Council on the Arts	www.pacouncilonthearts.org
	버진 아일랜드	버진아일랜드 예술위원회 Virgin Islands Council on the Arts	www.vicouncilonarts.org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문화 역사부 West Virginia Division of Culture and History	www.wvculture.org
The South Arts Federation www.southarts.org	알라바마	알라바마 예술위원회 Alabama State Council on the Arts	www.arts.state.al.us
	플로리다	플로리다 문화부 Florida Division of Cultural Affairs	www.florida-arts.org
	조지아	켄터키조지아 예술위원회 (Georgia Council for the Arts)	www.gaarts.org
	켄터키	켄터키 예술위원회 (Kentucky Arts Council)	www.artscouncil.ky.gov
	루이지애나	루이지애나 예술부 (Louisiana Division of the Arts)	www.crt.state.la.us/arts

	미시시피	미시시피 예술위원회 (Mississippi Arts Commission)	www.arts.state.ms.us
	노스 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예술위원회 (North Carolina Arts Council)	www.ncarts.org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예술위원회 South Carolina Art Commission	www.southcarolinaarts.com
	테네시	테네시 예술위원회 (Tennessee Arts Commission)	www.arts.state.tn.us
New England Foundation for the Arts (www.nefa. org)	코네티컷	코네티컷 문화관광위원회 (Connecticut Commission on Culture and Tourism)	www.cultureandtourism.org
	메인	메인 예술위원회 Maine Arts Commission	www.mainearts.com
	매사추세츠	매사추세츠 문화위원회 Massachusetts Cultural Council	www.massculturalcouncil.
	뉴햄프셔	뉴햄프셔 예술위원회 New Hampshire State Council on the Arts	www.state.nh.us/nharts
	로드 아일랜드	로드아일랜드 예술위원회 Rhode Island State Council on the Arts	www.arts.ri.gov
	버몬트	버몬트 예술위원회 Vermont Arts Council	www.vermontartscouncil.org
Mid- America Arts Alliance	아칸소	아칸소 예술위원회 Arkansas Arts Council	www.arkansasarts.com
	캔자스	캔자스 예술위원회 Kansas Arts Commission	www.arts.state.ks.us
	네브래스카	네브래스카 예술위원회 Nebraska Arts Council	www.nebraskaartscouncil. org
	오클라호마	오클라호마 예술위원회 Oklahoma Arts Council	www.arts.ok.gov
	미주리	미주리 예술위원회 Missouri Arts Council	www.missouriartscouncil. org
	텍사스	텍사스 예술위원회 Texas Commission on the Arts	www.arts.state.tx.us
Arts Midwest (www.arts mid west.org)	일리노이	일리노이 예술위원회 Illinois Arts Council	www.state.il.us/a
	인디애나	인디애나 예술위원회 Indiana Arts Commission	www.in.gov/arts
	아이오와	아이오와 예술위원회 Iowa Arts Council	www.iowaartscouncil.org
	미시건	미시건 예술문화위원회 Michigan Council for Arts and Cultural Affairs	www.michigan.gov/arts
	미네소타	미네소타 예술위원회 Minnesota State Arts Board	www.arts.state.mn.us
	노스 다코타	노스다코타 예술위원회 North Dakota Council on the Arts	www.nd.gov/arts

The Western States Arts Federation www.westa f.org	오하이오	오하이오 예술위원회 Ohio Arts Council	www.oac.state.oh.us
	사우스 다코트	사우스 다코타 예술위원회 South Dakota Arts Council	www.arts council.sd.gov
	위스콘신	위스콘신 예술위원회 Wisconsin Arts Board	www.artsboard.wisconsin. gov
	알래스카	알래스카 예술위원회 Alaska State Council on the Arts	www.eed.state.ak.us/aksca
	애리조나	애리조나 예술위원회 Arizona Commission on the Arts	www.arizonaarts.org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예술위원회 California Arts Council	www.cac.ca.gov
	콜로라도	콜로라도 예술위원회 Colorado Council on the Arts	www.coloarts.state.co.us
	하와이	하와이 문화예술재단 Hawaii State Foundation on Culture and the Arts	www.state.hi.us/sfca
	아이다호	아이다호 예술위원회 Idaho Commission on the Arts	www.arts.idaho.gov
	몬태나	몬태나 예술위원회 Montana Arts Council	www.art.state.mt.us
	네바다	네바다 예술위원회 Nevada Arts Council	www.nevaorg/nac
	뉴멕시코	뉴멕시코 예술국 New Mexico Arts Division	www.nmarts.org
	오리건	오리건 예술위원회 Oregon Arts Commission	www.oregonartscommissi on.org
	유타	유타 예술위원회 Utah Arts Council	www.arts.utah.gov
	워싱턴	워싱턴 예술위원회 Washington State Arts Commission	www.arts.wa.gov
	와이오밍	와이오밍 예술위원회 Wyoming Arts Council	www.wyoarts.state.wy.us

U.S. Jurisdictions Arts Agency(미국 관할 지역 예술국)

지역	예술국 명칭	웹사이트
아메리칸 사모아	American Samoa Council on Arts, Culture & Humanities (아메리칸 사모아 예술, 문화, 인문 위원회)	www.americansamoa.gov
북마리아나 제도	Commonwealth Council for Arts & Culture, Northern Mariana Islands 북마리아나제도 문화예술위원회	
괌	Guam Council on the Arts & Humanities (괌 예술인문위원회)	www.guamcaha.org
푸에토리코	Instituto de Cultura Puertorriqueña (푸에토리코 문화국)	www.icp.gobierno.pr

2. 미국 문화예술재원 환경

□ 연방예술기금(NEA)과 국민의 주립 입법정부의 지출금, 지방자치제의 정부에 의한 직접적 지출은 미국의 주요 정부인가 예술지원기금임.

□ 2011년까지 시기별 문화예술재원의 변화

○ <그림 IV-1>에서 나타난 그래프 선에서 보이 듯, 1992년에서 2011년 사이 연방, 주 및 지방 정부의 누계 세출은 13 % 증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반적인 성장 패턴 내에서,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각각의 자금 흐름은 독특한 경향 라인으로 나타남.

- 예술을 위한 지방정부의 자금은 1992년과 2002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33% 성장하고 2008 년에 8억5800만 달러에 도달하였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감소하여 2008년과 2011년 사이에는 1억 6950만 달러로 20 %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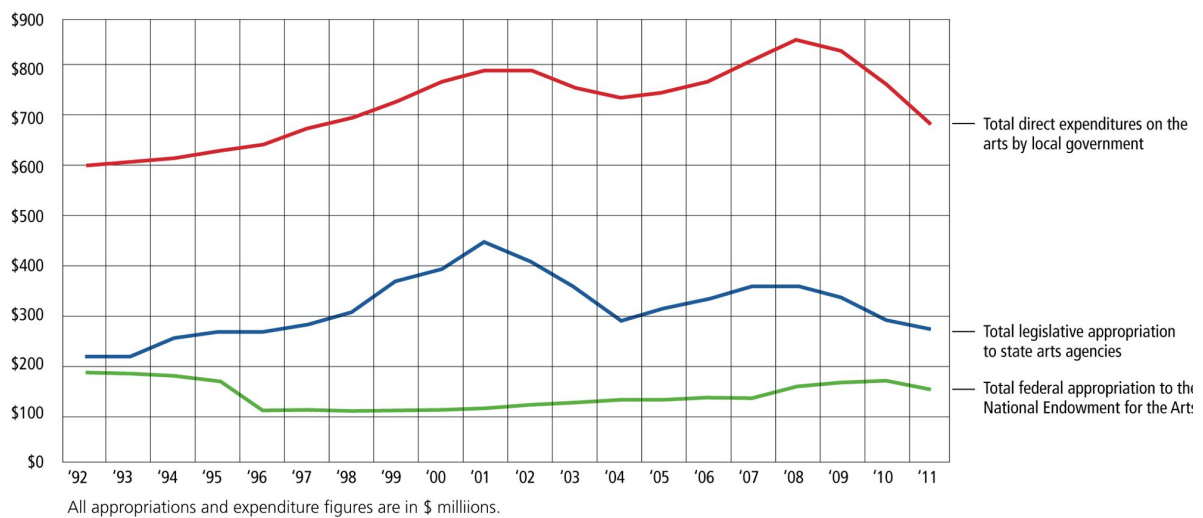
- 입법예술기관에 대한 세출은 1992년부터 2001년까지 110%성장하여 4억5060만달러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나, 2001년에서 2011년 사이, 주 예술기관들은 입법자금 1억7450만 달러를 축소하여 39 % 손실.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분적으로 공공 자금이 혼용되었으며, 정부로부터 연방인가 1억7500만달러를 받은 1992년이 NEA의 최고 자금유치였음.

○ 연방예술지원기금은 최소화 되었으나 안정적인.

- 1996년 1억달러의 감축 이후, NEA 자금은 꾸준히 2010년까지 성장해 현재 NEA의 기금은 1992년 기금 수준 12 % 이하로 남아 있음.

[그림 IV-1] 문화예술 관련분야 기금배분, 2009



○ 2011년 문화예술재원은 국민 일인당 투자 \$3.58로 연방 정부, 주, 지방 모두 합계 총 11억2천만 달러가 문화예술분야에 지원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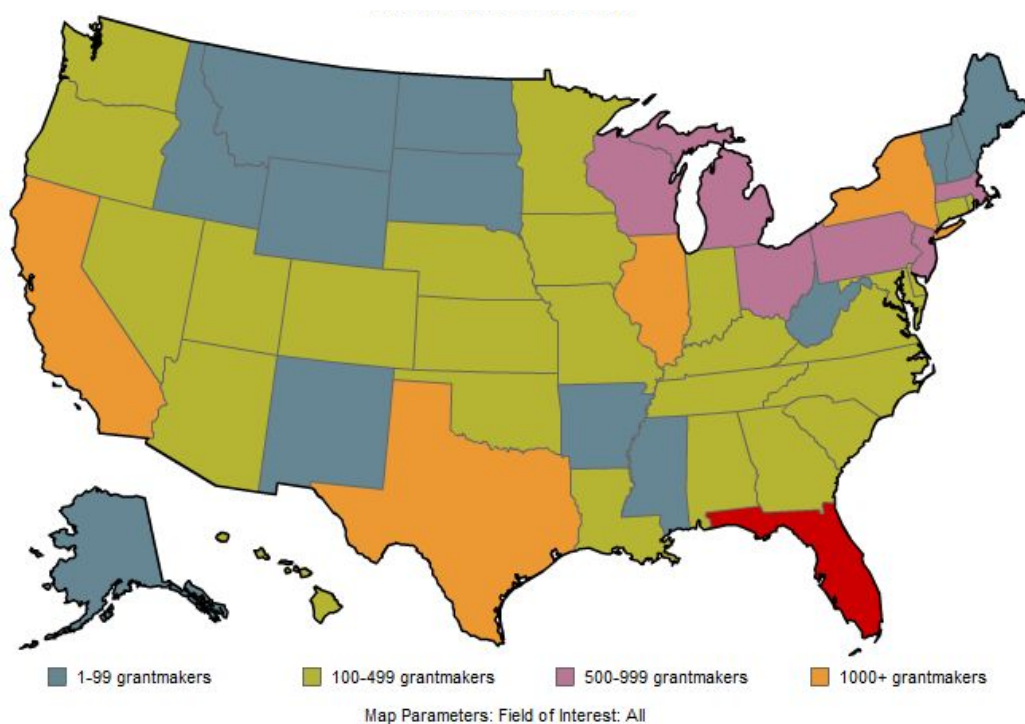
○ 2010년과 비교 해보면,

- NEA에 1억5470만달러 지원.--> 거의 8%의 감축
- 주 및 입법예술기관에 2억7600만달러 지원-->약 6 %의 감축.
- 지역지자체에 약 6억8850만달러 지원--->약 10%의 감축

□ 2012 문화예술재원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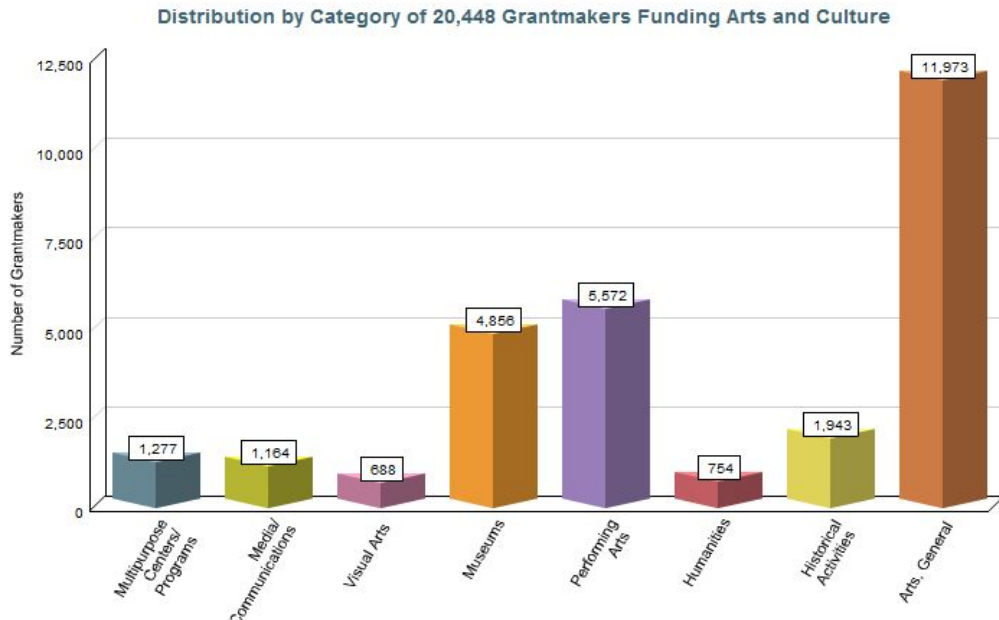
- 2012년 문화예술재원은 [그림IV-2]에서와 같이 미국 전국적으로 예술기금조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림IV-3]에서는 20,448개의 기금단체들이 다양한 목적의 예술프로그램과,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시각예술, 박물관, 공연예술, 인문, 예술역사자료, 그리고 일반 기타 예술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중 일반 예술분야에 11,973개 기금단체의 지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그림 IV-2] 문화예술 관련분야 기금배분, 2009



*출처 2012 The Foundation Center

[그림 IV-3] 2012 예술재원 지원유형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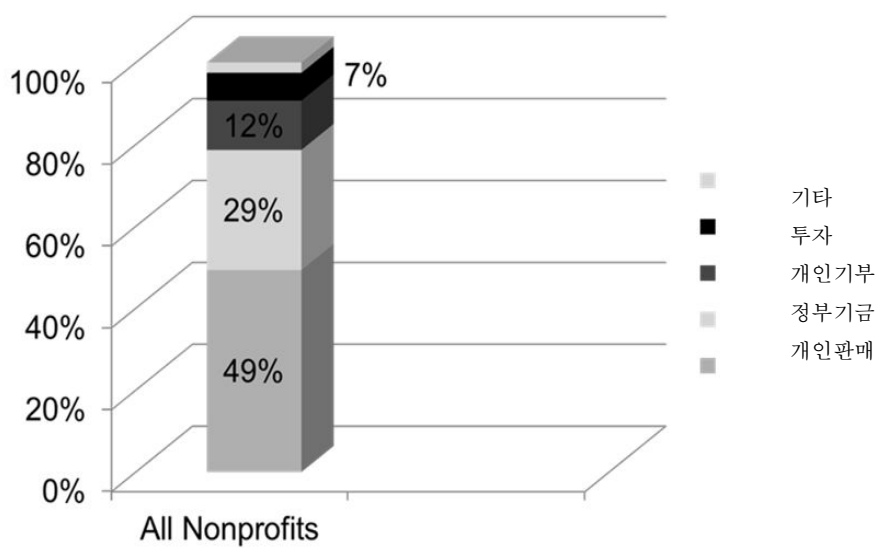


*출처 2012 The Foundation Center

***기금은 하나 이상의 문화예술분야에 한번이상 지원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2012 문화예술재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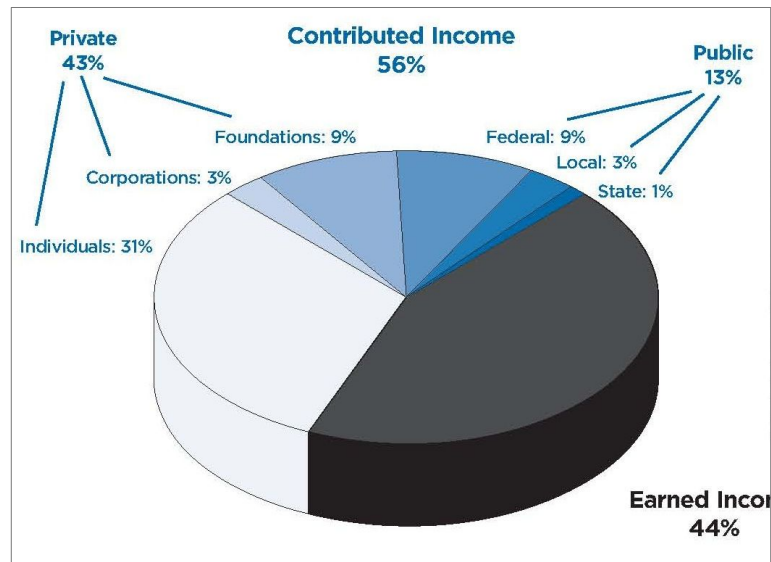
[그림 IV-4] 비영리 수익재원 구성



출처: Nonprofit Almanac, 2008. Figures for 2005.

3. 미국 문화예술재원 운용

[그림 IV-5] 미국의 비영리 문화예술재원 현황



*출처 The Foundation Center

2004년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도출한 데이터로 도시기관의 연방정부센터, 콘퍼런스보드, 재단, 주정부예술조직, 미국인을 위한 예술 자료들을 수집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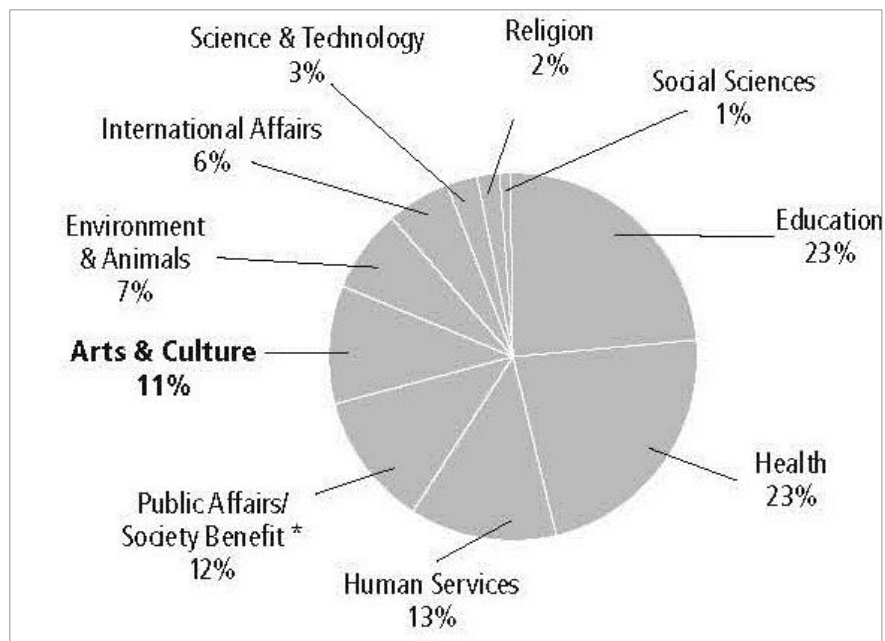
- 미국의 예술 시스템은 단독 기금지원이나 주요한 집행이나 결정을 하지 않고, 정부기관도 아니며, [그림 IV-5]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공공기금을 비영리 예술단체들에게 국민 총 투자의 대략 13%로 구성됨.
- 국가예술기금(NEA)은 미국에서 가장 큰 직접적인 예술기금기구이며, 연방, 주, 지방, 지역단체들의 조합으로 직접적인 공공지원은 예술정책을 구성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대신에 관련분야 전문가 패널의 검토에 의해서 활동.

□ 문화예술지원기금은 자금제공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크게 3가지로 분류함.

- 연방예술기금(NEA, National Environment for Arts): 행정 자치주와 지자체
- NEA 이외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방정부 지원을 받는 지정법률단체
- 민간기부(개인, 회사등)

□ 민간기부는 정부의 세금혜택⁴⁾이 있어 개인이나 협력, 자선재단 등에서 진행되며, 공공과 민간예술지원기금은 비영리 예술조직들을 대략적으로 56%를 지원하고, 비영리 조직은 나머지 약 44%를 자체적으로 티켓판매나 신청 등의 근로소득을 통하여 충원하고 있음.

[그림 IV-6] 2009년 지원분야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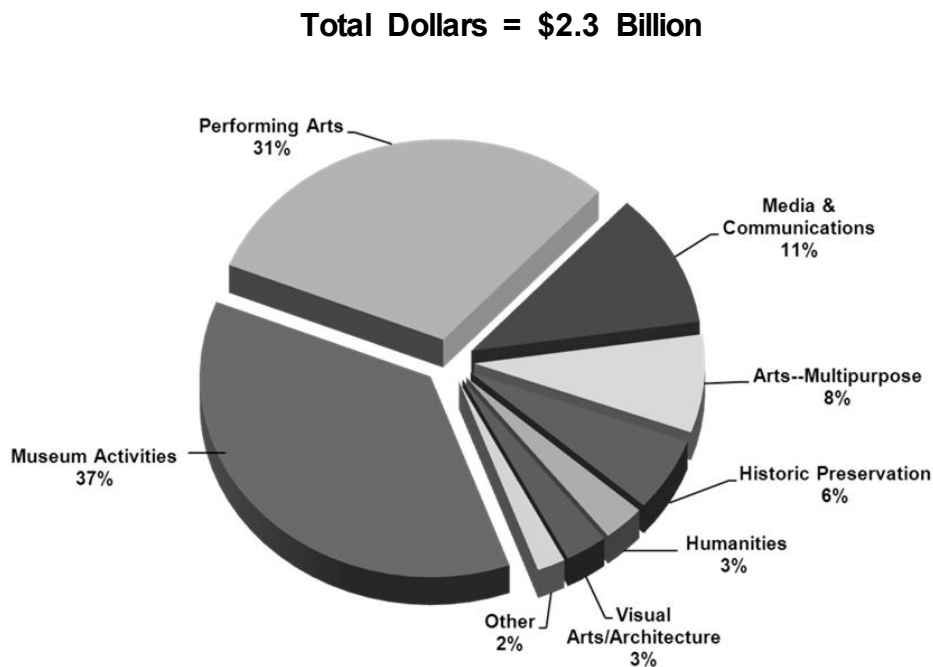


출처: 2011 파운데이션센터리포트 소스, 1만달러 또는 그 이상을 받은 1,384개의 대형 수혜 기관을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함

4) The amount of revenue foregone by the U.S. Treasury, as a function of tax benefits, constitutes a separate type of arts subsidy----this one indirect----from the federal government. See Chapter IV.

□ [그림 IV-6]에 문화예술분야의 기금지원이 11%로 나타나 있듯, 2009년 미국정부는 76,000개의 활발한 예술기금재단의 지원을 2.1% 감축 하여 재단의 전년도 자산의 17%이상의 손실을 도래했으며, 거대한 재단의 지원 감축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재단들이 기금사용을 줄이고 새로운 재단들이 전면적 영향을 줄이도록 서로 협력함.

[그림 IV-7] 문화예술 관련분야 기금배분,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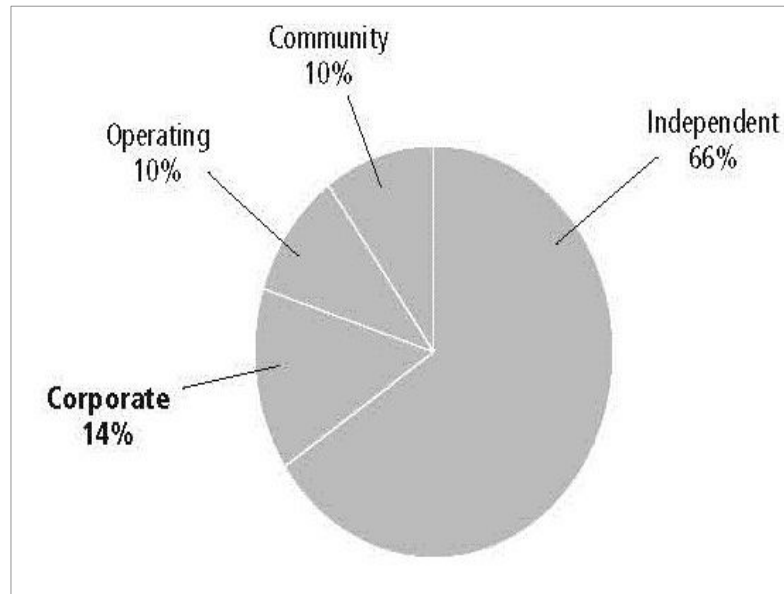


*출처 The Foundation Center Giving Trends, 2011.

□ 특히 문화예술기금을 정부와 분리되어 면제된 독립체로 분류하고 공연예술과 박물관 미술, 영역을 넘나드는 복합예술, 미디어, 방송, 인문학, 문화재보존을 지원함.

○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예술지원에서 특별히 주목 할 변화 점은 대형 1,384 시범 재단에서 2009년 예술지원분배를 502기금제공자와 함께 함.

[그림 IV-8] 2009년 예술기금모금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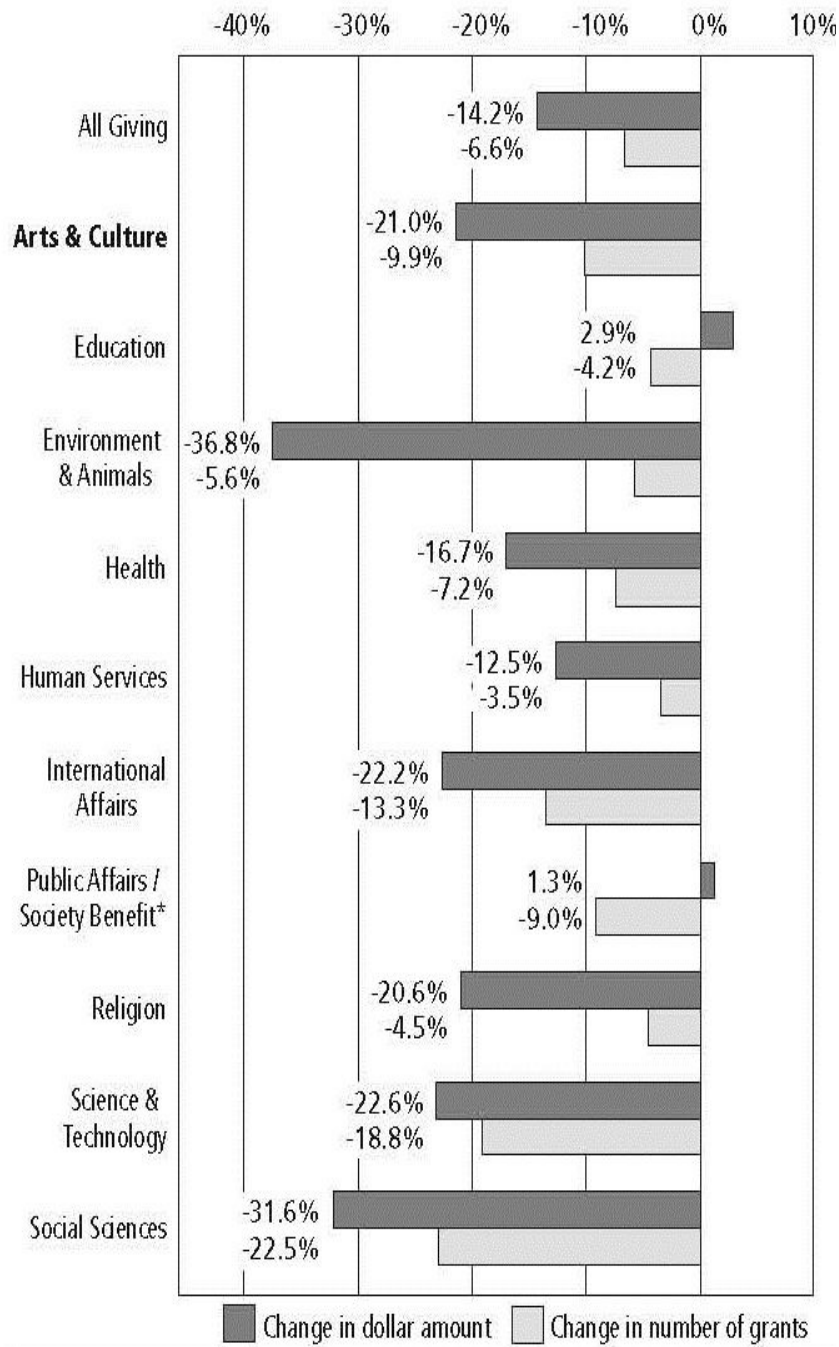


출처: 2011 파운데이션센터리포트 소스, 1만달러 또는 그 이상을 받은 1,384개의 대형 수혜 기관을 조사를 바탕으로 분석함

□ 문화예술재원 운용 변화와 주목

- 2009년 보고된 것 보다 빠르게 문화예술기금 감소됨
- 평균기금규모 불변과 예외적으로 큰 규모의 지원
- 지원의 3/5이하가 대형 예술기금지원에서 탈락됨
- 다른 영역들과 같이, 다수의 실행기관에 기금지원
- 대규모의 예술기금 제공자들이 소규모의 제공기관들에게 의존함이 드러남
- 예술을 위한 직접적 기금지원과, 기업들의 문화예술기금 지원, 관련예술분야 기금지원이 나타남

[그림 IV-9] 2008-2009년 주요 영역의 기금지원 변화



Source: The Foundation Center, 2011. Based on all grants of \$10,000 or more awarded by a matched sample of 502 larger foundations.

* Includes civil rights and social action, community improvement and development, philanthropy and voluntarism, and public affairs.

:

*출처 The Foundation Center

□ 지원유형에 따른 예술기금

<표 IV-3> 지원유형에 따른 예술기금, 2009

Type of support	Dollar value of grants	%	No. of grants	%
General support	\$815,478,798	35.0	7,313	35.4
General/operating	707,551,175	30.3	6,252	30.2
Management development	60,138,243	2.6	470	2.3
Income development	40,156,092	1.7	490	2.4
Annual campaigns	7,633,288	0.3	101	0.5
Program support	905,676,019	38.8	7,552	36.5
Program development	534,319,652	22.9	4,568	22.1
Collections management/preservation	51,667,091	2.2	140	0.7
Exhibitions	97,422,915	4.2	608	2.9
Electronic media/online services	22,557,715	1.0	191	0.9
Performance/productions	55,217,192	2.4	821	4.0
Faculty/staff development	31,869,430	1.4	255	1.2
Film/video/radio	30,425,325	1.3	263	1.3
Curriculum development	16,863,902	0.7	137	0.7
Seed money	6,311,750	0.3	27	0.1
Publication	17,278,460	0.7	187	0.9
Conferences/seminars	14,330,492	0.6	240	1.2
Commissioning new works	17,151,789	0.7	96	0.5
Professorships	10,260,306	0.4	19	0.1
Capital support	473,080,490	20.3	1,842	8.9
Building/renovations	185,225,671	7.9	842	4.1
Capital campaigns	76,302,784	3.3	350	1.7
Endowments	92,185,131	4.0	210	1.0
Collections acquisition	55,295,796	2.4	84	0.4
Equipment	49,152,476	2.1	209	1.0
Land acquisition	2,620,000	0.1	11	0.1
Computer systems/equipment	8,952,632	0.4	116	0.6
Debt reduction	3,346,000	0.1	20	0.1
Professional development	46,729,644	1.9	470	2.3
Fellowships/residencies	26,110,368	1.1	141	0.7
Awards/prizes/competitions	11,544,937	0.5	118	0.6
Student aid	843,200	0.0	21	0.1
Scholarship funds	5,630,593	0.2	140	0.7
Internship funds	2,600,546	0.1	50	0.2
Other support	45,652,660	2.0	305	1.5
Research	30,333,389	1.3	203	1.0
Technical assistance	11,885,271	0.5	69	0.3
Emergency funds	1,336,500	0.1	18	0.1
Program evaluation	2,097,500	0.1	15	0.1
Not specified	497,752,364	21.3	5,845	28.3
Qualifying support type**				
Continuing	944,726,852	40.5	8,079	39.1
Matching or challenge	50,708,143	2.2	211	1.0

Source: The Foundation Center, 2011. Based on all grants of \$10,000 or more awarded by a sample of 1,384 larger foundations.

* Grants may occasionally be for multiple types of support, e.g., for new works and for endowment, and would thereby be counted twice.

** Qualifying types of support are tracked in addition to basic types of support, e.g., a challenge grant for construction, and are thereby represented separately.

*출처 The Foundation Center

제2절 영국의 문화예술 지원구조

1. 1940년대 이후 영국의 문화예술지원 구조의 변화

☐ Council for the Encouragement of Music and the Arts(CEMA)

- 1940년 세계 2차 대전 중 문화진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정되었으며, 이는 영국정부의 지원하에 운영되었고, 이후 the Arts Council of Great Britain로 개명됨.

☐ 대영예술위원회(Art Council of Great Britain; ACGB)

- 1946년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됨.
- ACGB는 예술지원을 위한 최초의 준 독립기구로 이후, 미국, 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전형적인 예술정책의 모형으로 자리 잡음.
- 1946년에는 Royal Charter를 통해 보조를 받았고, 1967년에는 the Scottish and Welsh Art Council(현재 Scottish Art Council and Art Council of Wales의 전신)에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전후, CEMA는 열악한 영국정부의 재정 속에서 정부가 문화예술정책에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체제(Arm's length)를 갖추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지원은 불안정하였음.

□ 4개의 독립적인 예술지원체제를 유지하게 됨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ACE)
 - ACE 만이 문화매체관광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DCMS)로부터 직접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예술위원회는 각기 지역 청사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음.⁵⁾
- 스코틀랜드예술위원회(The Scottish Artist Council: SAC)
- 웨일즈 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 of Wales: ACW)
- 북아일랜드 예술위원회(The Art Council of Northern Ireland)

□ 문화예술재원 운용의 변화

- 1970-80년대 재정 축소로 문화예술위원회(the Arts Council)의 권한 축소와 1987년도는 예술지원단체도 반 이상 축소 함.
- 반면, 동 위원회는 자금부족의 자구책으로 예술진흥을 위한 기업의 후원의 비중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함.
- 예술지원기구들과 지방자치단체들의 문화예술 재정지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1993년 「국민복권법」(National Lottery Act 1993)을 제정한 후 1994년 11월 시행.

5) “영국 예술위원회의 자원정책과 구조” 양효석 annual review 2003

2. 영국 예술위원회 Art Council England(ACE) 문화예술지원 구조

□ 영국예술위원회 Art Council England(ACE)

○ 현재 Arts Council of England는 1994년 분리된 후, 영국문화미디어 스포츠부의 공공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1년 Art Council of England 와 지역예술위원회(Regional Art Boards)와의 대대적인 합병을 통해 Art Council England 로 일원화하였으며, 2003년에 예술기금체제도 Art Council England로 넘어가게 됨.

- 1990년대 이전의 영국 예술기금은 예술위원회가 영국전역을 중앙중심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당시 중앙 관리 자금의 약 20%가 지역예술협회로 지원되었음. 이를 위하여 전반적인 정책과 국립기금회사를 다루는 예술위원회와 함께 10개의 독립적인 지역 예술 보드를 만들어 운영 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국립복권기금의 출시 이후 예술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이 큰 화제가 되었고, 구조적 투자는 더욱 어려워져 지역간의 전략적인 지원경향은 공통의 문제로서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 2003년에는 현재 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ACE))의 운영체제를 갖추게 됨.

○ 2010년, “Achieving great art for everyone”에 의해 수립된 10년 발전계획에 따라, 영국예술위원회는 위원회 전체가 행정적 안정적 지원체계와 조직 사업의 수월성을 위하여 새로운 비경영조직구조(non-executive governance structure)를 공표하였음.

□ 영국예술위원회(Art Council England)의 조직과 구조

○ 영국예술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구조로 중앙위(National council)와 지역위(Regional councils), 그리고 임원진(Executive Board)의 3개 나누어 운영함.

○ 중앙위(National Council)

- National Council은 영국예술위원회의 비경영구조이며, 조직의 전반적인 책임을 수행하고, 예술위원회를 위한 정책을 이끌고 추진함.
- National Council은 문화미디어체육부(the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임명한 기금이사 17명의 위원으로, 현재 Dame Liz Forgan 회장과 9명의 지역책임을 수행하는 위원을 포함하며, 임기는 4년으로 재임 가능함.
- 경력, 예술가, 사립 또는 공립 교육기관장 등과 같은 예술행정에 관련하여 구성원 지명함.
- 일년에 3회 예술정책, 예술기금, 감사, 회계 관련 4명의 구성원들이 모여 회의 진행.
- 영국예술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정책 및 우선순위 결정, 예술가와 예술단체를 위한 기금사업들을 직접 또는 지역예술위원회를 통해 집행함.

○ 9개 지역위(Regional counci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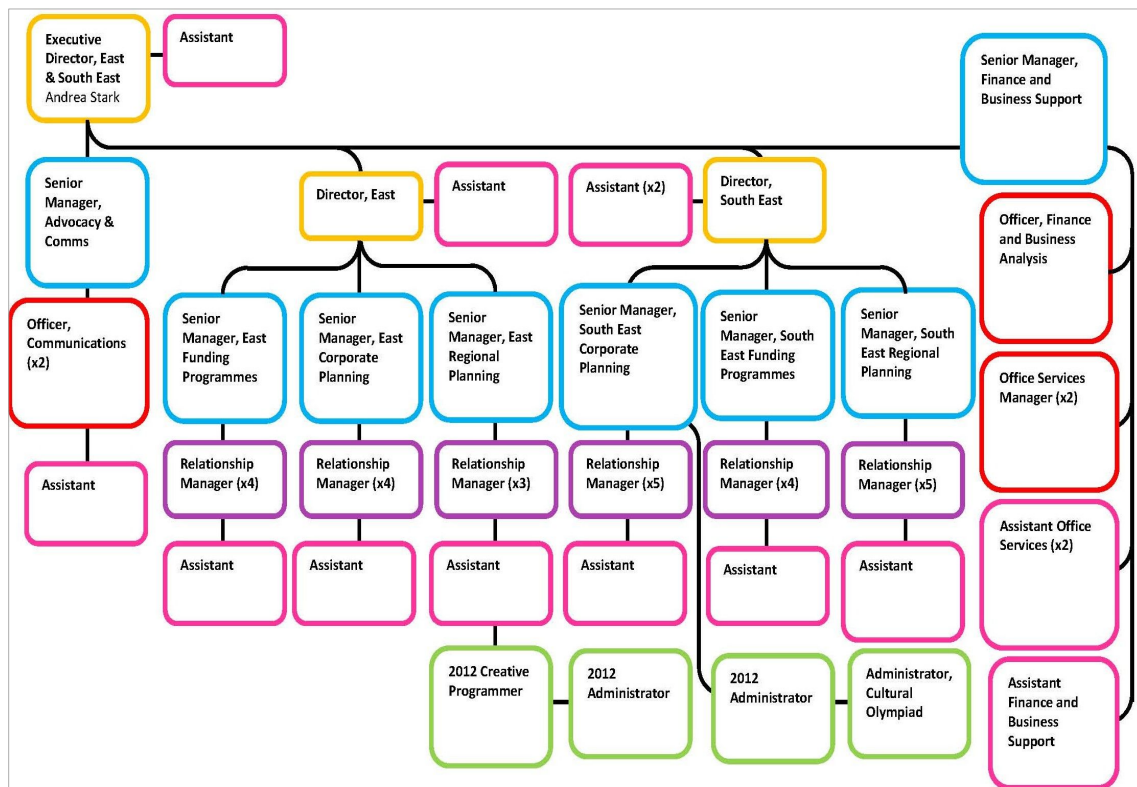
East
East Midlands
London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West Midlands
Yorkshire

- 9개의 지역예술위는 15명의 구성원으로, 각 지역은 6명의 지역과 주를 대표하는 의원들로 구성.
- 지역발전 전략 및 집행에 관련 동의 및 허가.
- 25,000£ 명시된 이상의 예산과 지원 기금단체를 포함하여 연간 예산 계획 동의.
- 9개의 대표지역구들을 아래 <그림4-7, 4-8, 4-9>와 같이 다시 크게 East, Midland and South West, North, 그리고 London 의 4개구로 구분하여 연계 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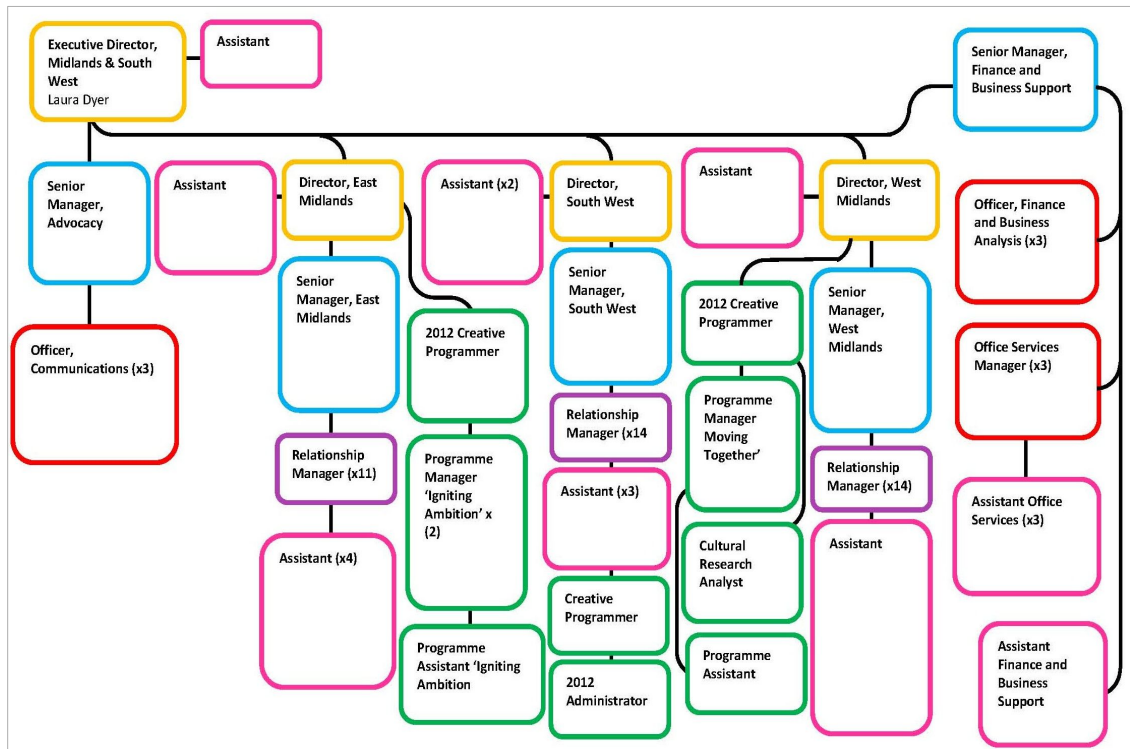
<표 IV-4> 4개 지역구 예술위원회와 구성

지역구	9개 지역
East	East
	South East
Midland and South West	East Midland
	South West
	West Midland
North	North East
	North West
	Yorkshir
London	Lond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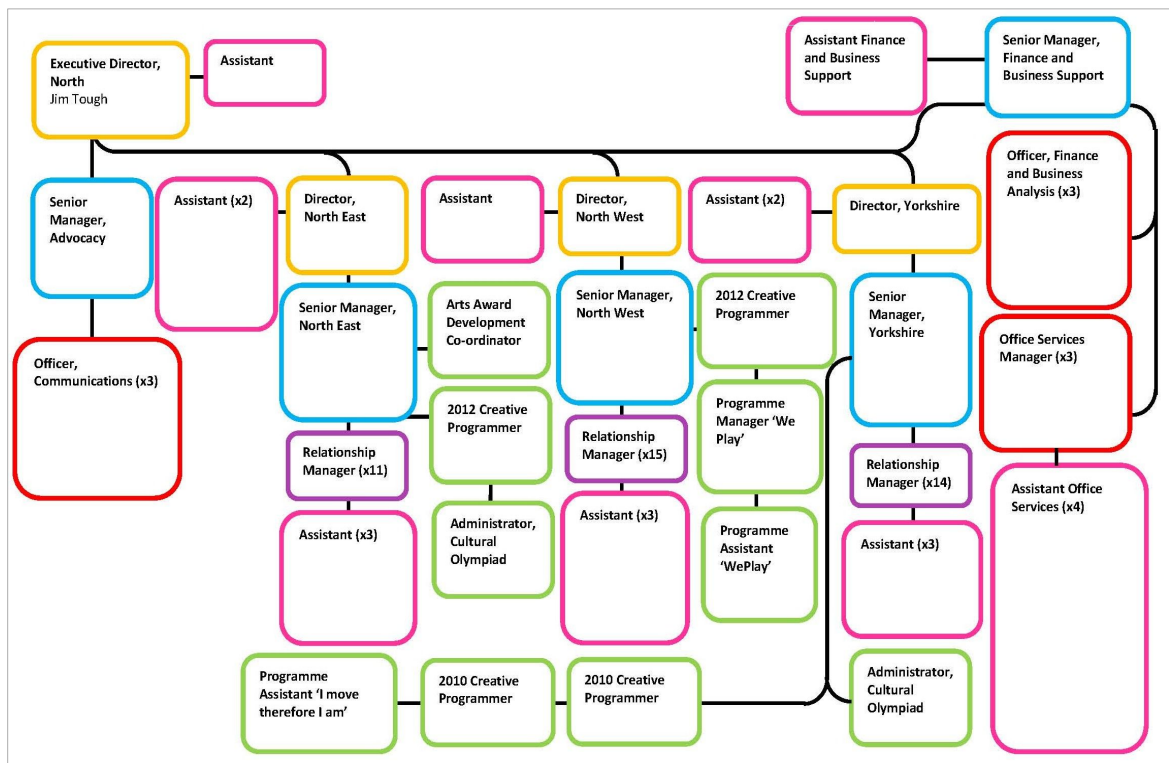
[그림 IV-10] East and South East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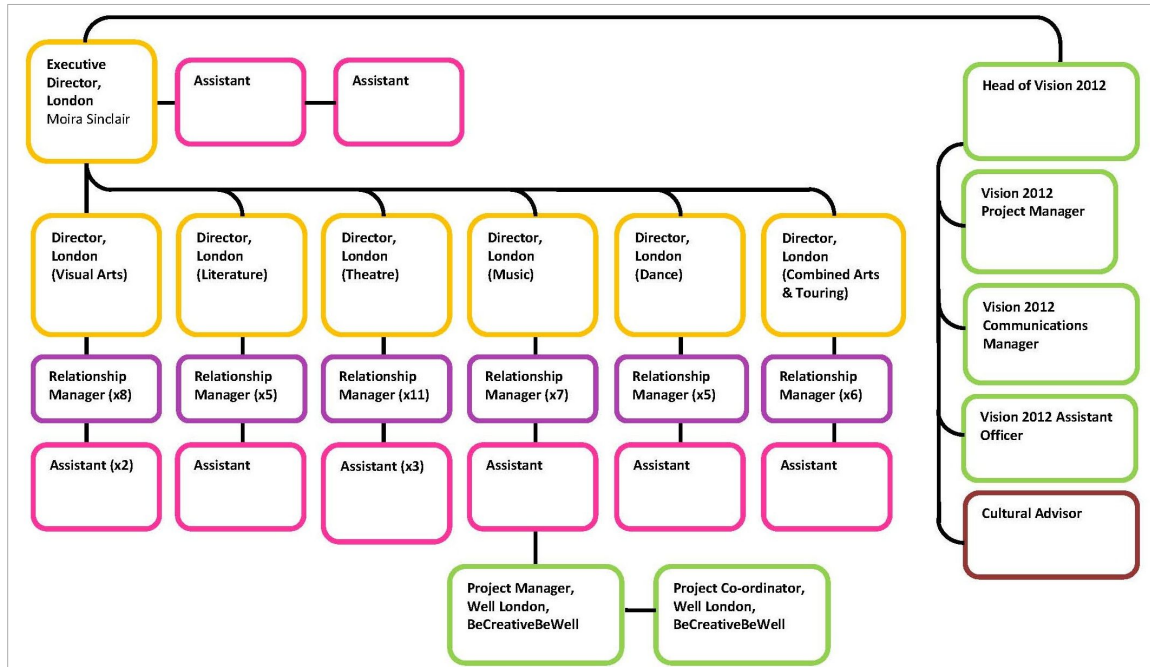
[그림 IV-11] Midland and South West 조직구성



[그림 IV-12] North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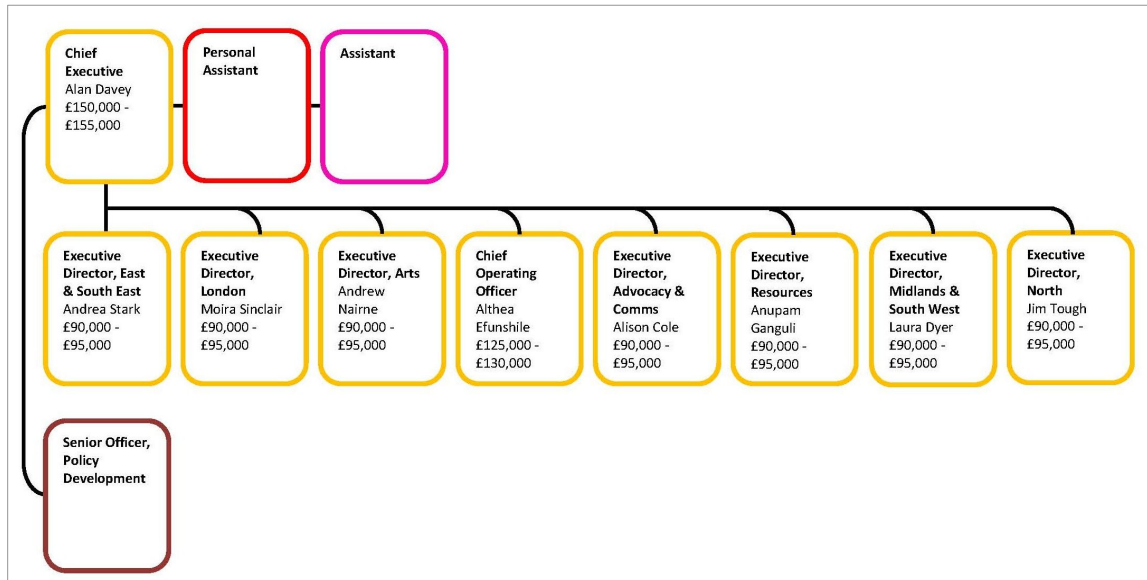
[그림 IV-13] London 조직구성



○ 임원부(Executive Board)

- 앞서 4개의 지역구대표들과 회장 및 예술, 운영책임, 정책, 자원 책임자로서 9명으로 구성됨.
- 전략과 운영을 위한 결정을 하며,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운영방법을 제공하고 예술위원회의 장기발전전략을 위한 발전과 협력의 역할을 수행함.
- 예술위원회의 계획 전달이 위임된 권력 내, 위원회에 주요 권장 사항들을 만들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절하게 추가 대표단을 승인할 수 있음.

[그림 IV-14] 임원부 조직구성



3. Arts Council England(ACE)의 문화예술재원과 운용 현황⁶⁾⁷⁾⁸⁾

□ 영국문화예술재원⁹⁾

- 영국의 문화예술지원은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가 수립되어 영국예술위원회(ACE; Arts Council of England)가 이를 실천함.
- ACE의 재원은 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크게 2가지, 국고(Grant-in-aid)와 연방복권기금제도를 통해 조성된 기금(National

6) Ata Sood, Cathy Pharoah (2011) "Fundraising activity in arts, culture, heritage and sports organisations: a qualitative study"

7) Arts & Business (2010) *Private investment in culture 2009/2010*
http://www.artsandbusiness.org.uk/Scotland/Research/Investment-and-funding/private_investment_culture_0910.aspx

8) DCMS, ACE, English Heritage, MLA and Sport England (2010) *CASE Regional and local insights* http://www.culture.gov.uk/what_we_do/research_and_statistics/7276.aspx

9) Endowments in the arts Arts Council England, December 2010

Lottery Fund)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점은 우리나라의 복권기금의 문화예술 운용과 유사함.

- 1998년 새로운 연방복권기금법 에 의해 복권수입금 중 일부가 문화예술분야에 투입되기 시작함.

(<http://www.hmsso.gov.uk/acts/acts1998/19980022.htm>)

- 이 제도에 의하면 복권 수익금의 50%를 상금으로 활용하고, 운영비 등 기타 경비를 제외한 28%가 각 영역에 분배되는데, 분배금의 16.7%가 문화예술분야에 배정됨.
- 영국의 경우 복권은 국가가 관장하는 국립복권(National Lottery)만이 존재하며 이 수익금은 철저히 소득의 재분배 차원에서 스포츠, 예술, 문화유산, 자선, 건강과 교육 및 환경 등 국민의 복지를 위한 공익적 영역에만 쓰여지도록 법제화되어 문화예술재원은 아래와 같이 주로 투입되고 있음.
 - Grants for the art: 개인예술가 및 예술 단체의 활동지원
 - Regular funding for organisations: 3년 주기로 880개 예술단체에 2010-2011년에 걸쳐 연간 3억5천만 파운드 지원
 - Cultural leadership program: 2006년 5월 2개년 프로그램 착수
 - Own Art: 동시대 예술가의 예술작품구입을 촉진하기 위한 무이자 대부사업
 - Managed funds: 예술계 발전을 위한 창의성 개발 및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운영비용(내부운용펀드)
 - Urban cultural program: 2004-2006년 동안 도시문화프로젝트 복권기금 투입

□ 영국예술위원회(ACE: Arts Council England)의 재원 환경

- 연방 또는 지방(national or regional)을 대표하는 적은 수의 거대한 규모 단체들과 아주 많은 수의 소규모 지역(local, community)단체들은 전문성과 비전문성 등으로 대립적인 특징이 드러남.
- DCMS 산하 정부단체와 같이 등록된 기금단체와 등록되지 않은 수 많은 소규모 비영리기금 단체들이 있으며, 약4/5 기금단체만이 등록되어 활동함(NCVO, 2010).
- 연간 £10억의 개인기부(NCVO/CAF, 2010)중 제일 낮은 1%만이 예술관련 기부.
- 예술상품이나 서비스(카페, 숭, 온라인 등), 레저와 예술시설 등과 같은 수익사업으로 비영리기금 단체들의 기금재원이 다양해져 기금과 수익이 혼용된 구조를 띠(예>큰 규모의 Tate, Royal Botanic Garden Kew과 같은 단체는 독립된 재단을 운영하고 있음).

<표 IV-5> 문화예술산업과 비영리 기금 수입비교

Sector	Turnover of total creative industries, museum, library and archive, heritage and sports sectors ¹ (England, 2009)	Income of non-profits/charities in these sectors only (England & Wales, 2006/07) ³
Creative industries ²	£125.2billion	£1.4 billion
Museums, libraries, archives	£660 million	£693 million ⁴
Heritage	£163 million	£504 million ⁵
Sport	£11.9 billion	£358 million 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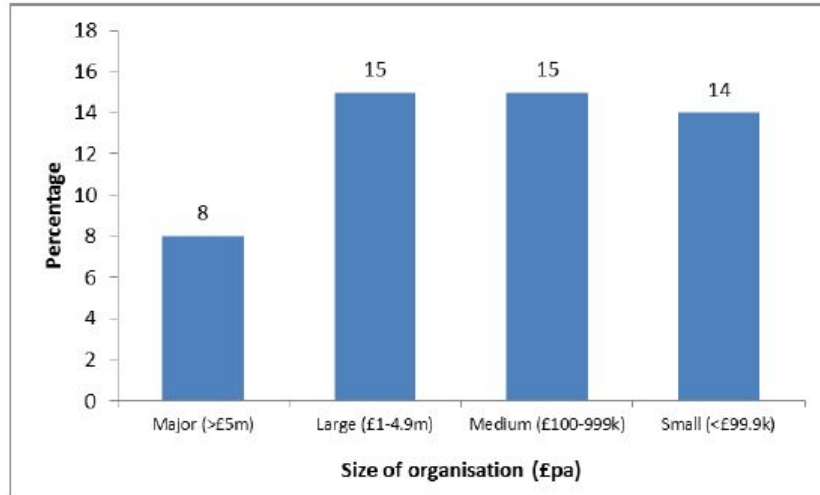
□ 영국예술위원회 문화예술재원 구성

- 법령(지역, 중앙, 유럽연합, 영국예술위원회, 복권기금)의 의한 기금은 전체의 약 50%정도이며, 개인과 자발적인 기부(개인 선물, 기업, 자선 신탁이나 자산 등)가 약 16-20%, 그리고 그 외 수익(상품화, 후원, 티켓 등)이 약 30%를 차지 함¹⁰⁾.
- 문화예술재원조성 분야는 아래의 분야를 포함하여 증가 추세임.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The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 연방복권기금회(National Lottery funding opportunities)
 - 유럽연방기금조직(European Union funding schemes)
 - 지역당국 지원
 - 재단과 개인기부 위탁금(Trusts)
 - 티켓 또는 입장권 요금
 - 상품화나 후원
- 법령에 의한 기금은 2011/12년 1억5500만 프랑(£)을 2014/15년까지 2억2200만 프랑(£)으로 증가계획과 DCMS로부터의 지원을 2/3축소 예정 계획.
- [그림 IV-15] 에서 드러나 듯 개인기부의 중요성이 드러나나, 대부분 개인 기부는 런던조직(83%)과, 메이저조직(88%)로 흘러가고, 규모가 작은 조직일수록 65%이상 중앙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14% 조직은 개인투자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10) 500개의 자선단체(Pharoah, 2010)분석과 예술과 경영(Art & Business)의 100개 단체의 연간 보고서(Art & Business, 2010) 내용분석

[그림 IV-15] 단체규모에 따른 개인 기부기금 백분율, 200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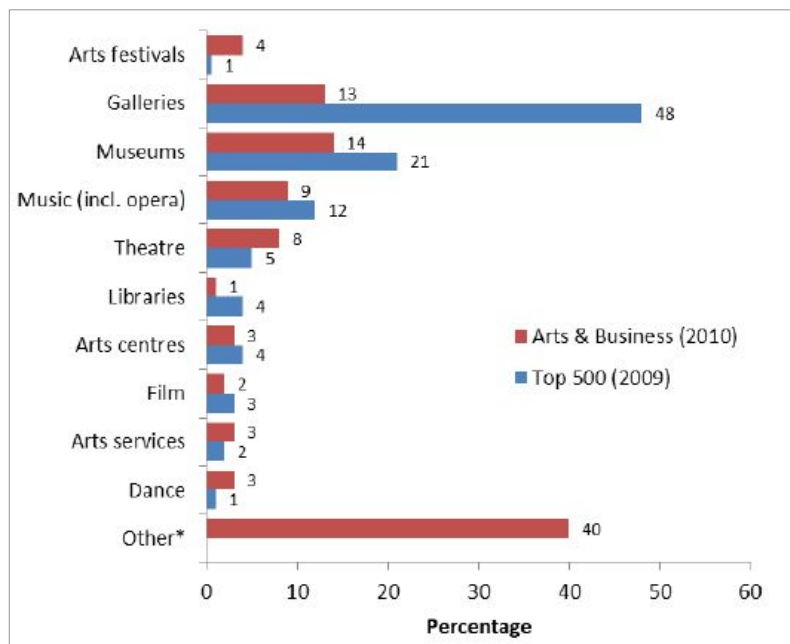
*개인과 신탁, 협력지원금 포함



□ 영국예술위원회 문화예술재원 운용

- 영국문화예술기금의 개인과 정부·지역의 기금 비교데이터는 찾을 수 없어 문화예술 분야별 개인의 기금모금과 투자현황만 비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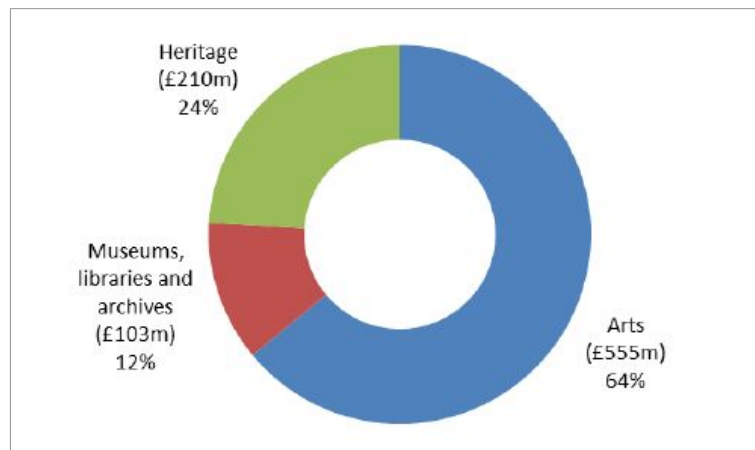
[그림 IV-16] 분야별 개인기부 기여도



*출처: Art & Business (2010)와 Pharoah(2010)자료

- [그림 IV-16] 그림에서 Art & Business와 2011자선기금 마켓 조사에서 상위 500개 단체들을 분석한 결과(Pharoah, 2011)¹¹⁾ 조사방법에 따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음악, 박물관, 갤러리가 적극적인 개인기부로 나타남.
- 반면, 개인기부기금의 투자는 문화나 갤러리, 박물관이 아닌 대부분 예술에 직접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이 아래 [그림 IV-17] 에 드러남.

[그림 IV-17] 문화예술분야 개인투자기여도



*출처: Art & Business (2010)

- 하위 조직의 직접적 개인기부와 그 외 기금조성방법 마련
 - 1/3 미술관들이 지역 행정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나, 점차 독립적인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음(개인기부자들 모집의 성공으로 전체 박물관 수익의 약 18%를 문화교류 및 보존, 기부자 연계를 지원)
 - 멤버쉽과 친구구성(Membership and Friends schemes)으로 48% 개인기부 조성(Art & Business, 2010)
 - 기부자 관련 상품과 서비스와 경험제공

11) Pharoah, C. (2010). *Charity Market Monitor 2010*. CaritasData. London.

제3절 외국 사례연구의 시사점

- 미국은 영국과 달리 문화예술기금을 정부와 분리하여 면제된 독립체로 분류하여 공연예술과 박물관 미술, 영역을 넘나드는 복합예술, 미디어, 방송, 인문학, 문화재보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 미국 NEA는 문화부와 같은 주요행정부처로서의 문화정책 전담기관이 없이 간접적이고 분산된 형태의 문화예술지원 체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그 중 대표적인 간접적 지원 방법이 비영리 예술단체와 기부자에 대하여 각종 면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방세법으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시스템과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미국에서 2008년과 2009년의 사이에는 14%이상의 예산 감축으로 예술과 관련분야의 지원감축은 확장되었지만 이러한 불황이 예술에 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위기를 극복하는 경험에 의하여 예술기금마련방법의 새로운 변화가 2010년 데이터에 나타난다. 비록 제한적이지만 새로운 2010년 데이터에 의하면 기금마련 구조의 변화가 새로운 기금마련방법 모색과 협력구조로 나타난 점을 주목 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Art & Business(2010)은 문화예술 전체 개인투자 가치를 연간 6억5800만 프랑으로 추정하였으나, 이 후 4년간 5억·9억 프랑 법제기금이 감축할 것으로 예측 하였다.(Art & Business, 2010), 이는 예술단체들이 적은 수의 메이저급 기부자들에만 의존하여 기부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연방기구의 외부에서 개인기부자와의 연계 부족이 원인으로, 다양한 방법의 기부 활성화를 위한 방안모색에 주목 해야 함.

- 영화제작과 같은 특정장르에 대한 기금 지원 부재, 그리고 음악분야의 오페라는 90%, 재즈는 1%와 같이 지원 편차가 극적으로 드러나는 편중적 사례들을 통해 영국의 ACE가 정계와 언론계 심지어 문화예술계로부터 수많은 비난을 받아오면서, 영국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복권기금 백서를 발간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함.

- 문화예술분야의 복권기금은 국고와는 달리 주로 국가적 차원의 문화인프라 구축과 공공성을 띤 복지적 부문에 투입되고 있었으며, ACE는 이 외에도 문화분야에 필요한 기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관부처의 예산을 활용하는데 이는 현대 예술이 정치, 경제, 교육, 과학, 기술 등 사회전반과 관련되며 그 기반을 형성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인식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사려 됨.

- 영국의 문화정책은 철저하게 경영적 마인드에 입각한 예산의 효율성에 두고 있기 때문에, 원조나 시혜개념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 투자개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제의 전통이 깊은 국가임에도 그들의 경우 지원에 있어 공평성이나 균등배분이란 개념보다는 효율성이 앞세우고 있는 점을 보면 그 합리성을 엿볼 수 있음.

V. 한국의 대표적인 모금기관 분석

제1절 특수법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2절 재단법인 : 아름다운재단

IV. 한국의 대표적인 모금기관 분석

제1절 특수법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 내용은 한국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2010)를 요약정리한 내용임을 밝혀둠.

1. 공동모금제도의 이해

☐ 공동모금제도에 대한 이해

- 공동모금제도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모금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회전략중 하나임.
- 사회구성원들이 사회문제를 자신과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의식을 고취시키고, 해결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의미가 있음.
- 단일화된 모금창구를 통해 개별모금조직들간의 과도한 모금활동 경쟁을 최소화시키고, 모금활동의 비효율성을 최소화 시키는 역할을 함. 또한 기부자들에게 용이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데도 기여함.

☐ 공동모금제도의 운영상의 의미

- 공동모금제도는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들이 독립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민간주도의 활동임.

- 지역사회를 기본단위로 설립·운영되는 공동모금회는 지역사회 구성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하게 되어 기부자와 대상자가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속성을 지니게 됨. 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의 문제가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여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가져옴.
- 모금과 배분의 창구 일원화를 통해 기부자에게 중복적인 요청이 가는 것을 막아 기부에 대한 피로를 감소시키고 배분에 있어서도 중복수혜의 문제를 감소시킴. 이러한 일원화는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행정비용의 감소를 가져옴.
- 공동모금회는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배분에 필요한 재정규모를 설정한 후 모금의 규모를 결정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공표하여 이해를 구하고, 재정을 사용한 후에는 재정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며 효과에 대해 공표함. 이와 같은 공표방식은 공동모금회와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을 촉진함.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면서 동시에 전국적인 협력으로 전개되는 속성을 지님.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활동이 지역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게 함과 동시에 전국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전체의 연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함.

□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효과

- 민간 영역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한 재원의 조성을 위해 연중모금과 캠페인을 통해 지역구성원들을 참여시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함.
-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켜 지역의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효과를 지님.

- 사회구성원 개개인이 사회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지님.
- 최소한의 책임범위를 넘어 적극적인 시민으로서 책무 수행을 촉진함.
- 모금에 의한 재원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일에 배분함. 배분의 과정에서는 엄격한 기준에 근거하여 재원 활용의 책임성을 증진시킴과 동시에 지속적인 재원개발을 위한 토대의 구축효과를 지님.

□ 한국의 공동모금회 : 공동모금회의 설립과 발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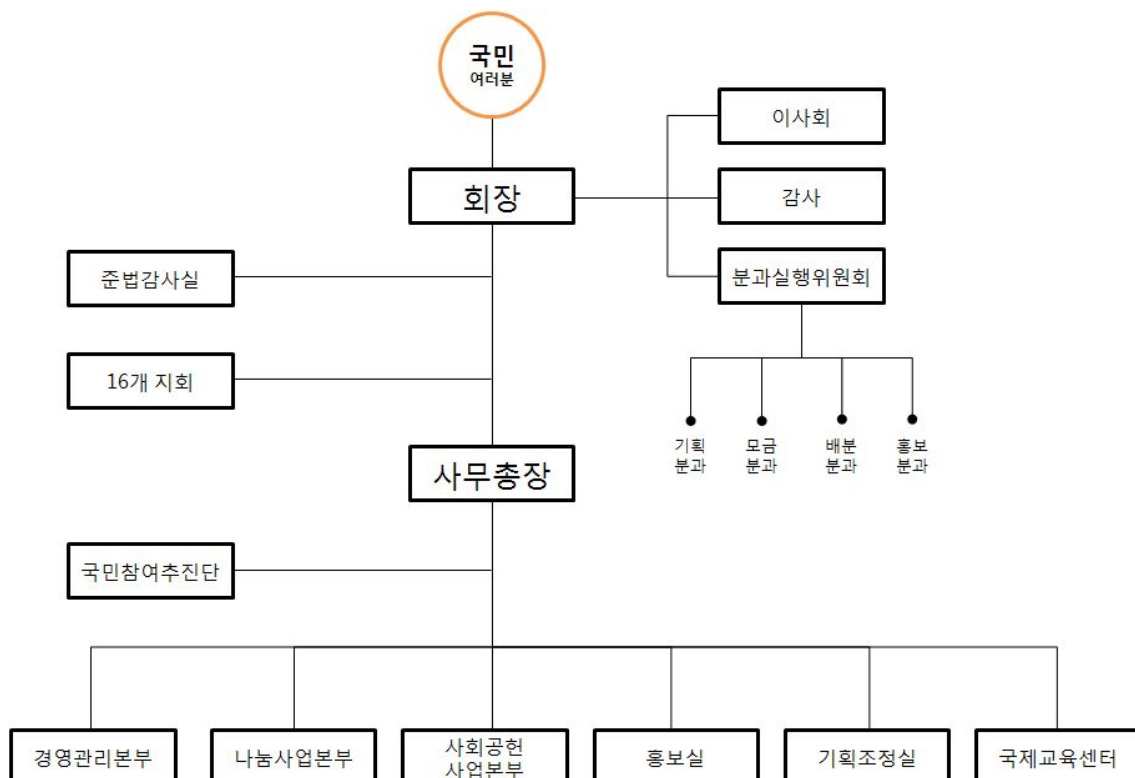
- 1996년 감사원에서 정부가 ‘불우이웃돕기’ 명목으로 성금을 모금하여 정부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게 되면서 민간 부문의 사회복지공동모금 조직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후 1997년 제정된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해 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음.
- 공동모금회 설립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강조되었던 과제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민간전문모금기관의 설립, 사회복지영역의 각종 이해집단으로부터 중립성 유지, 지역의 지역사회 자원형성 및 발전적 운영 견인, 시민의 참여에 기반한 모금기관으로의 성장임.
- 공동모금회의 성장과 발전
 - 설립초기(1998~2001년) : 모금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연말집중모금 캠페인을 중심으로 추진을 하였음.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새로운 모금방식 개발을 위해 노력함. 배분사업의 측면에서는

기본적 틀의 형성을 통해 효율적인 배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함.

- 성장 1기(2002~2005년) : 기업기부의 성장을 통한 모금액 규모의 성장을 이루어 냈음.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참여기반의 마련을 위해 이벤트 성격의 개인모금 캠페인을 벌임.
- 성장 2기(2006~2010년) : 모금방식의 세분화를 통해 모금규모의 성장을 이끌어낸 시기로 다양하고 새로운 상품을 도입함과 동시에 시민 개개인의 기부 활성화를 모색하였음. 연간 모금액 3천억의 기록을 세우고 배분의 책임성이라는 문제의식이 생김.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을 도입하는 시기였음.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 구성 및 운영

[그림 V-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구조



□ 의회적 시스템

- 공동모금회의 의회적 시스템은 이사회(지회는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성됨. 이사회는 법률적으로 규정된 최고 의사결정구조이며, 운영위원회는 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지회 의사결정 구조임. 분과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전문 자문기구로 모금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심의를 수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음.

□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 임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에 의하면, ‘모금회 임원의 임기는 총2년으로 하되(2008년 이후 3년으로 개정),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고 규정하고 있음. 임기제한 규정은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사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연임규정은 이사회기능의 지속성을 돕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음.
- 구성현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9조, 정관44조는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네가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네 가지 전문 분야는 경제·언론·법조·의료계등의 경제계, 노동·종교·시민단체, 사회복지관련 학계 및 사회복지전문가, 그밖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임. 공동모금회의 이사회는 경제계, 언론계, 종교계, 법계, 학계, 사회복지계의 대표적인 사회지도층들로 구성되어있음. 이는 공동모금회 이사회가 조직을 대표하고 외부 의사소통 및 자원동원의 가교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활동과 역할 : 공동모금회 정관에는 이사회의 소집 및 서면결의, 의결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활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이사회 소집은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되며,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과 11월에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정관 제14조), 또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안전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를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정관 제19조). 이사회의 역할은 정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공동모금 계획 및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배분기준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및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매 회계연도 사업결산에 관한 사항,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지회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 기본재단의 처분에 관한 사항, 이사 3분의 1이상이 부의한 사항, 그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들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하고 있음.

□ 분과위원회

- 임기 : 평균임기는 약 40개월이고, 홍보분과가 50.4개월로 가장 긴 평균임기를 가지고 있음. 배분분과는 임기제한(4년)을 가지고 있어 4년을 넘지 않으며, 나머지 분과는 최대 6년을 초과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 분과위원 평균임기

(단위:개월)

구분	기획분과	모금분과	배분분과	홍보분과	전체
평균	40.8	42.4	35.0	50.4	39.7
최소값	3	5	3	10	3
최대값	120	144	48	120	144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구성현황 : 기획·모금·홍보분과는 ‘경제계’인사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배분분과는 사회복지현장과 전문가 그룹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활동과 역할 : 공동모금회의 세부 운영관련 전문적 자문기구로 조직운영에 있어 전문성을 증진시키고자 전문가를 활용하는 시스템임. 기획·모금·배분·홍보등 각 사업영역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전문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함.

3. 모금의 사회적 성과

□ 사회복지 민간자원의 동력개척과 다양성·안정성 구축

○ 사회복지 민간자원의 동력개척과 규모의 성장

- 1998년 연간 150억원의 모금을 시작으로 2009년에는 3000억원으로 약 10년에 걸쳐 약 2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어냄. 2004년 이후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음. 이는 주요 모금기관 모금의 총액의 절반가량의 점유율으로 민간자원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며 또한 민간자원을 확보하는 대표적인 모금 조직으로 볼 수 있음.

<표 V-2> 주요 모금기관의 모금액 변화추이(2004~2008)

(단위: 백만원, %)

기관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합계
	모금액	비율	모금액	비율	모금액	비율	모금액	비율	모금액	비율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	175,631	54.2	214,697	55.4	217,694	52.7	267,340	53.1	270,286	51.1	1,145,648
어린이재 단	42,384	13.1	46,015	11.9	52,383	12.7	58,473	11.6	51,337	9.7	250,592
월드비전	22,687	7	33,929	8.8	60,630	9.8	57,856	11.5	71,055	13.4	226,157
대한 적십자사	39,799	12.3	41,004	10.6	41,404	10	43,395	8.6	47,282	8.9	212,884
굿네이버 스	15,700	4.8	17,315	4.5	22,069	5.3	25,740	5.1	30,000	5.7	110,824
유니세프	12,390	3.8	16,382	4.2	17,148	4.2	21,920	4.4	28,242	5.3	96,082
기타	15,406	5	18,277	5	21,455	5	28,894	6	30,952	6	114,984
합계	323,977	100	387,619	100	412,783	100	503,618	100	529,154	100	2,157,171

* 주) 기타 : 아름다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구세군 대한본영, 한국여성재단, 아이들과 미래

* 자료: 2010년 통계연감.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지역사회에 지회를 두어 활발한 모금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지역기반으로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모금체제의 형성을 통해 지역기반 민간자원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표 V-3>의 중앙·지회 연도별 모금액 변화 추이를 통해 살펴보면 중앙은 약 48%, 지회는 52%로 모금액의 절반이상이 지역 사회 기반의 모금활동으로 볼 수 있음.

<표 V-3> 중앙·지회 연도별 모금액 변화 추이 (1999~2009)

(단위: 백만원,%)

연도	중앙			지회			총액
	금액	비율	증감률	금액	비율	증감률	금액
1999	7,190	33.64		14,184	66.36		21,374
2000	28,553	56.03	297.12	22,405	43.97	57.96	50,958
2001	32,115	51.38	12.48	30,386	48.62	35.62	62,501
2002	44,282	43.52	37.89	57,464	56.48	89.11	59,641
2002 추가	40,079	67.20		19,562	32.80		59,641
2003	70,281	50.84	58.71	67,965	49.16	18.27	138,246
2004	80,526	45.85	14.58	95,104	54.15	39.93	175,630
2005	116,400	54.20	44.55	98,343	45.80	3.41	214,743
2006	113,186	51.98	-2.76	104,559	48.02	6.32	217,745
2007	122,837	45.94	8.53	144,569	54.06	38.27	267,406
2008	126,367	46.75	2.87	143,919	53.25	-0.45	270,286
2009	158,423	47.74	25.37	173,440	52.26	20.51	334,863
합계	900,160	48.59		952,338	51.41		1,852,498
평균	81,833	47.99	49.93	86,576	52.01	30.90	168,409

* 주) 2009 연간보고서, 합계 및 평균에 2002년 추가분은 반영되지 않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사회복지민간자원의 안정성확보

- 일반모금 vs. 지정모금 : 공동모금회는 기부자가 자신이 원하는 영역, 대상, 분야에 기부할 수 있도록 지정기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기부자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사업에 참여를 증진시키고, 모금의 안정화에 기여함. <표 V-4> 일반모금 vs. 지정모금 총모금액 추이를 보면 2007년 이후로 지정기탁이 일반모금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V-4> 일반모금 vs. 지정모금 총모금액 변화 추이(2000~2009)

(단위: 백만원, %)

구분	일반			지정			합계
	금액	구성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2000	32,573	63.392		18,385	36.08		50,598
2001	30,176	54.30	-7.36	25,399	45.70	38.15	55,575
2002	40,430	52.15	33.98	37,105	47.86	46.09	77,534
2003	58,643	53.04	45.05	51,917	46.96	39.92	110,561
2004	86,625	49.32	47.72	89,005	50.68	71.44	175,630
2005	114,860	53.49	32.59	99,882	46.51	12.22	214,742
2006	116,734	53.61	1.63	101,012	46.39	1.13	217,746
2007	123,264	46.08	5.55	144,190	53.92	42.75	267,407
2008	132,264	48.93	7.34	138,022	51.07	-4.28	270,286
2009	16,1559	48.68	22.15	173,304	51.32	23.39	331,863
합계	897,080	50.63		875,221	49.39		1,771,942
평균	89,708	52.35	20.96	87,522	47.65	30.09	177,194

* 주)2000~2003년까지는 내부자료의 부족으로 현금모금액만 반영된 수치임

* 자료: 2010 통계연감, 모금회 내부자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현금모금 vs. 현물모금 : 모금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현금모금과 더불어 현물모금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함. 이는 모금구성의 다양성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기여하고 기부자들의 참여 영역을 확대시킴.

<표 V-5> 현금모금 vs. 현물모금 총모금액 변화 추이(2000~2009)

(단위: 백만원, %)

구분	현금			현물			합계
	금액	구성비	증감률	금액	구성비	증감률	
2000	50,958	100.00					50,985
2001	55,575	88.92	9.06	6,925	11.08		62,500
2002	77,353	77.04	39.51	23,108	22.96	233.69	100,643
2003	110,560	79.97	42.59	27,686	20.03	19.81	138,247
2004	133,498	76.01	20.75	42,133	23.99	52.18	175,630
2005	180,411	84.01	35.14	34,427	15.99	-18.52	214,742
2006	186,108	84.09	1.49	39,649	15.91	0.89	217,746
2007	230,980	86.38	26.14	36,427	13.62	5.17	267,407
2008	230,637	85.33	-0.15	39,649	14.67	8.85	270,286
2009	285,281	85.96	23.69	46,582	14.04	17.49	331,863
합계	1,538,543	84.07		291,478	15.93		1,830,022
평균	153,854	84.77	22.02	29,148	15.23	39.95	183,002

* 자료: 2010 통계연감, 모금회 내부자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기업모금 vs. 개인모금 : 연말캠페인 기간의 중앙회를 통한 기업기부의 유입규모가 큰 것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업모금과 개인모금의 비율이 6:4정도로 기업모금의 비중이 높음. 이는 정치적인 환경에 민감한 기업의 취약성으로 인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민간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개인모금을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표 V -6> 연도별 기업 및 개인 총모금액 변화 추이(2000~2009)

(단위: 억원,%)

구분	기업			개인			합계
	금액	비율	증감율	금액	비율	증감율	
1999	51	23.94		162	76.06		213
2000	286	56.08	460.78	224	43.92	38.27	510
2001	343	54.88	19.93	282	45.12	25.89	625
2002	549	53.93	60.06	469	46.07	66.31	1,018
2002추가	476	79.87		120	20.13		596
2003	843	61.00	53.55	539	39.00	14.93	1,382
2004	1,029	58.60	22.06	727	41.40	34.88	1,756
2005	1,447	67.40	40.62	700	32.60	-3.71	2,147
2006	1,457	66.93	0.69	720	33.07	2.86	2,177
2007	1,821	68.10	24.98	853	31.90	18.47	2,674
2008	1,763	65.22	-3.19	940	34.78	10.20	2,703
2009	1,958	58.99	11.06	1,361	41.01	44.79	3,319
합계	11,547	58.12		6,977	41.88		18,524
평균	1,050	57.73	69.06	634	42.27	25.29	1,684

* 주) 2002년 추가분은 합계 및 평균에 반영되지 않음.

* 자료: 2009 연간보고서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캠페인모금 vs. 연중모금 : 공동모금회는 연말에 이루어지는 캠페인에 대한 집중적인 모금 형태를 보임. 집중적인 모금 형태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위기상황대처의 상황에서 긍정적이지 않음. 연말캠페인의 성과는 유지하면서 연중모금의 확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표 V-7> 캠페인모금 vs. 연중모금 총모금액 변화 추이(2000~2009)

(단위: 백만원, %)

구분	현금			현물			합계	
	금액	비율	증감률	금액	비율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9	4,116	24.56		12,645	75.44		16,761	
2000	19,030	55.72	362.34	15,121	44.28	19.58	34,151	103.75
2001	21,722	54.78	14.15	17,929	45.22	18.57	39,651	16.1
2002	34,346	54.29	58.12	28,914	45.71	61.27	63,260	59.54
2003	54,719	61.00	59.32	34,981	39.00	20.98	89,700	41.8
2004	60,508	63.76	10.58	34,396	36.24	-1.67	97,904	5.8
2005	78,958	66.60	30.49	39,598	33.40	15.12	118,556	24.92
2006	115,097	72.89	45.77	42,817	27.11	8.13	157,914	33.2
2007	118,898	73.07	3.3	43,715	26.93	2.33	162,713	3.04
2008	141,656	71.35	19.14	56,869	28.65	29.79	198,525	22.01
2009	146,796	70.03	3.63	62,828	29.97	10.48	209,624	5.59
합계	795,846	67.12		389,913	32.88		1,185,759	
평균	72,349,264	60.73	60.68	35,446.64	39.27	18.46	107,796.27	31.58

* 자료: 2009 연간보고서, 2001~2009 각 연도별 희망캠페인 보고서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민간자원 확보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 민간자원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모금을 함께 하는 파트너십 구축과 파트너십의 다양성이 중요함. 공동모금회는 언론, 정부, 사회복지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연합모금을 실시함.

- 언론과의 파트너십 구축의 정도는 방송사와 신문사를 통해 모금된 총량과 변화로 볼 수 있음. 이에 희망캠페인 기간의 방송사와 신문사의 모금액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매년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표 V -8> 희망캠페인 언론사 모금액 추이(2000~2009)

(단위: 백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캠페인	34,151	39,651	63,259	89,700	94,904	118,557	157,914	162,713	198,525	209,624	1,168,998
언론사모 금액	5,367	3,574	2,387	17,164	17,737	16,261	22,134	19,786	20,748	24,917	150,075
비율	15.72	9.01	3.77	19.13	18.69	13.72	14.02	12.16	10.45	11.89	12.86
증감률		-33.41	-33.21	619.06	3.34	-8.32	36.12	-10.61	4.86	20.09	66.44

* 주1) 합계 부분의 비율과 증감률은 각각 평균비율과 평균증감률을 의미함.

* 주2) 언론사를 통한 모금액 산정의 경우, 연중 모금액 중 언론사를 통로로 하여 발생한 모금액을 산정한 내부자료의 부재로 부득이하게 희망캠페인 기간 내의 언론사를 통한 모금액을 파트너십 지표로 제시하였음.

* 자료: 각 연도별 희망캠페인 보고서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정부와의 파트너십은 구축은 공무원들의 기부 독려, 정부를 통한 시민들의 공동모금회 나눔 참여 독려, 모금과 관련된 제도적 지원등으로 볼 수 있음. 공무원들의 기부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개인 모금액에서 연 평균 14.5%정도로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제도적 지원의 측면에서 보면 공동모금회는 법정모금단체라는 특수한 지위를 통해 모금을 성장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음.

<표 V-9> 개인모금액 중 정부관련 단체들의 기부액 추이(1999~2009)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2 추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개인	162	224	282	469	120	539	727	700	720	853	940	1,361	7,097
공공/ 산하	34	36	44	61	6	69	101	79	87	122	109	236	984
비율	30.99	16.07	15.60	13.01	-	12.80	13.89	11.29	12.08	14.30	11.60	17.34	14.45
증감률		5.88	22.22	38.64	-	13.11	46.38	-21.78	10.13	40.23	-10.66	116.51	26.07

* 주) 합계 부분의 비율과 증감률은 각각 평균비율과 평균증감률을 의미함.

* 자료: 2010 통계연감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나눔문화 확산

○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 증진 및 나눔에 대한 인식 확산

- 국민들의 나눔 참여 증진을 살펴보기 위해 개인기부금액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개인 기부금은 연평균 25%정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2009년 기준 64만 명 정도의 개인이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남.

<표 V-10> 전체 모금액 대비 개인기부금액의 변화 추이(1999~2009)

(단위: 백만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2 추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개인	162	224	282	469	120	539	727	700	720	853	940	1,360	7,096
증감 률		38.27	25.89	66.31		15.05	34.99	-3.88	2.96	18.39	10.19	44.69	25.29

* 주) 합계 부분의 증감률을 평균증감률을 의미함.

* 자료: 2009 연간보고서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기업의 나눔 참여 증진 및 나눔에 대한 인식 확산

- 기업의 나눔 참여 증진을 알아보기 위해 기업 기부금 총액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기업의 기부액은 연평균 58%정도의 성장을 보이며, 주요 30대기업의 절반가량이 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에 참여하고 있음.

<표 V -11> 기업 기부금 총액 변화 추이(1999~2009)

(단위: 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2 추가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기업 모금액	51	286	343	549	476	843	1,029	1,447	1,457	1,821	1,763	1,958	11,547
증감률		460.78	19.93	60.06		53.55	22.06	40.62	0.69	24.98	-3.19	11.06	57.73

* 주) 합계 부분의 증감률을 평균증감률을 의미함.

* 자료: 2009 연간보고서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모금의 효율성 및 전문성 증진

○ 모금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및 접근성·용이성 증진

- 공동모금제도에 기반한 모금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진을 알아보기 위해 모금사업비 대비 실제모금액 비율로 모금일원화를 평가해 본 결과, 전체모금액 대비 모금사업비의 비율은 약 1%내외로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있음.

<표 V-12> 모금사업비 대비 모금액의 비율(1999~2009)

(단위:백만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합계
중앙	모금액	116,401	113,185	122,837	126,367	478,790
	모금사업비	365	422	418	540	1,745
	모금액대비 사업비	0.31%	0.37%	0.34%	0.43%	0.36%
지회	모금액	98,296	104,560	117,527	139,462	459,845
	모금사업비총액	1,581	1,757	1,820	2,095	7,253
	지회평균	9.9	110	114	131	364.9
	모금액대비 사업비	1.61%	1.68%	1.55%	1.50%	1.59%
합계	모금액	214,697	217,745	240,364	265,829	938,635
	모금사업비	1,946	2,179	2,238	2,635	8,998
	모금액대비 사업비	0.91%	1.00%	0.93%	0.99%	0.96%

* 주) 합계부분의 모금액 대비 사업비 및 증감률은 각각 평균비율과 평균증감률을 의미함

* 자료: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기부 접근성 및 용이성 증진을 알아보기 위해 모금기관 이미지 평가를 살펴 본 결과 모금기관 이미지 평가에서 주요 항목에서 모두 공동모금회가 1위를 차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공동모금회가 다양한 기부방법을 가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모금기관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V-13> 모금기관 이미지평가

(단위:%)

이미지	1순위		2순위		3순위	
	기관명	비율	기관명	비율	기관명	비율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금기관	공동모금회	36.0	대한적십자사	31.7	구세군	20.2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공동모금회	32.2	구세군	20.2	대한적십자사	16.7
다양한 계층을 지원	공동모금회	32.7	대한적십자사	21.3	유니세프	13.5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공동모금회	39.5	아름다운재단	17.0	구세군	12.8
전문성있는	공동모금회	25.7	대한적십자사	24.7	유니세프	22.3
기금운용이 투명한	공동모금회	23.2	유니세프	18.0	구세군	17.8

* 자료: 자선기금 모금단체 인지도 및 이미지 조사 결과보고서(2009)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4. 배분의 사회적 성과

□ 복지대상자 문제해결

○ 지원규모 및 특성

- 복지대상별 구성비를 보면 저소득층 지원에 가장 많은 부분이 할애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지역사회등의 차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사업대상의 범위에서 보면 해외동포, 실직자, 구직자, 국내거주 외국인등 다양화·세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음.

<표 V-14> 복지대상별 구성비 (2007~2009)

(단위: 백만원,%)

구분	2007		2008		2009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아동·청소년	43,032	19.3	49,753	19.9	61,224	21.1
장애인	27,188	12.2	27,800	11.1	25,240	8.7
노인	26,823	12.0	29,018	11.6	33,067	11.4
여성	7,734	3.5	5,884	2.4	7,415	2.6
가족	3,128	1.4	2,193	0.9	2,993	1.0
노숙인	1,207	0.5	2,741	1.1	2,905	1.0
실직·구직자	126	0.06	233	0.09	8,988	3.1
국내거주 외국인	2,020	0.9	3,383	1.4	3,918	1.4
해외동포·외국인	5,740	2.6	7,204	2.9	6,612	2.3
지역사회	34,164	15.3	37,234	14.7	28,416	9.8
저소득층	60,662	27.2	70,005	27.9	95,508	31.9
기타	11,196	5.0	14,700	5.9	16,847	5.8
합계	223,025		250,172		209,137	

* 자료: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사업내용의 구성비를 보면 생계지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건강, 주거, 교육순으로 배분된 것을 알 수 있음. 이는 사업내용에서 생계, 의료건강지원 등의 일회성 배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V-15> 사업내용의 구성비율 (2006~2009)

(단위: %)

사업내용	2006	2007	2008	2009
생계	46	87.88	47	44
의료·건강	17	4.41	23	11
교육	8	0.83	9	8
주거	9	3.26	6	9
지역사회개발	4	0.15	4	6
보호	4	0.42	5	5
심리정서	2	0.08	2	2
자활	2	0.06	2	5
인식개선·예방	3	0.06	3	2
문화여가	4	-	4	3
조사연구	0.3	0.07	1	-
기타	1	0.93	5	5
배분액총액	183,723백만원	223,025백만원	250,288백만원	290,137백만원

* 자료: 2006~2009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간보고서 수정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지역복지증진

○ 지역사회 발굴 및 동원

- 지역사회 발굴 및 동원은 배분사업 수행과정에서 지역사회안의 인적·물적 자원을 사용하여 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높였는지의 차원으로, 이는 배분의 사회적 성과를 알 수 있는 부분임. 물적자원보다는 인적자원 동원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6>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동원

(단위: 건수,%)

구분	인적자원			물적자원		
	전체 사업수	동원건수	비율	전체 사업수	동원건수	비율
2007	68	39	57.4	68	12	17.6
2008	91	52	57.1	91	29	31.9
2009	73	55	75.3	73	31	42.5
합계	232	146	62.7	232	72	30.9

* 자료: 2006~2009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내용분석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증진

-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증진은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들 간의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었거나 기관간 공동사업이나 협력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정도를 의미함. 배분사업 중 지역중심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성격의 사업은 전체 22.8%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7> 배분사업을 통한 네트워크 증진

(단위: 건수,%)

구분	전체 사업수	네트워크 성격의 사업수	비율
2007	68	15	22.1
2008	91	15	16.5
2009	73	23	31.5
합계	233	53	22.8

* 자료: 2006~2009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내용분석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사각지역해소

-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모금회의 배분사업은 정부의 영역에서 배제된 곳을 지원하여 공공부문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인 사각지역의 해소에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함. 2007년부터 2009년 까지 3년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배분사업을 살펴보면 전체 배분사업 중 18.5%로 그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V-18>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배분사업

(단위: 건수,%)

구분	2007			2008			2009			합계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빈도	총 건수	비율
사각지대해소 관련사업	68	13	19.1	91	16	18.0	73	14	19.4	233	43	18.5

* 자료: 2006~2009년도 사업결과보고서 내용분석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 기관 및 종사자 역량강화

- 배분사업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의 종사자 교육을 연 1만 명 정도로 나타남. 이런 교육실적은 사업수행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복지 종사자의 역량강화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음.

<표 V-19> 공동모금회 사업수행기관 교육실적 (2007~2009)

(단위: 회,명)

구분	2007		2008		2009	
	횟수	참석자수	횟수	참석자수	횟수	참석자수
서울	12	966	7	349	51	1,827
부산	6	638	9	703	6	489
대구	1	314	2	426	15	-
인천	7	445	4	545	14	313
광주	3	278	4	460	5	515
대전	6	930	11	942	12	1,105
울산	3	397	5	356	6	224
경기	6	683	7	688	15	578
강원	3	189	6	635	5	691
충북	-	-	6	586	10	642
충남	6	522	8	719	11	559
전북	19	1,709	18	1,432	7	1,148
전남	5	963	7	856	11	1,235
경북	4	509	5	646	7	1,010
경남	9	648	8	583	7	506
제주	3	314	3	379	6	431
총계	93	9,191	110	9,926	182	10,842
교육당 참여자수	약 102명		약 93명		약 65명	

* 자료: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복지주체 확대 및 다양화

- 공동모금회의 배분을 통해 다양한 복지주체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사업수행기관현황을 보면 복지관이 가장 많은 배분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생활시설도 상당부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일차현장이 아닌 시민단체, 문화단체, 의료기관등도 배분사업의 수행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V -20> 사업수행기관 현황(2007~2009)

구분	2007		2008		2009		총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복지관	28	41.2	17	18.7	22	30.1	67	29.2
생활시설	14	20.6	17	18.7	13	17.8	44	18.9
아동가족관련	6	8.8	9	9.9	4	5.5	19	8.2
협의회,법인 등	7	10.3	20	22.0	6	8.2	33	14.2
시민문화교육단체	7	10.3	21	23.1	17	23.3	45	19.3
기타	6	8.8	7	7.7	11	15.1	24	10.3
소계	68	100.0	91	100.0	73	100.0	232	100.0

* 주1)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포함

* 주2) 생활시설: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생활시설을 포함

* 주3) 아동가족관련: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등을 포함

* 자료: 2007~2009 사업결과보고서 내용분석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 배분시스템 향상

○ 배분사업의 투명성

- 배분사업의 과정투명성과 결과 투명성의 부분에서 보면 모금회 관련법과 정관에 기반하여 배분과정과 배분결과에 대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이는 공식적이고 절차적 투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V -21> 배분사업의 과정투명성

공고일자	내용	매체	자료출처
2010년 7월 21일	2011년 배분기준 공고	일간지9개, 전문지7개, 총 16개 매체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2009년 6월말	2010년 배분기준 공고	공고확인	연구진 검색
2008년 6월말	2009년 배분기준 공고	공고확인	연구진 검색
2007년 5월 31일	2008년 배분기준 공고	14개 일간지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2006년 5월 30일	2007년 배분기준 공고	8개 일간지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2005년 5월 31일	2006년 배분기준 공고	9개 일간지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표 V -22> 배분사업의 결과투명성

공고일자	내용	매체
2010년 2월 26일	2009년 모금 및 배분명세 공고	중앙일간지 7개, 경제지 5개
2009년 2월 27일	2008년 모금 및 배분명세 공고	일간지 및 전문지
2007년 1월 31일	2006년 모금 및 배분명세 공고	9개 일간지
2006년 1월 31일	2005년 모금 및 배분명세 공고	8개 신문사

* 자료: 공동모금회 내부자료

* 출처: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2010)

제2절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1. 재단소개

□ 아름다운재단은 2000년 한국사회에 기부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고 설립되었음. 재단법인이며 공익재단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아름다운 재단의 가치와 지향

○ 아름다운 재단의 가치

- 미션 :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 비전 : 행동하는 시민기부문화의 확산자

공익활동의 지속가능모델 인큐베이팅

- 핵심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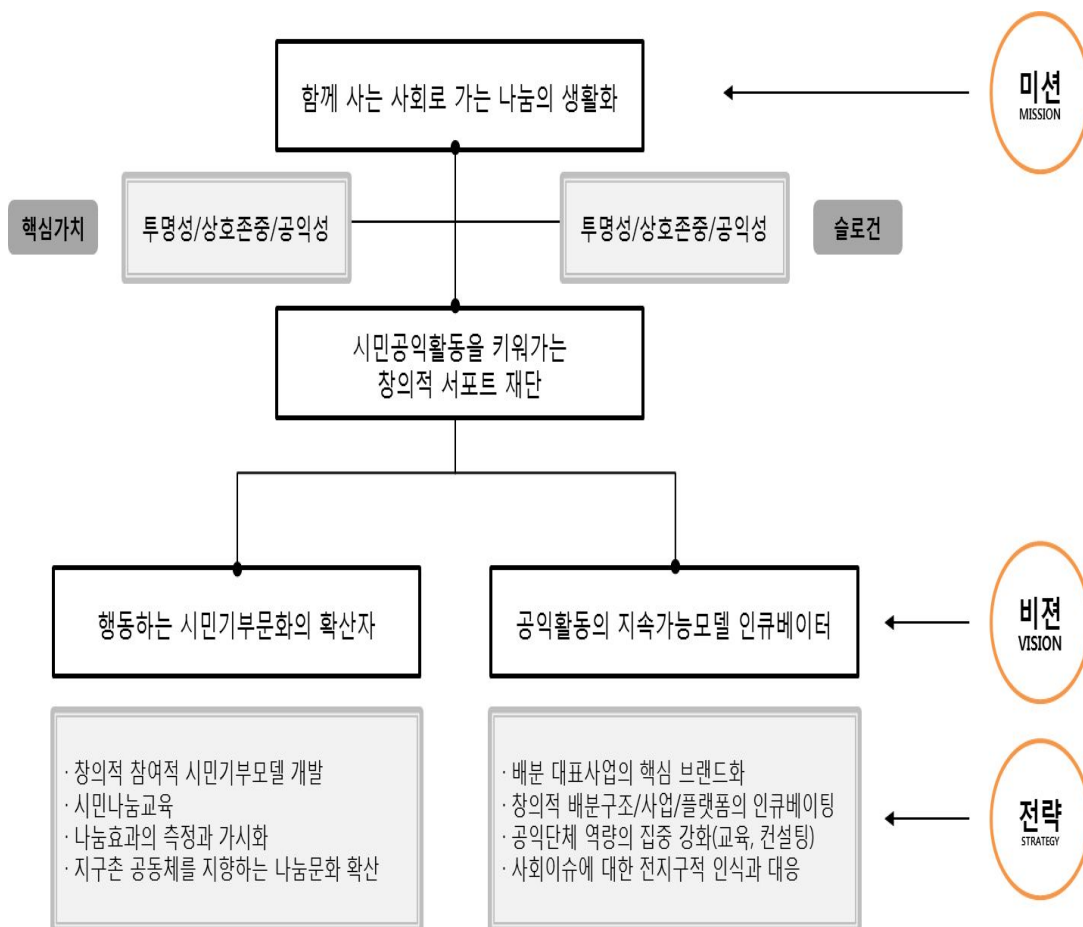
· 투명성 : 모금과 배분, 조직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시, 월례 보고서 발간을 하며, 월별 수입지출장부와 직원 급여 공개함. 또한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투명한 절차와 의사소통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배분위원회 운영, 임직원 윤리헌장, 배분헌장, 기부자헌장을 마련하고, 기부금의 배분 절차와 결과에 대한 자료 제공과 보고를 하며, 타 비영리 단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교육, 컨설팅 활동등의 활동을 함.

· 공익성 : 기부자, 수혜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움 영역 개발을 위해 노력하며,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제의 근본을 찾는 환경 진단과 개선 노력을 함. 사회문제의 구조를 바꾸는 창의적 사업의 개발과 지원, 시민의 인식과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캠페인 전문성

- 상호존중 : 기부자의 삶의 연대기 기부동기, 연령,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다양한 기부방법 제공과 맞춤형 기부 컨설팅 기부컨설턴트, 기부컨설팅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아름다운 재단의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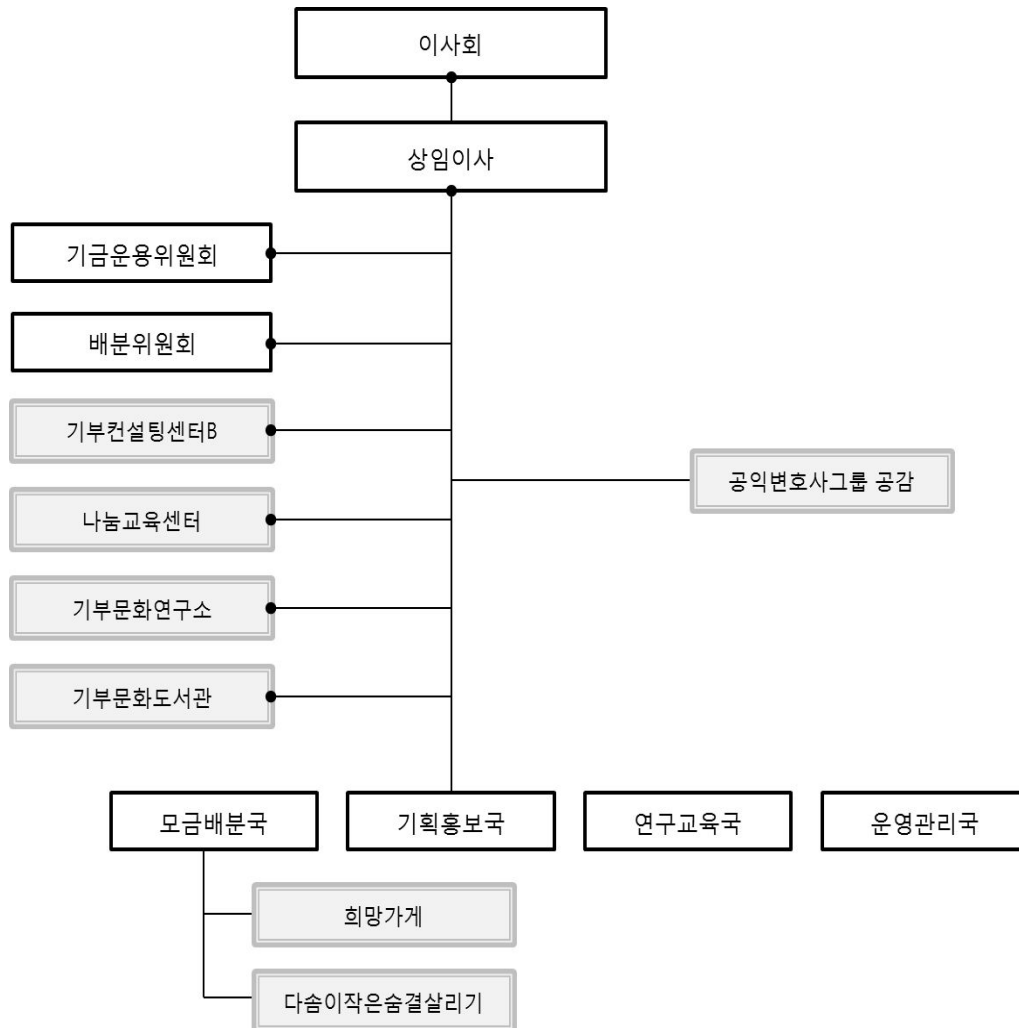
[그림 V-2] 아름다운재단의 지향



출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 조직구조

[그림 V-3] 아름다운재단 조직구조



출처: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 아름다운재단의 임원구성은 이사장1인, 이사장을 포함하여 이사 9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2명을 둘 수 있음.
- 재단의 사업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실무적 집행, 모든 문서의 기록과 보존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있음.

2. 아름다운재단의 사업

☐ 모금

○ 1%나눔: 아름다운재단의 1%나눔 캠페인은 기부자 개인의 다양한 분야의 1%를 기부받는 모금 방식으로 일반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모금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생활속 1% 나눔 : 월급 1%, 연봉 1%, 용돈 1%, 나눔의 가게등
- 재능과 전문성 1% 나눔 : 문화예술인, 공연자, 작가, 디자이너 등 전문가들의 지식과 능력 나눔
- 기부선물 : 축하하고 싶은 날, 의미있는 날을 나눔으로 특별하게 기념
- 시민주도형 1%나눔 : 시민모금가 등 일상에서 스스로 기획하고 모금 하는, 행동하는 기부자들이 만드는 나눔
- 이슈캠페인 : 사회문제의 여론화, 나눔참여를 통한 제도와 인식을 바꾸는 캠페인을 시행함.

○ 기부컨설팅 : 아름다운 재단의 지식과 경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기부 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부자들과 기업에게 각각 기부의 방법과 분야를 제시하여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모금방법이라 할 수 있음.

- 맞춤형기금
- 기업사회공헌 프로그램
- 유산나눔

□ 배분

○ 공익과 대안

- 공익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배분사업인 '공익과대안'은 공모를 통해 시민단체, 풀뿌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공익과대안' 배분사업은 1%기금을 기반으로 하여 시민들의 소액기부를 활용한 사업으로 시민이 공익단체를 위하여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표 V-23> 2010 공익과 대안 사업 세부내역

(단위:원)

사업	배분금액
2010 공익단체를 위한 디자인 나눔사업	10,684,200
2010 공익단체를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 지원사업	48,520,669
2010 공익단체 출판 지원사업	18,585,280
2010 공익단체 기자재 지원사업	39,049,604
2010 변화의 시나리오(대안적 공익활동 지원사업)	610,670,502
2010 개미스폰서	59,235,415
2010 마을작은도서관 지원사업	78,105,941
2010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78,978,595
2010 공익단체활동가자녀보육비 지원사업	88,402,900
2010 환경활동가자녀교육비 지원사업	34,358,200
2010 공익단체활동가건강권 지원사업	382,000
2010 공익단체활동가교육과재충전 지원사업	40,859,017
2010 아름다운사람들 공익시상	19,800,960
신한의인후원기금 시상지원	2,499,151
2010 공익과대안 특별지원사업	19,852,751
공익변호사 공감 사업비	510,608,748
아름다운재단 10주년 기념사업 -이빠진 동그라미 특별지원	10,411,880

아름다운재단 10주년 기념사업	219,495,516
계	1,889,602,329

출처: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0)

○ 빈곤과 차별

- 빈곤과 차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에는 빈곤과 차별 영역에서 장애 아동·청소년, 한부모 여성가장, 홀로 사는 어르신, 이주민등의 5개 배분사업을 진행하였음.

<표 V-24> 2010 빈곤과차별 사업 세부내역

(단위:원)

사업	배분금액
2010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58,132,20
2010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국배달 지원사업	187,070,000
2010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192,360,750
2010 한부모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172,110,688
2010 국내거주이주민 모국어책 지원사업	48,351,658
빛한줄기 지원사업	74,600
장애아동재활을 위한 보톡스치료지원	-2,095,330
장애인 선거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10,552,867
2010 빈곤과차별 특별지원사업	4,819,400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사업	888,507,403
2010 빈곤과차별 기타지원사업	587,400
계	1,539,366,322

출처: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0)

○ 미래세대 장학사업

- 장학사업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위기를 겪는 아동·청소년을 찾아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문화체험의 기회부터, 누군가 시켜서가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관심사를 토대로 나누며 자발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회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표 V -25> 2010 미래세대 장학사업 세부내역

(단위:원)

사업	배분금액
2010 아동·청소년 스포츠활동 지원사업	68,007,340
2010 중학생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31,816,700
2010 대전지역 이공계 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4,177,736
2010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48,658,896
2010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57,277,949
2010 교통사고유자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77,601,000
2010 교통사고유자녀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33,995,296
2010 보육시설 퇴소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43,579,522
2010 실직가정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150,173,954
2010 저소득가정 대학생 단지 어학연수 지원사업	19,005,668
2010 소년소녀가장 주거지원사업	149,865,956
2010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22,915,018
2010 아동·청소년 여행지원사업	74,829,074
2010 아동·청소년 문화체험지원사업	49,030,177

2010 아동청소년 소원이루기 지원사업	69,702,725
2010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	73,682,065
2010 미래세대 특별지원사업	1,917,000
2010 미래세대 기타지원사업	74,800
계	1,186,310,876

출처: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0)

○ 나눔문화

- 나눔문화가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기부와 관련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조사사업, 기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출판사업을 진행함. 또한 한국의 기부문화를 소개하고 해외 기부이슈와 선진 지식을 배우는 국제협력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음. 아름다운재단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는 나눔문화사업은 모금과 배분도 중요하지만 기부문화의 질적인 성장에 많은 힘을 쏟고 있음.

<표 V-26> 2010 나눔문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원)

사업	배분금액
비영리역량강화사업	9,315,128
기부문화총서발간	12,695,019
나눔지식아카이브	3,318,304
류무종기부문화도서관	1,332,193
기빙코리아2010-기부문화심포지움	37,396,419
기획연구-계획기부 도입을 위한 연구	53,558,166

기부문화연구소 운영	1,672,770
나눔교육캠페인	75,515,642
상속문화개선과 확산을 위한 사업 <아름다운이별학교>	2,468,210
계	197,271,851

출처: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0)

3. 아름다운재단의 재정

☐ 연도별 수입·지출 현황

<표 V-27> 2000~ 2010 연도별 수입·지출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입	143	1,349	2,163	12,376	9,295	11,018	10,291	13,861	12,905	11,224	8,178
지출		131	469	924	2,413	4,345	6,941	7,995	9,829	10,487	6,788

출처: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0) 자료를 재구성 하였음.

☐ 2010년 수입현황

<표 V-28> 2010 수입현황

(단위:원)

	구분	영역별	금액
기부금 수입	기금수입	공인과대안	2,116,689,590
		나눔문화	212,280,291
		미래세대	2,255,419,038
		빈곤과차별	1,898,316,318
		기타나눔	1,136,191,023

	운영후원금	운영기금	415,176,770
	현물기부금	현물기부	143,997,225
		소계	8,178,070,255
기부금외 부수입	기금운용수입		1,280,731,200
	보유주식처분이익		329,258,900
	수익사업수입		48,548,344
	기타수입		49,793,809
		소계	1,708,331,253
합계			9,886,401,508

출처: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0)

□ 2010년 지출현황

<표 V -29> 2010 지출현황

(단위:원)

사업비	구분	영역별	금액
	기금지출	배분사업비	6,680,808,293
		배분사업 관리비	118,602,317
		수익사업비용	43,604,016
		현물지원비	107,343,570
	소계		6,950,358,196
운영비	인건비		979,515,068
	관리비		614,525,485
	소계		1,621,040,553
지출총계			8,571,398,749

출처: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0)

□ 2010년 영역별 배분사업비 현황

<표 V -30> 2010 영역별 사업비 현황

(단위:원)

구분	2010	영역비율
빈곤과차별	1,539,366,332	23.0%
공익과대안	1,889,602,329	28.3%
나눔문화	197,271,851	3.0%
기타나눔	1,868,256,915	28.0%
미래세대	1,187,310,876	17.8%
합계	6,680,808,293	100%

출처: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0)

VI. 모금조직의 브랜드전략

VI. 모금조직의 브랜드전략

- ☐ 문화예술분야 모금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모금 활성화를 위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함.
 - 이미지 구축을 하기 위해 모금조직의 목적, 기능, 특성을 반영한 모금조직 브랜드전략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 모금조직에서는 기부자와의 관계가 중요함. 브랜드 전략을 통한 강력한 브랜드 구축은 기부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짐.
- ☐ 브랜드명과 심볼은 브랜드의 가치를 담아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브랜드명은 브랜드의 개념을 표현하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그 브랜드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기부자들에게 보여주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브랜드를 나타내는 심볼을 브랜드의 차별화와 함께 인지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음.
- ☐ 이에 브랜드명과 심볼을 개발하여 모금을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사례를 검토해 보려고 함.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사랑의 열매

- ☐ 소개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이 어려운 중소규모의 취약한 복지기관과 시설을 대신해 공동으로 모금하여, 이들 기관과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전문 모금 및 배분기관임.

[그림 VI-1] 공동모금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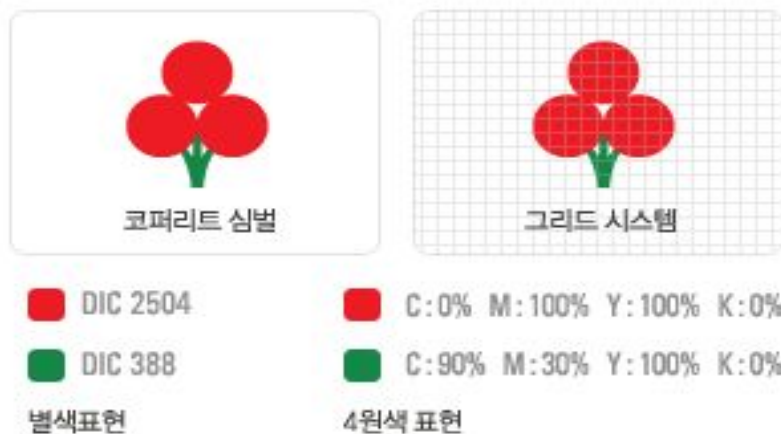


-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정신을 담고 있는 상징이며 심볼이라고 할 수 있음 .
- 세 개의 빨간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상징하며, 열매의 빨간색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뜻을 가지고 있음.

□ Corporate Symbol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전체 이미지를 상징하는 심볼을 C.I.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며, 시각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역할을 함.
- Corporate Symbol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매개체 역할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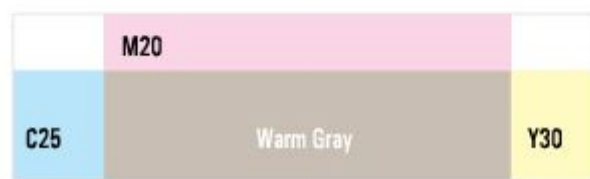
[그림 VI-2] 공동모금회 Corporate Symbol



□ Color

- Mail color는 C.I 시스템의 중요한 3요소 중 하나로서 심벌마크의 표시색으로부터 인쇄문 광고물 등 각종 매체에 폭넓게 사용되어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임.

[그림 VI-3] 공동모금회 color



□ Logo Type

- 로고타입은 다른 C.I. 요소와의 조화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제정한 독자적인 문자체임. 로고타입은 심벌과 함께 조합하여 사용하거나 독자적으로 활용되며 임의로 글자의 비례, 간격, 형태를 변경할 수 없음. Christiana Mediom 체를 영문 로고타입으로 사용하며 규정된 크기와 비례를 준수하여야 함.

[그림 VI-4] 공동모금회 Logo Type



□ 일본 - 공동모금회 “빨간깃털 공동모금”

- 일본의 공동모금회는 빨간깃털 공동모금이라 불리고 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은 브랜드 심볼을 사용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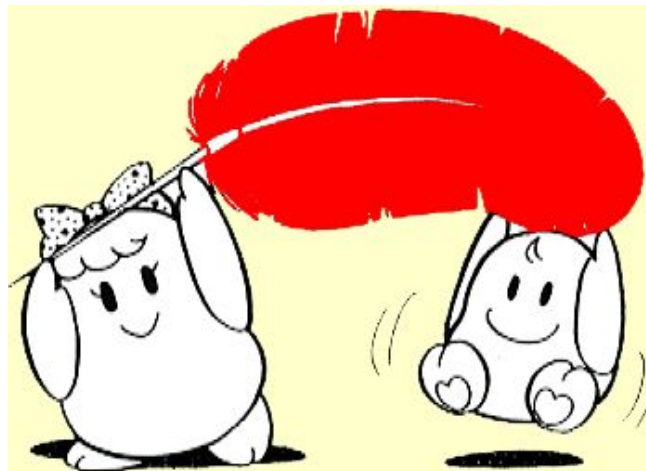
[그림 VI-5] 일본 공동모금회 1



[그림 VI-6] 일본 공동모금회 2



[그림 VI-7] 일본 공동모금회 3



□ 미국 - 유나이티드 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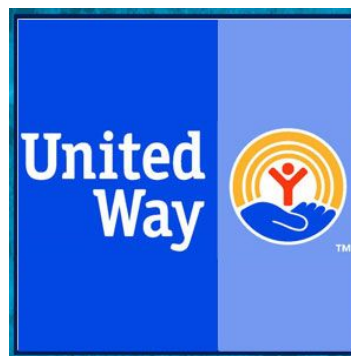
[그림 VI-8]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1



[그림 VI-9]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2



[그림 VI-10]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3



[그림 VI-11] 미국 유나이티드 웨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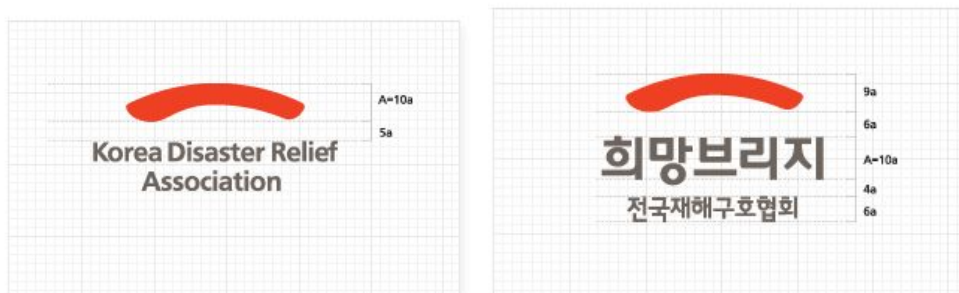
2. 한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리지”

☐ 소개

- 한국재해구호협회는 갑작스러운 재해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돕기 위해 방송사와 신문사, 사회단체가 함께 설립한 민간봉사단체로 재해의연금품 모집과 배분, 구호물품 비축 및 지원, 자원봉사등 재해구호활동, 재해구조에 대한 연구와 조사활동등의 사업등 하고 있음.

☐ 한국재해구호협회는 희망브리지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음.

[그림 VI-12] 한국재해구호협회 브랜드



☐ 희망브리지의 의미

- “희망브리지”는 나눔을 통해 의망으로 가는 사랑의 가교를 뜻함
-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웃사람을 전달해 주는 “가장 아름다운 다리”
- 나눔과 사랑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가장 튼튼한 다리”
- 재난으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신속하게 달려가는 “가장 빠른다리”

□ CI “희망곡선”

- 희망곡선은 다리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다리는 서로 떨어진 것을 이어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 재난으로 고통 받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물리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뿐 아니라 따뜻한 위로의 마음까지 전달하겠다는 의미를 상징함.

□ color

- 붉은 색은 태양, 젊음, 속도, 힘, 심장과 마음을 상징하는 색깔이며 사랑과 열정의 가치를 표현함. 희망브리지의 붉은색은 이웃사랑의 따뜻한 마음과 구호활동에 대한 지치지 않은 열정을 표현하고 있음. 또한 보다 빠르게, 강하게, 적극적으로 구호활동을 펼치는 ‘희망브리지’의 정열적인 의지를 표현함.

[그림 VI-13] 한국재해구호협회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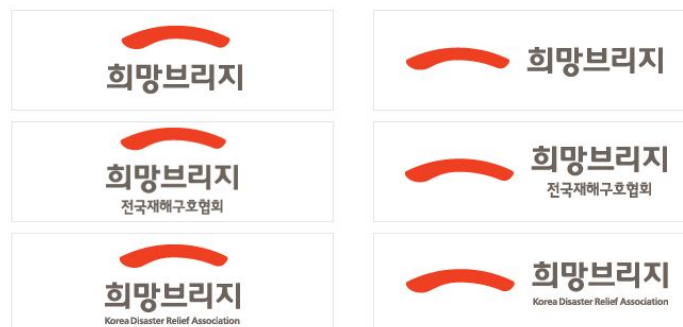
☐ Logo Type

[그림 VI-14] 한국재해구호협회 Logo Type



☐ 시그니처 조합

[그림 VI-15] 한국재해구호협회 시그니처 조합



3. NHN - 해피빈

☐ 소개

- 해피빈은 2005년 NHN의 온라인 나눔 포털 사이트로 출발하여 2009년 NHN이 출연한 기업재단으로 사회공헌활동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VI-16] NHN 해피빈



- 해피빈에서는 자선단체가 '해피로그'라는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자는 해피로그를 통해 해피빈 쿵(1개당 100원)을 기부함으로써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 2012년 사이트 오픈 7년 만에 기부액 300억원을 돌파하면서 온라인을 통한 소액기부를 통해 기부문화에 확산에 기여하고 있음.

4. CJ - 도너스 캠프

☐ 소개

- 도너스 캠프는 CJ에서 설립한 기업재단으로 CJ의 사회공헌 활동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음.

[그림 VI-17] CJ 도너스캠프



- 소외된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온라인 기부 프로그램으로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농어촌분교등의 기관 실무자가 온라인을 통해 제안서를 올리면 기부자들이 원하는 제안서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CJ 도너스 캠프에서는 매칭펀드를 운영하여 기부자가 10000원을 기부하면 CJ나눔재단에서 10000원을 지원하여, 수혜자에게는 20000원을 전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5. SK - 행복도시락

□ 소개

- SK의 기업재단인 행복나눔재단은 사업별 브랜드로 행복도시락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그림 VI-18] SK 행복도시락



- 행복도시락은 결식이웃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실직자가 조리 및 배송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함. 또한 사회적기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서비스를 위탁받고, 병원과 지역단체등에 행복도시락을 납품함으로써 이윤을 남겨 다시 무료급식과 실직자 취업등의 사회적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

6. DAUM - 다음세대재단 유스보이스, 아이티캐너스, 올리볼리

☐ 소개

-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주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다음세대재단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현명한 사용을 통해 가치 있는 개인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살아갈 다음세대 창조라는 미션을 가지고 유스보이스, 아이티캐너스, 올리볼리등의 사업별 브랜드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음.

[그림 VI-19] 다음세대재단



☐ 유스보이스

- 청소년 미디어 창작지원 프로젝트인 유스보이스는 미디어의 현명한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다음세대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VI-20] 유스보이스



- 청소년 미디어 창작지원 프로그램인 사전제작지원, 청소년과 미디어를 주제로 청소년 미디어 컨퍼런스 개최, 유스보이스센터 운영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 아이티캐너스

- 아이티캐너스는 공익적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를 위해 IT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IT지원센터라고 할 수 있음.

[그림 VI-21] 아이티캐너스



- 비영리단체들의 미디어활용과 소통 능력향상을 위해 조직의 리더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와 워크샵을 지원하고 비영리미디어컨퍼런스 체인지온, 소리아카이프, e하루616, 기술지원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올리볼리

- 올리볼리는 다름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의 문화형성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는 세상, 다양한 모습으로 소통하여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VI-22] 올리볼리



-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접하기 어려웠던 나라들의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그림동화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사업과 문화다양성을 키워드로 하는 석사논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VII. 결론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제언

제1절 기부 활성화 방안

1.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부 활성화 방안은 아래의 2가지로 요약될 수 있음

- ☐ 기존 조직 내의 모금 기능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성 방안 제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부 조직인 예술나눔부 활용 방안 (장기적 비전)
 - 예술경영지원센터 활용 방안
- ☐ 새로운 공동모금 조직 설립을 통한 재원 조성 방안 제안
 - 특수법인의 설립 방안
 - 일반 공익법인의 설립 방안

2. 세부 전략 방안

- ☐ 기존 조직 내(內)의 모금 기능 활성화를 통한 재원 조성 방안
 - 기존 조직을 활용한 모금 기능 활성화 방안은 이미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통합하여 모금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별도의 모금기구를 새로 구성하는 안보다 다양한 측면의 효율적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
 - 기존 조직을 재정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조직을 구축할 수 있는 시간적 측면의 효율성,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야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기존 환경을 활용하는 공간적 측면의 절감 효과, 문화 예술 분야 조직 분위기에 익숙한 기존 인력 투입으로 인한 안정적인 조직

구성, 모금 기획 수립 시 현재 누적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간적·금전적 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이며 다음의 두 가지 조직을 활용할 수 있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의 예술나눔부의 모금 및 배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조직 구조를 재편성하는 방안

- 이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능의 대부분을 민간 부문의 예술단체 및 개인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의 기능은 현재의 직능단체 및 기관에 적극적 이관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나눔부의 현재 역량으로는 전국 단위의 모금활동 및 배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따라서 예술나눔부의 조직적 역량의 확충을 위한 조직 재편성은 필수적인 요소임.

·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중앙모금회는 6개본부, 10개 파트, 55명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로 4개의 실행위원회(기획, 모금, 배분, 홍보)가 구성되어 있음. 또한 각 지방에 16개의 지회가 유사한 규모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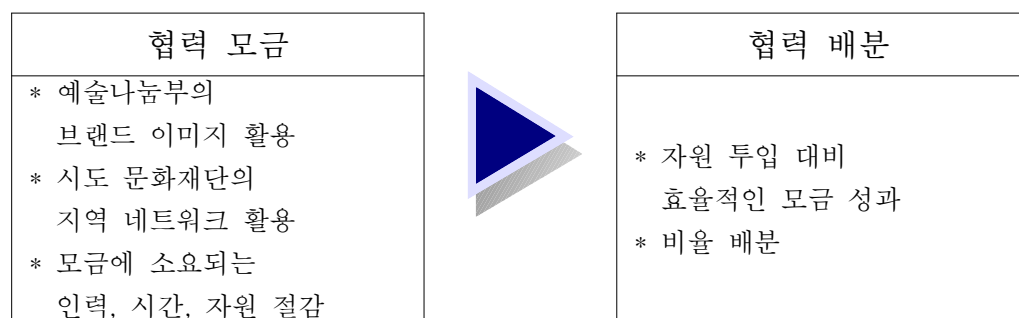
·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 기능을 담당할 경우, 전국적 재원 조성 및 배분을 위해 광역지자체별로 설립되어 있는 문화재단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며,

· 현재 문화사업본부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에 당해 사업기획 및 평가를 담당할 인력과 모금과 배분을 담당할 인력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함 (사업기획 및 평가 담당 각 2명 이상, 모금분과 5명 이상, 배분분과 5명 이상, 지자체와의 협력

및 liason역할 2명 이상 등 총 16명 이상의 인력이 이 기능에 신규 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모금과 배분을 담당할 권역별 지회(가칭)가 필요함.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각 시도의 문화재단과의 파트너 협력 체결로 협력모금 및 협력 배분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이용한 전국적인 ‘win-win’ 모금조직을 구성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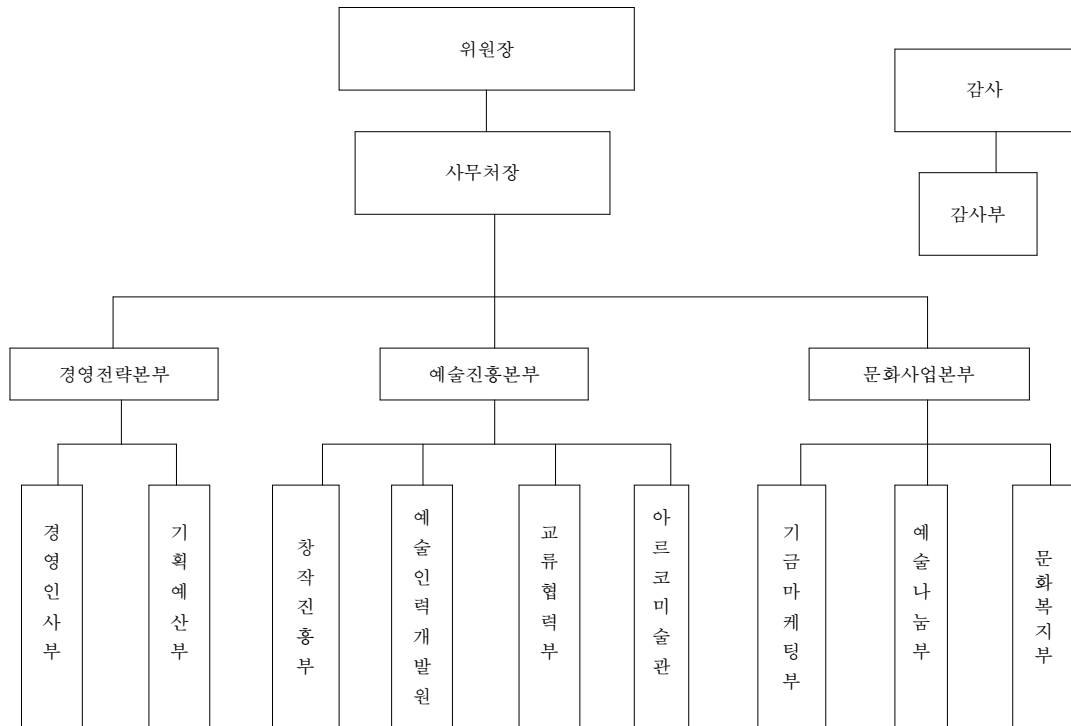


- 장기적 전략으로는 파트너로서의 각 지역조직이 독립법인으로 구성되어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모금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따라서 본부와의 파트너로서의 자격은 각시도 문화 재단으로 국한되지 않으며, 일차적으로 문화재단에 기회를 주되, 이를 포기하거나 거부할 경우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MOU 체결로 지역파트너들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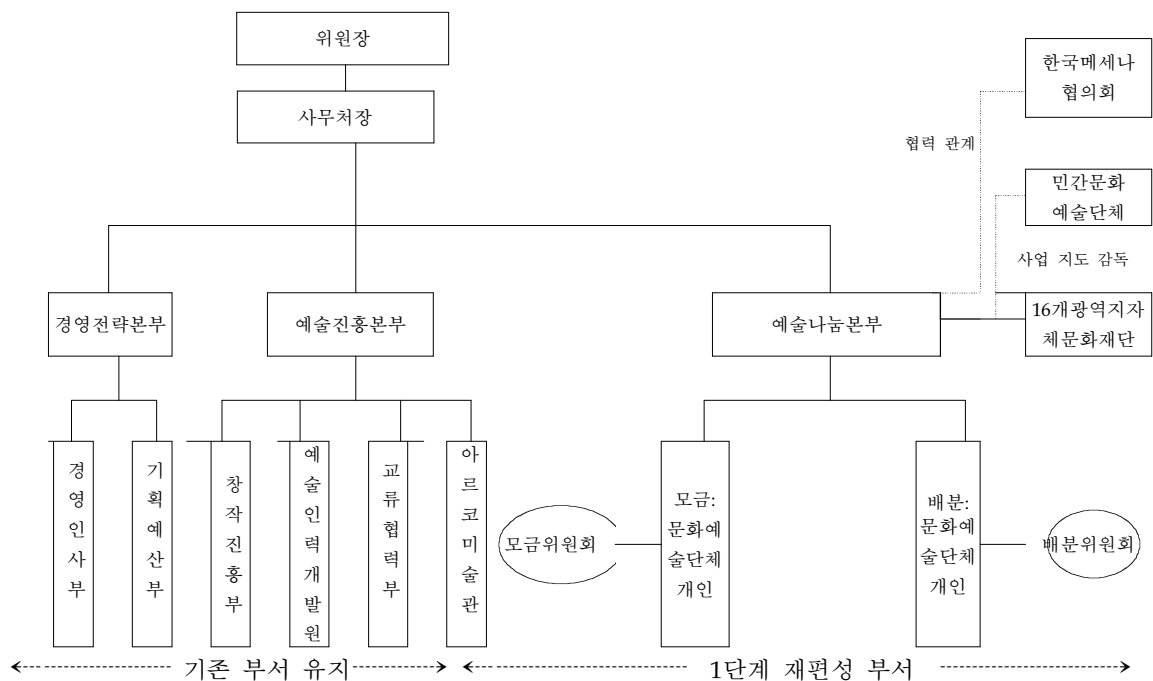
· 덧붙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방 이전이 예정되어 있어, 본부로서의 기능 수행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적 조직 구성 시 단계적 전략이 요구됨

- 조직적 재편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이 단계적으로 제안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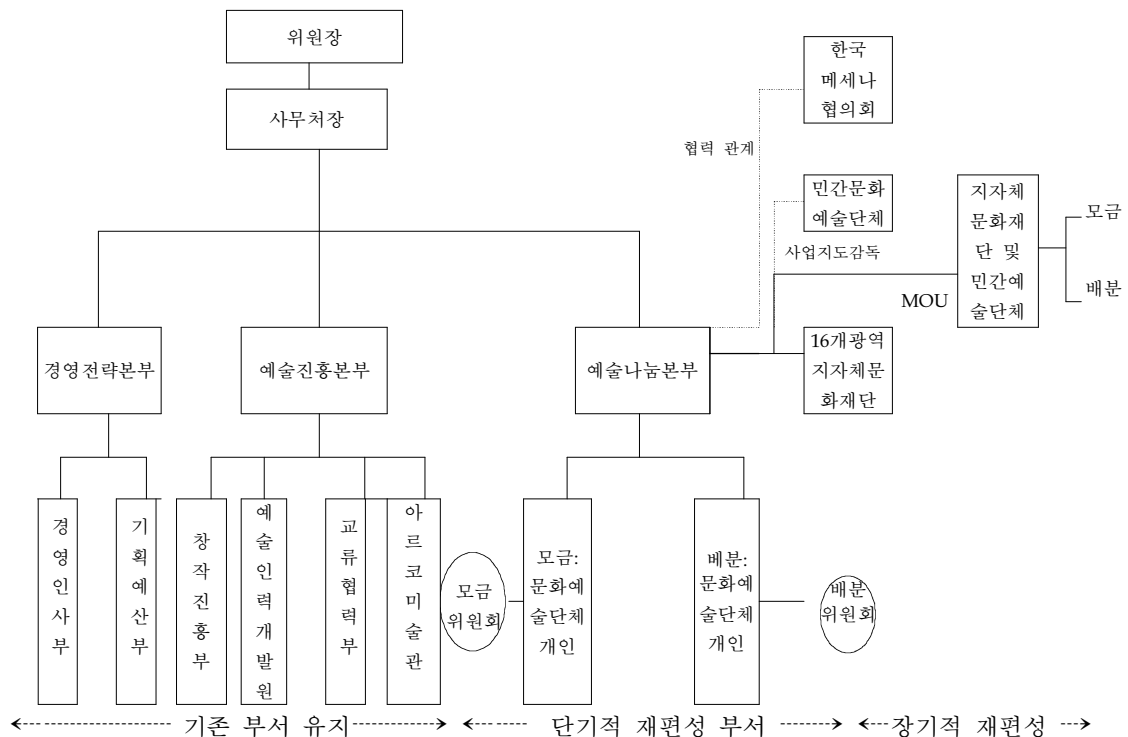
[그림VII-1]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그림VII-2] 단기적 재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그림VII-3] 장기적 재편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도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재편성 추진전략

-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실질적 참여 강화
- 문화예술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모금 및 배분 활동에 있어 민간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참여가 필수적임
- 모금 위원회 : 예술나눔본부 모금 기능에는 민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금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원현황 파악, 모금전략 수립, 기부자 관리, 홍보 등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부여
- 배분 위원회 : 모금된 재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배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 배분 portfolio 구성, 제안서 심사 및 배분결정권을 부여함.

- 민간 문화예술 단체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방안 수립

- 기부 문화 활성화의 핵심은 모금 및 배분 조직의 사회적 책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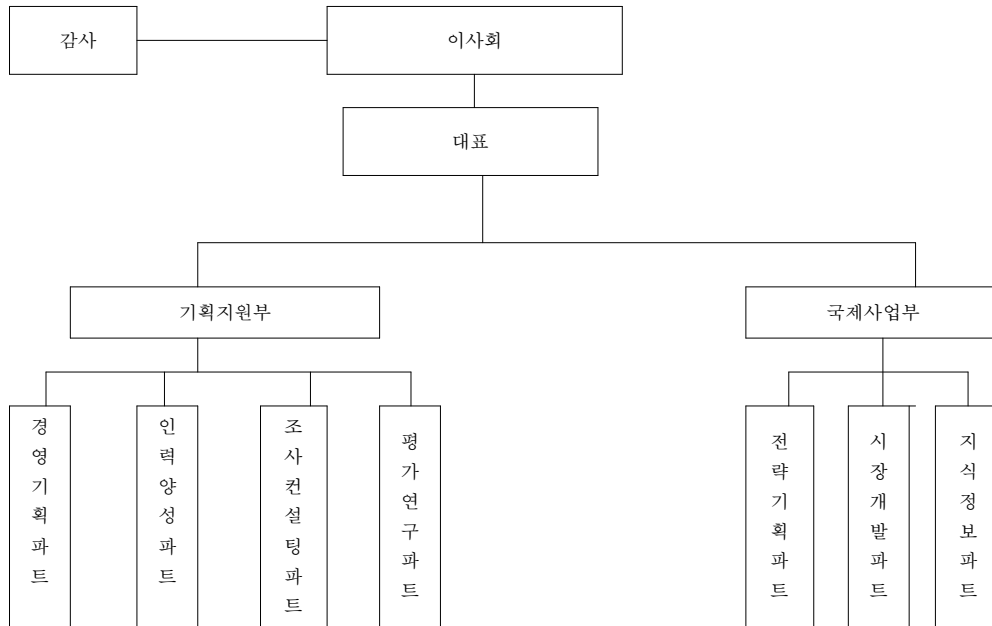
과 투명성에 있음.

- 민간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위원회”라는 조직의 성격이 이 기능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정책적 검토가 필요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변경 필요
 - 정관 제4조 (사업)에 문화예술지원을 위한 “민간 부문 재원 조성 및 배분” 관한 내용을 목적사업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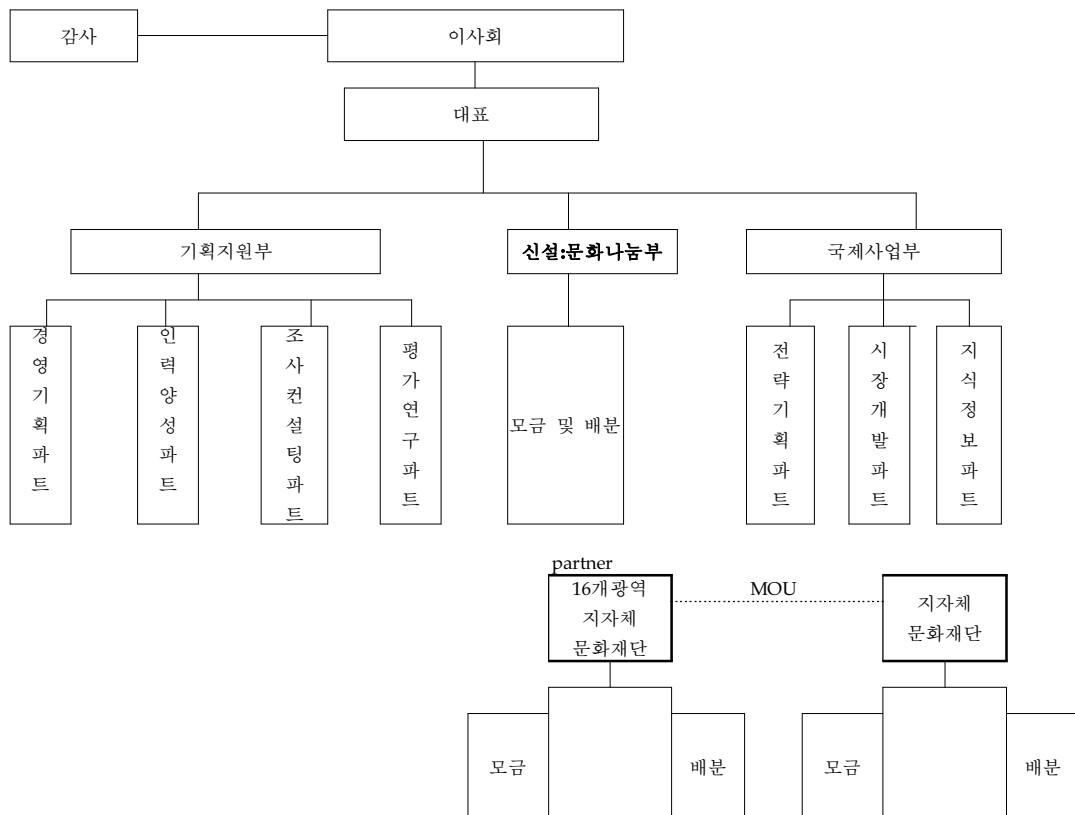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활용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예술기관 및 단체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 및 현장 종사자를 지원한다’임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조직임.
- 또한 센터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비하여 물리적 위치면에서 본부로서의 통제, 조정, 집중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유리함. 별도의 추가적 비용 부담 없이 현 조직을 재편성하는 작업만으로도 모금 조직이 가능한 방안으로, 위에서 제시한 장·단기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략으로 효율적인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기부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이 기능을 부여하는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국단위의 사업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단계적 전략이 동일하게 요구됨.
-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모금 및 배분사업을 전개하는 경우도 지역조직이나 정관 변경 등의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경우와 동일함.
- 그러나,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공공기관이 아니며, 단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로서, 공익적인 목적의 모금과 배분사업을 전담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성격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 조직적 재편성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안할 수 있음.

[그림VII-4]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그림VII-5] 재편성 예술경영지원센터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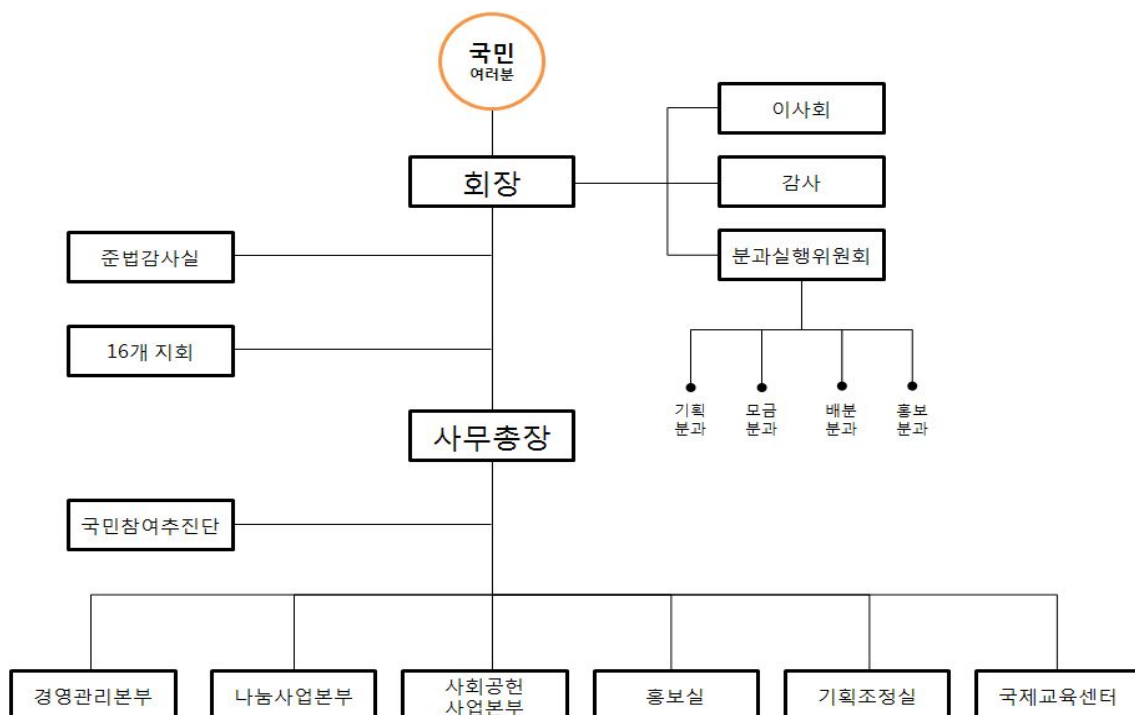
□ 새로운 공동모금 조직 설립을 통한 재원 조성 방안 제안

○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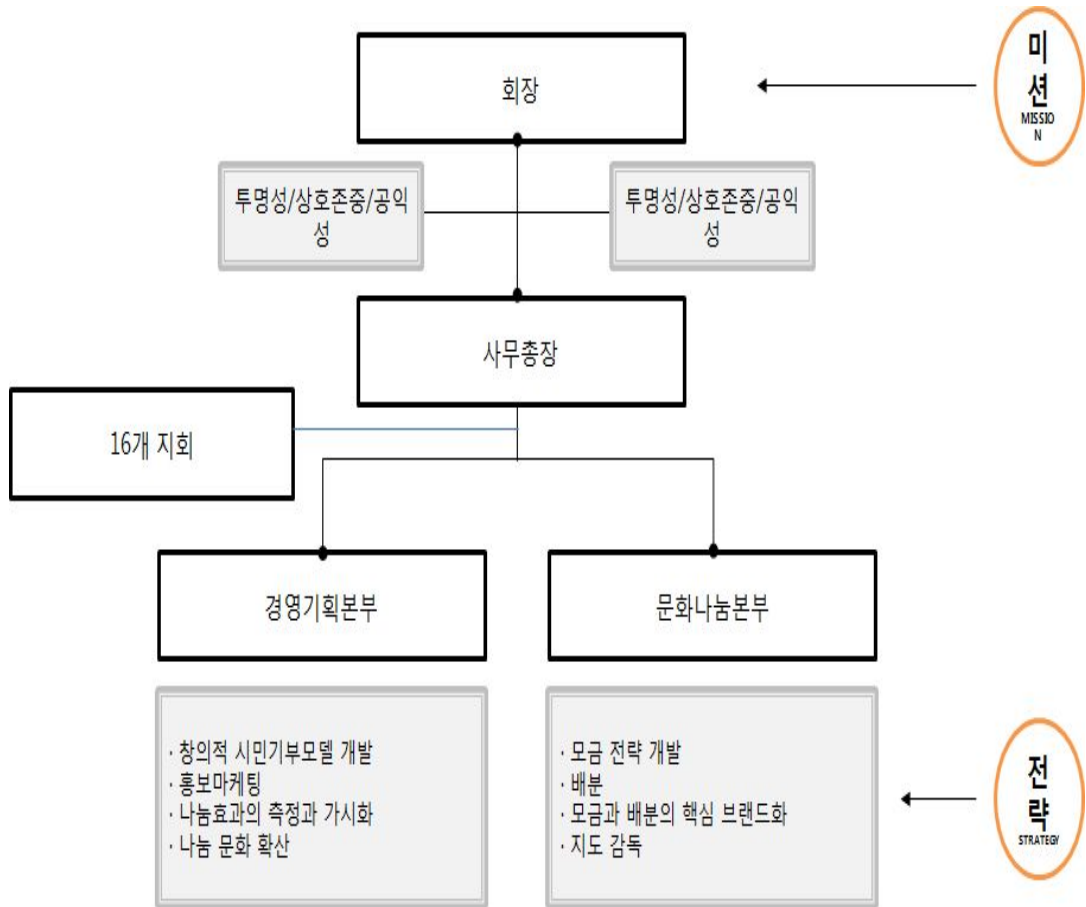
- 특수법인이란 국가정책상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된 법인의 총칭으로, 좁은 의미로는 재정경제면이나 경영관리 및 운용상의 이유에 따라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 형태의 법인을 의미.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등이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의 특별법에 기초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이 경우, 설립은 정부 및 지방 공공단체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므로 안정되고 투명성 있는 모금 전문 조직으로서의 강점이 있으나,
- 전문적인 최고경영진과 임원의 선임 및 임명, 사업계획의 보고 및 승인, 결산보고 등이 정부 내 주무부서의 특별관리 아래 실행되므로, 또 하나의 문화예술 관련위원회를 조직하는 현상이 유발될 수 있으며,
- 주무부서의 특별관리 아래 실행되므로, 정부의 의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사결정에 있어 정부에 비중을 두게 되어, 순수 민간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하는 설립의미와 상반된 방향으로 운영 될 가능성 높음.

- 또한 모금 조직 설립만큼 중요한 부분이 예술인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특수법인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통제가 이루어 질 것임. 따라서 법인은 미션·윤리강령을 만들어 조직을 운영하여 예술인의 역량(투명성, 전문성 등)을 강화하여야 함.
- 따라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이 특별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모금회(가칭)**를 설립 할 경우 초기 투자 자산 규모와 전국 규모의 조직력을 구성하기에 전문적인 역량과 장단기적 전략이 요구됨.
- 조직 편성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모금회(가칭)로 구성할 수 있음.
 -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이사회 및 사무처 (6본부, 10개파트, 4개실행위원회, 인력55명), 16개광역지회
 - 신규 구성 문화예술모금회(가칭): 이사회 및 사무처(2본부 4부)

[그림VII-6] 현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조직도



[그림 VII-7] 문화예술모금회(가칭) 조직도



○ 일반 공익법인의 형태로 설립

- 공익법인은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으로 아름다운재단 등이 여기에 해당 함.
- 현대사회에서 독립적인 활동 단위로 조직 틀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외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 따라서 일반 공익법인 형태의 설립은 지속적인 활동 단위로서의 조직 체제를 갖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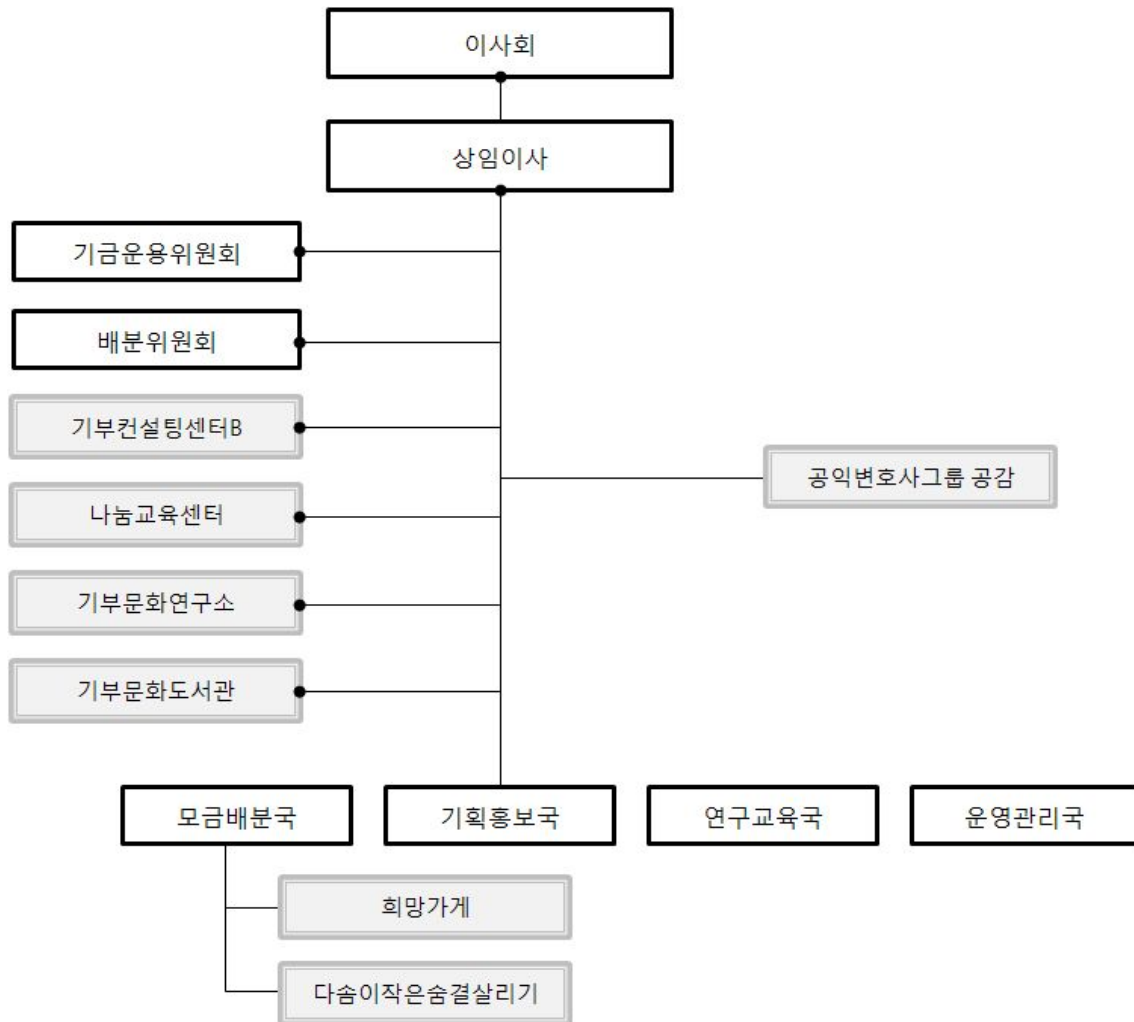
것이며, 순수 민간단체라는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개인들로부터의 지원은 예술조직의 재원 조성 수입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개인 기부를 활성화 하기 위해 세법에 의거하여 해당 예술조직을 비영리조직으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어 세금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단, 공익법인으로 조직 구성 시, 기부 모금액 중 운영기금 사용 비율 (모금액 비중 10%)이 정해져 있어 조직 운영에 있어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 될 여지 있으나, 아름다운재단과 같이 사업기금과 운영기금을 구분하여 재원 조성 시, 유연한 조직운영을 도모할 수 있어 운영상의 불안정한 요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 또한 미국의 예술 조직의 사례와 같이, 재원 조성 전담직원을 두어 다양한 성격의 비영리조직들과 경쟁하여 외부 지원주체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는 사례를 적극 활용하거나,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그자신이 지원자인 동시에 주위 사람들을 설득하여 새로운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지역 파트너로서의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순수문화예술 민간모금 단체로서의 적극적인 기부문화를 창출할 수 있음.
- 조직 편성은 위에서 제시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예술모금회 (가칭)로 구성할 수 있으며 앞의 특수법인 형태에서의 조직과 같음.

· 현재 아름다운재단 : 이사회 및 사무처

(4국, 6팀, 2개 실행위원회, 인력46명)

[그림VII-8] 현재 아름다운재단 조직도



별도 법인의 설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문화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는 경우, 기존의 문화예술기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자산으로 출연하여 재단법인의 형태를 갖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적 판단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이 결정적임.

※ 근본적인 검토사항

1. 문화예술분야에서 민간재원 조성의 명분과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요구를 명료하게 할 것
 -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민간부분에 떠넘기는 것이 되어선 안 됨
 -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사업과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부각해야 함
 - 조세방식이 아닌 기금운용을 통한 정부사업 집행은 위헌소지가 있음
2. 문화예술분야의 단체 및 개인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민간부분의 재원 조성은 사업 필요성과 아울러 수혜단체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 핵심 요소임
3. 정부 내 다른 부처의 계획과의 조율 필요성이 있음
 - 현재 정부 내 거의 모든 부처가 민간부분 재원 조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 및 개인의 기부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
 - 최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부분 재원 조성을 위한 정책 조정 작업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혹은 관리 감독하에 있는) 단체들 및 지자체 문화재단들의 역할 및 기능을 재정비하는 작업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문헌

1. 문헌

- 2010문화예술정책백서(2011).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1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2012). 문화체육관광부
- 강철희·최재성·한동우(2010). 한국 공동모금제도의 사회적 성과와 발전과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구센터
-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2003-2010). 전경련
- 메세나연차보고서(2002-2010). 한국메세나협의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관리규정 시행세칙(20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무관리규정(20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회 운영규정(2011)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관
- 문화예술진흥법
- 아름다운재단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 (2003-2011).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09).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2011). 아름다운재단
- 아름다운재단 정관
- 예술경영지원센터 정관
- 유병우(1998). 브랜드 아이덴티티 구축이 강력한 브랜드 만든다. 마케팅. 제32권 제1호
- 정명주(2012) 2012년 영국의 문화예산과 문화정책 KCTI 문화 예술 관광 동향분석 2012-02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업무보고(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Andrew Pulver, Government extends tax breaks for British films, guardian, 2011.11.10.
- Ata S. Cathy P, (2011). Fundrasing activity in arts, culture, heritage and sports origanisations: a qualitative study
- Charlotte Higgins, Arts Council England funding cuts - the great axe

falls, guardian, 2011.3.30.

Dan Sabbagh, Film-makers to be asked to help with funding shortfall, guardian, 2011.11.28.

Endowments in the arts (2010). Commissio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Culture, Olympics, Media and Sport Arts Funding of the arts and heritage Third Report of Session 2010 - 1, House of Commons Culture, Media and Sport Committe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Report(2012). Arts Council England, February 2012

Mark Brown, How healthy is the arts sector?, guardian, 2011.12.5.

Steven L. (2011). Arts Funding in Uncertain Times: Will U.S. foundations provide stability for the sector?, The Foundation Center

_____ (2011). Arts Funding in Uncertain Times-Will U.S. foundations provide stability for the sector?

Steven L, Reina M, Kelly B, Jonathan K. Alexis F. Holly S. (2011). Arts Funding Snapshot: GIA's Annual Research on Support for Arts and Culture, Grantmakers in the Arts Vol. 22, No. 3 Fall

Thom Dibdin, Scottish culture funding cut by 3.49% in 2012/13, thestage, 2011.9.21

2. 홈페이지

다음세대재단 홈페이지 www.daumfoundation.org

도너스캠프 홈페이지 www.donorscamp.org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www.arko.or.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www.mcst.go.kr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 www.chest.or.kr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gokams.or.kr

유나이티드웨이 홈페이지 www.unitedway.org

일본공동모금회 홈페이지 www.akaihane.or.jp

전국재해구호협회 홈페이지 www.relief.or.kr

한국 공동모금회 홈페이지 www.chest.or.kr

해피빈 홈페이지 happybean.naver.com

행복도시락 홈페이지 www.happydosirak.com

